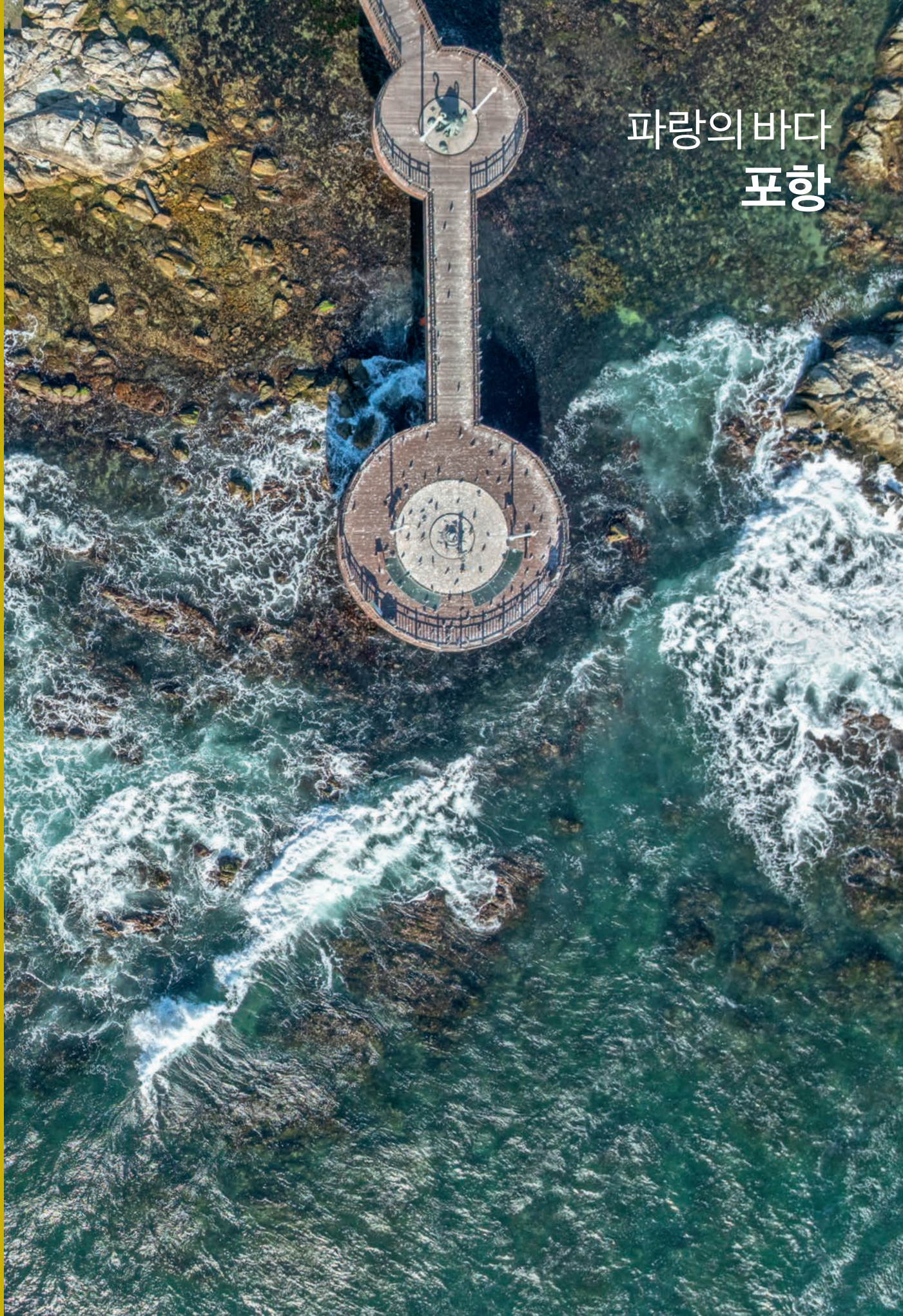
KIX MAGAZINE



파랑의 바다
포항

20
26
11

2026 ULJU TRAIL NINE PEAKS

ARC'TERYX

ULSAN, SOUTH KOREA



KTX MAGAZINE

contents

2026 11



이달의 여행

048 **파랑의 바다, 포항**

포항 바다는 조용하지 않다. 파랑이 쉼 없이
호미곶의 단구를 깎고 절벽에 구멍을 내며
현무암 기둥 사이를 지난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
배를 띄워 그물을 던지고, 철을 녹여 도시를 일으켰다.
한반도 동쪽 끝, 경북 포항으로 간다.



표지 이야기

경북 포항 호미곶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 주변에는 '상생의 손' '영원의 횃불'과 함께 바다 쪽으로 돌출된 전망 덱이 있다. 바다 위에 두 개의 원을 띄웠는데, 육지에서 가까운 원 중앙에는 호미곶 돌문어를, 바다에서 가까운 원 중앙에는 해 뜨는 방향을 가리키는 소년상을 세웠다. 소년상 곁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호미곶등대와 국립등대박물관, 해맞이광장 등 호미곶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야를 더 넓히면 해안단구가 보인다. 파도에 깎여 평평해진 바닥이 천천히 융기하면서 생긴 지형이다. 지구의 일기장 같은 호미곶 해안단구는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014 <KTX매거진> 초대석

“고속철도 통합의 목표는 국민 편익, 그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국 고속철도 통합의 의미를 들었다.

016 코레일 이야기

통합 이후 고속철도, 편하고 저렴해졌다

여행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철도 서비스를 소개한다.

018 듣는 여행

한지장과 자연의 합주

자르르 물 빠지는 소리가 천년을 견딜 한지의 첫 숨처럼 느껴진다.

022 촬영지 여행

시간이 멈춘 숲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의 주요 장면에 전남광주 순천의 백이산 편백숲이 등장한다.

024 여행자의 공간

버려진 것들의 재발견, 종이의 서재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종이의 서재에서는 다양한 재료가 종이로 탄생한다.

026 한국의 멋

찻상에 그린 수묵화

전통 기물에서 영감을 얻는 엄세림 작가는 우드 카빙 기법으로 생활 기물을 만든다.

028 한국의 맛

새콤해도 괜찮아

삶이 떫은 귤을 건네도 귤청을 담가 따뜻한 차로 즐기면 그만이다.

030 시절, 풍경

물안개 그 농염한

초가을, 숲과 호수에 피어오른 물안개의 농염한 자태를 포착했다.

036 전국 행사 달력

11월의 전시·공연·축제

일상에 활력을 더할 풍성한 콘텐츠가 여행자를 기다린다.

068 여행의 발견

충남의 시간을 걷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이 계절에 가기 좋은 충남 서부내륙권의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088 낭만 기차 여행

오감 만족 가을 여행, 정선아리랑열차

오일장의 맛과 정선아리랑의 가락, 가리왕산의 기세를 차례로 만났다.

made in JEONBUK no.23

BOOK in BOOK

made in JEONB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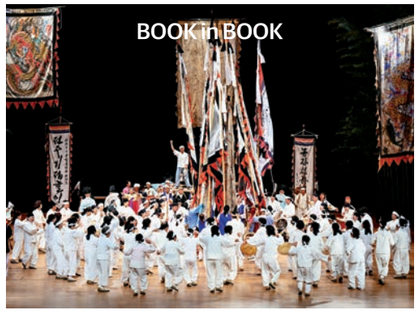
전북의 로컬 체험과 미식, 열 가지 이야기

매력적인 지역 자원을 품은 전북의 색다른 로컬 체험과 블루리본을 단 맛집을 소개한다.









서울우유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다! 담았다!

쟁여놔도 좋겠네~!

서울우유

한끼식사

데일리케어

• Nutrition Balance •

완전균형영양식 구수한 맛

Healthy & Balanced Nutrition

고단백 고칼슘 | 식이섬유 5g 함유 | 저당설계

동·식물성 1:1 균형 단백질

190 mL(115 kcal)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본 제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질병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094 KTX 타고 도보 여행
강변과 골목에서 만난 양평
경기 양평의 골목과 강변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여섯 곳을 찾았다.

100 에디터의 노트
조선 뒷골목 여행
서울 인사동의 인사도시유적전시관을 거닐며 500년 전 옛 도시의 모습을 상상했다.

106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서울에서 찾은 차이코어 레스토랑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의 차이코어 레스토랑 다섯 곳을 방문했다.

130 인터뷰
고사테, 한국 고벽지의 봉인을 풀다
한국 고벽지를 발굴·복원하는 고사테는 전통의 미감을 21세기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138 전시 보러 갑니다
다시 만난 정선
대구간송미술관의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전을 조명했다.

146 트렌드 읽기
달라진 지역 축제의 문법
지역 축제가 시간과 돈을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험의 장으로 바뀌었다.

148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11월의 소식
로맨스, 판타지, 스릴러, 미스터리, 블랙코미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골랐다.

160 플레이리스트
서도밴드와 떠나는 음악 여행
'조선팝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밴드의 구성진 가락이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INFORMATION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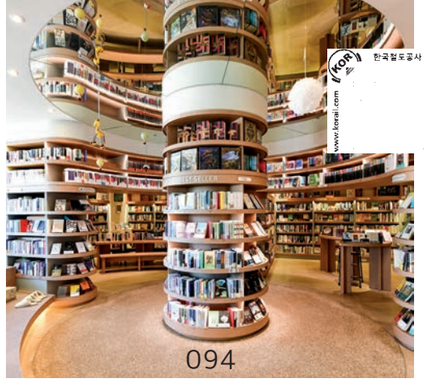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약칭으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SGA VE Code 앱을 설치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Panasonic Beauty

헤어 드라이어의
새 로 운 기 준

nanocare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B70

엠버블랙 시어베이지

nanoe MOISTURE+

판매처 : 유명백화점 및 파나소닉코리아 판매대리점 / 문 의 : 1588-8452, www.panasonic.co.kr

2026년 11월호 KTX MAGAZINE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함께 창간한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고속철도를 대표하는 22년 역사의 월간 차내지입니다.

제23권 제11호 통권 제269호
2026년 11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선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심인보 inbou@bandicom.com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hsprt.com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이젠 말리면서 케어한다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B70

고속 BLDC 모터의 강력한 바람으로 건조 시간은 줄이고,
나노이 케어로 건조 후에도 모발의 촉촉함과 윤기를 유지한다.



파나소닉 독자 기술, 초미세 수분 입자 nanoe™
일반 음이온 대비 약 1000배의 수분 함유

nanoe™ moisture + 의 모발 보습 효과는 기존 나노이 탑재 제품의 약 1.9배.
모발과 두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한다.



두 개의 센서가 읽어 내는 온도, 더 편해진 드라이

헤어드라이어 주변과 바람의 온도를 감지해 온풍을 자동으로 제어,
모발과 두피에 가해지는 열 부담을 줄인다.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짧은 헤드로 건조가 편리하고, 약 460그램의 가벼운 무게로 매일 사용하는
부담을 줄였다.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종이 신문 기자와 종이 잡지 편집장

10월호 마감을 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신인은 어느 대학의 학보사 기자. '사람과 사람' 코너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일정을 살피며 잠시 고민하다 저 역시 대학생 때 교지를 만들던 게 생각나 승낙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열차 좌석 등받이에 꽂힌 〈KTX매거진〉을 봤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이기에 앞서 애독자의 청이니까요. 지난 10월 중순 일요일 오후,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난 우린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꿈은 뭐였나? 편집장으로서 실패나 좌절은? 좋은 기사와 좋은 잡지는 뭐라고 생각하나? 글과 관련된 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적절한 호흡과 단정한 어조로 또박또박 이어 가는 그의 질문은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동공이 흔들리고 머리를 긁적이게 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진땀을 빼며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그에게 〈KTX매거진〉 10월호를, 그는 저에게 최근 발행한 학보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길, 총 12면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펼쳐 보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793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 신문을 만들었을까. 중간고사를 앞둔 휴일 낮, 시험공부와 데이트를 미룬 채 필동을 찾은 그의 열의와 사명감은 저 먼 선배들이 물려준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 신문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기사 마감과 조판을 하느라 시간을 쪼개 쓴다는 스물한 살 대학생 기자의 말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취재에 돌입한 기자들 덕분에 이달 〈KTX매거진〉은 그 어느 때보다 근사한 칼럼이 많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을 찾아 호미곶, 스카이워크, 이가리 닻 전망대 등 유명 랜드마크는 물론, 지난 2월 개통한 해오름대교전망대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수산물 냉동 창고 등을 조명했습니다. 충남 서부내륙권의 시나브로치유길, 성지혜윰길 등을 걸으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고 제천, 영월, 정선을 차례로 지나며 흥겨운 아리랑 공연에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전주, 익산, 무주 등 전북의 일곱 도시를 찾아 쌀누룩 막걸리 빚기, 목화솜 꽃다발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K-샤퀴테리, 생크림 찹쌀떡 등의 인기 메뉴도 두루 섭렵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옥의 벽과 천장, 문틈에 붙은 고벽지를 발굴·복원하는 고사테의 강동수 대표 부부를 만나 생활 유산으로서 고벽지의 의미와 생명력을 살펴봤고, 지금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겸재 정선 - 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찾아 어쩌면 평생 단 한 번 보게 될지도 모를 '국보와 보물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수리에 내리꽂힌 가을 햇살에 어지럼증이 일던 날, 두 눈을 반짝이며 "좋은 잡지는 뭐냐"고 묻던 학보사 기자가 떠오릅니다. 그의 말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존재론적 고민을 하게 했는데, 한참 망설이다 "전달보다 나은 잡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은 잡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KTX매거진〉이, 그다음의 〈KTX매거진〉도 점점 더 나은 잡지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KTX

편집장 **최현주**



EDITOR 김수아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moonhee22



서도호 작가 전시를 보고 평창으로 가는 KTX를 탔다. 그런데 <KTX매거진> 10월호에 <서도호전> 기사가 있는거다! 글과 사진이 너무 좋다. 전시에서 받은 감동을 해석해 주는 듯하다.
#KTX매거진 #서도호 #전시 #평창

@vwvwwv



한여름이 지난 뒤 떠난 대구 여행길에 펼친 <KTX매거진>. 하회선유줄불놀이 사진을 보며 화르륵 피어올랐다 후드득 떨어진다는 그 멋진 장면을 떠올려 본다. 다음엔 안동 하회마을로 갈까?
#KTX #KTX매거진 #대구 #혼자여행

@ktxmagaz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김관숙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제목에 홀려 '편집장의 글'을 읽다가 너무 맹렬해서 그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다는 하회선유줄불놀이를 알게 됐다. 글만 읽었을 땐 어떤 행사일까 궁금했는데, 페이지를 두어 장 넘기니 사진이 나온다. 이거로구나 싶어 반가웠고, 글로 표현한 만큼 아름다웠다.



최주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로

원주역과 만종역에서 자주 기차를 타 <KTX매거진> 10월호 표지의 '원주'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왔다.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색감의 표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지가 만들어 낸 색감이었다. '느림의 미학, 원주' 기사를 통해 한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11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11월 15일까지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과 사연이 실린 달의 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일로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GJTO 광주관광공사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Gwangju Tourism Business Support Center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우는
웰니스 컬렉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편)

2026년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선정한 '광주' 웰니스라이프 쉼터 5곳을 소개합니다.



'색과 꽃으로 만드는 나만의 열흘정원'

센틸로 (어반브룩)
원예치유 프로그램 <열흘 정원>
전남광주 남구 임암길 181 어반브룩



'우제길의 빛에 담긴 나의 컬러'

우제길미술관
하우스 오브 라이트 <한지 콜라주>
전남광주 동구 의재로 140-6



'이브를 위한 고요한 쉼과 회복의 시간'

이브의정원
K뷰티 <K-바디 스크럽 웰니스>
전남광주 광산구 상완길 58 1층



'초록의 여유로 완성하는 작은 정원'

치유의정원 힐링가든휴
원예치유 <나를 위한 작은 정원>
전남광주 남구 신만산길 15



'일상에 쉼을 더하는 감각적인 헤드스파'

코아띠 (헤어캇또)
<감각을 깨우는 프리미엄 헤드 스파>
전남광주 동구 제봉로 221-31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이용 예약은
QR코드를 이용해주세요.

EDITOR 최현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속철도 통합의 목표는 국민 편익, 그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10년의 긴 여정 끝에 지난 9월 1일 하나가 된 대한민국 고속철도. 33년간 철도 기관사로 일한 바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속철도 통합의 의미와 철도 안전에 대한 당부의 말을 들었다.



고속철도 통합이 이루어진 지 두 달가량 지났습니다. 기관사로서 철도 현장을 경험하신 만큼 코레일·SR 기관 통합을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일, 본래 하나였던 철도가 둘로 나뉘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하는데, 이번 통합이 꼭 그런 장면 같습니다. 오랫동안 철도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 울림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고속철도가 양분된 이유가 민영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통합이 오랜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취임 이후 철도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기관사의 경험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각으로 볼 때 안전에서 특히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관사 시절 매일같이 마음에 새긴 단 하나의 원칙은 ‘내가 운행하는 열차에 탄 승객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철도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기관사부터 시스템 관리자, 선로 담당자까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철도는 잠깐의 방심도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관리에 특히 철저해야 합니다. 사업주부터 노동자까지 ‘평소 하던 대로’라는 관성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을 늘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며 기계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둘을 보완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노사의 참여와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지면 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큽니다.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산재 예방을 논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 등의 작업 중지 요구 범위 확대, 다수·반복적인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가 담겼습니다.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단순히 운영 체계를 합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철도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통합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고, 그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철도의 최고 가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는 탄소 배출이 적은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철도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실천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좋은 철도란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고, 철도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이며, 우리 사회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어야 합니다.



33년간 철도 기관사였고, 1년여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철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열차가 제 시간에 출발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 평범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특히 철도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인 만큼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와 승무원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옛 동료 여러분,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선물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철도를 아끼고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열차가 KTX-이음인데요, 철도는 이름처럼 우리의 일상을 이어 줍니다. 출퇴근길부터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여행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철도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여 주는 녹색 교통이자,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대륙 철도로 이어졌을 때 물류 혁명을 이끌어 낼 한반도의 주요 전략 자산입니다. 부산역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역처럼 유라시아의 관문이고, 서울역은 유럽으로 향하는 국제역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X

EDITOR 편집부



통합 이후 고속철도, 편하고 저렴해졌다

지난 9월 고속철도가 통합되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여행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철도 서비스를 소개한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철도 서비스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운행 횟수와 좌석이 늘어나 고속 열차를 탈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일주일 기준 고속 열차 좌석을 약 11만 6000석 추가 공급하고, KTX 운임은 평균 10퍼센트 할인하고 있다.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는데, 공사 귀책으로 열차가 1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의 100퍼센트를 배상한다.

통합 앱 '코레일+'가 출시되면서 승차권 조회와 예매 과정도 한결 간편해졌다. 코레일+ 앱에서는 전국의 모든 고속 열차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문, 얼굴, 개인 식별 번호(PIN) 등 간편 로그인을 지원한다.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와 시각적 피로도를 줄이는 '다크 모드' 등 개인별 맞춤 화면도 제공한다.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서역 이용자도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먼저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퍼센트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기존 혜택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 열차에도 적용된다. KTX와 일반 열차를 연계 이용할 때, 일반 열차 운임이 30퍼센트 할인되는 데다 환승역과 열차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교통 약자나 출퇴근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승하차 도우미 온라인 신청 서비스, 노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 전용 좌석 확보, 정기 승차권 이용객과 자유석 승차권 소지자를 위한 자유석 운영 등이다. 기차 여행을 계획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모아 더 효율적인 여행을 떠나자.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TX





KORAIL

고속철도 통합!

불편은 확~줄고 혜택은 더~커진

새로워진 KTX를 만나보세요

14:28
KTX
039
부산

KTX 산천
SANCHEON 山川

EDITOR 이미선 · PHOTOGRAPHER 안홍범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한지장과 자연의 합주

틀에 섬유를 가둬 물을 빼면 수월할 텐데, 장응열 한지장은 대나무 발틀을
공중에 매달아 흔들며 섬유층을 쌓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자르르 물 빠지는 소리가
천년을 견딜 한지의 첫 숨처럼 느껴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지의 고장 강원 원주에서 장응열 한지장이
전통 방식으로 한지 뜨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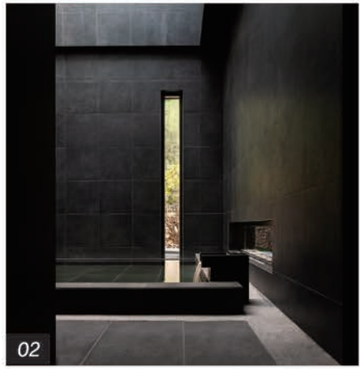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01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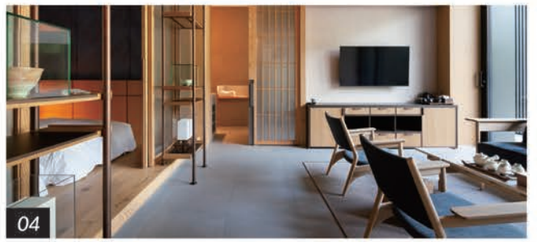


03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EDITOR 김수아



시간이 멈춘 숲

산골 마을에 사는 열일곱 살 순옥과 정임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다. 숲을 무대 삼아 춤추고 노래하던 둘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지만 60년 만에 재회한 정임이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절친했던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만난 순옥의 기억을 따라간다. 과거 순옥과 정임은 매일같이 드나드는 숲에서 함께 노래하며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꼭 서울에서 공연을 올리자고 약속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재회한 둘은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 대회에 참가하기로 한다. 빨간 모자를 쓴 순옥은 국자를 들고 노래하고,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른 정임은 거울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 그러나 정임은 순옥을 향해 웃기만 할 뿐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영화는 1942년과 1991년을 교차하며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임이 기억을 잃은 이유가 서서히 드러난다. 순옥과 정임이 살던 마을에 공장 취직을 미끼로 소녀들을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둘은 일본군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시체를 태우는 화장막에 숨어 지낸다. 참혹한 시대에도 희망을 놓지 않은 그들은 두영에게 한글을 배워 악보를 읽고, 산에서 버섯을 따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두 소녀의 일상에는 숲이 자주 등장한다. 서로의 머리에 꽃을 꽂아 주며 웃는 장면, 솔방울로 장식한 화관을 쓴 채 두영을 쳐다보는 장면은 전남광주 순천의 백이산 편백숲에서 촬영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이름을 올릴 만큼 아름다워 영화의 서사를 더욱 극적으로 그려 낸다. 시간이 흐르며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숲속 나무들은 이들의 찬란한 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KTX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한 송일곤 감독의 <여전히 찬란하게>는 김혜자의 9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서경과 최주은이 각각 어린 시절의 순옥과 정임을 맡아 두 친구의 찬란한 시절과 가슴 아픈 우정을 그린다.





© 플라스엠엔터인먼트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뉴 멤버십 '소노러스 라임'
더 가벼워진 입회금액
20년 만기 입회금 반환
3,000만원대 멤버십
더 매력적인 혜택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창립 혜택 최대 50%
20년간 부대시설 할인
워터파크·골프·스키 등
주중 최대 70%
20년간
객실혜택 30%
[혜택 2] 선택 시 적용
▲ 쏠비치 남해
비발디파크
델피노
쏠비치 양양
쏠비치 삼척
쏠비치 진도
소노캄 경주
소노캄 여수
소노캄 고양
소노캄 거제
소노캄 제주
이용 가능 사업장 전국 18곳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쏠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세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봉재석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1

1 우유 팩, 사탕수수, 카카오 껍질 등 버려진 것들이 알록달록한 종이로 탄생했다. 2 50년 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종이의 서재. 3 재생지로 만든 지스탠드 북스탠드는 웬만한 무게의 단행본도 거뜬히 지탱한다.


2

버려진 것들의 재발견, 종이의 서재

세상에는 종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 농업 부산물부터 버려진 원단까지, '종이의 서재'는 다양한 재료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며 폐자원의 가능성을 넓힌다.


3

서울 합정동 골목, 얼핏 사람 사는 단독주택처럼 보이는 건물에 현수막이 걸렸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이름은 '종이의 서재'.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그레이프랩(Grape Lab)이 운영하는 곳이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종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계 각지의 재생지와 업사이클링 종이 100여 종을 아카이빙한 공간이다. 가만 보니 재료가 독특하다. 대마와 시트러스, 카카오 껍질 같은 부산물부터 가죽과 섬유, 버려진 신문까지 쓰임을 다한 것들이 각기 다른 색과 질감을 지닌 종이로 다시 태어났다.

종이의 활용을 일상용품으로 확장한 자체 개발 상품도 눈길을 끈다. 대표 상품인 지스탠드는 재생지 한 장으로 만든 받침대로, 북스탠드와 노트북 스탠드 두 종류가 있다. 지스탠드는 웬만한 무게의 단행본은 물론 10킬로그램이 넘는 애플 맥북 에어도 지탱할 만큼 튼튼하다.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펼 수 있어 휴대하기도 좋다. 이 밖에 세 가지 재생지를 엮은 지노트, 커피박으로 만든 커피 연필, 인쇄사에서 재단하고 남은 종이를 활용한 자투리 메모지 등을 판매한다. 호텔 침대 커버와 쌀 포대, 폐안전벨트를 조합해 만든 업사이클링 숄더백도 기발하다.

2층은 전시나 소규모 모임이 열리는 다목적 공간. 예약제로 운영한다.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체리, 옥수수, 아몬드, 올리브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지 '하베스트 컬렉션'을 공개하는 팝업을 진행한다. 총 9종의 신제품과 이들 종이로 제작한 지스탠드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KTX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길 11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2026. 10. 24. 토 ~ 11. 01. 일 / 9일간
강진만생태공원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찻상에 그린 수묵화

나뭇결을 따라 먹물이 번진 듯한 기물이 하나둘 모여 고요한 찻상을 이룬다. 궁궐의 전통 문양에서 착안한 '단청 플레이트'부터 다듬잇돌을 본뜬 '굽다리 다식 접시', 다듬잇방망이에서 형태를 따온 '항아리 다식 꽂이'까지. 전통 기물에서 영감을 얻는 엄세림 작가는 우드 카빙 기법으로 다양한 생활 기물을 만든다. 흑단과 벚나무, 호두나무, 단풍나무, 먹감나무 등 기물의 쓰임에 맞는 나무를 고르고, 표면을 섬세하게 깎아 나무 본연의 색과 무늬를 살린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오브제가 일상에 잔잔한 멋을 더한다. KTX

내 몸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일본에서 찾은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

100세 시대에도 사람들의 바람은 변함이 없다. 오래 사는 걸 넘어 신체 나이를 되돌리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노화·재생 의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권유림 ⓒ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세포·유전자치료 발전 전략 국제포럼'에서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발표한 준 다카하시 일본 교토대학교 교수(왼쪽 세 번째)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재생 의료 강국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과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실제 치료로 연결해 왔다. 최근에는 외형적인 젊음이나 활력 개선에 대한 기대에 머물지 않고, 노화와 질환으로 저하된 세포·조직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생 의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줄기세포 연구를 이어 온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최근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팀과 함께 일본 고베를 찾았다.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 원장은 이화학연구소(RIKEN) 생명기능과학연구센터(BDR)와 고베 첨단 의료 클러스터, 고베 국제 의료 교류 재단을 둘러봤다. 회춘에 대한 기대를 기능 회복과 건강 수명 연장으로 연결하는 현지 재생 의학 시스템을 살피고, 한일 의료·학술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젊어지고 싶은 욕구를 의료 영역으로

일본 재생 의학의 경쟁력은 대학과 국책 연구 기관, 바이오 기업,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생태계에 있다. 연구 기관이 기초·임상 연구를 맡고, 기업은 세포 제조와 제품화를 추진하며, 의료 기관은 임상 적용과 장기 추적을 담당한다. 젊음과 활력을 되찾으려는 개인의 소망을 연구와 산업, 의료 현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조찬호 원장은 "연구 성과가 산업과 의료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구축된 협력 구조가 인상적이었다"며 "국내에서도 연구자와 바이오 기업, 의료진이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춘을 바라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일본 재생 의학은 이를 막연한 '젊음의 회복'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질환이나 노화로 손상된 세포와 조직 기능을 보완하고,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치료를 목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파킨슨병과 중증 심부전을 대상으로 한 iPS세포 유래 재생 의료 제품 2종을 조건·기한부로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iPS세포 유래 제품이 실제 치료 단계에 들어선 세계 첫 사례다. 조 원장은 "재생 의료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해외 연구·의료 기관과 학술 교류를 이어 가며 국내 재생 의료의 임상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시술에 '생활 습관 관리' 더한다

조찬호 원장은 8년간 줄기세포를 연구한 뒤 2007년 '신경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의료원 임상 교수를 거쳐 2016년 청담셀의원을 개원했으며, 현재 대한항노화학회 교육이사와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담셀의원은 조 원장의 연구·임상 경험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 상태와 노화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헬스케어를 시행한다. 노화 징후를 조기에 살피고 관리하는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 개념도 진료에 접목했다. 여기에 청담셀의원 건강 자문을 맡은 '국민 주치의' 이시형 박사의 생활 습관 관리론을 더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조 원장은 "생활 습관 관리를 토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의학적 접근을 더하는 것이 건강 수명 관리의 기본"이라며 "연구와 국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안전하고 근거 있는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작 지원 청담셀의원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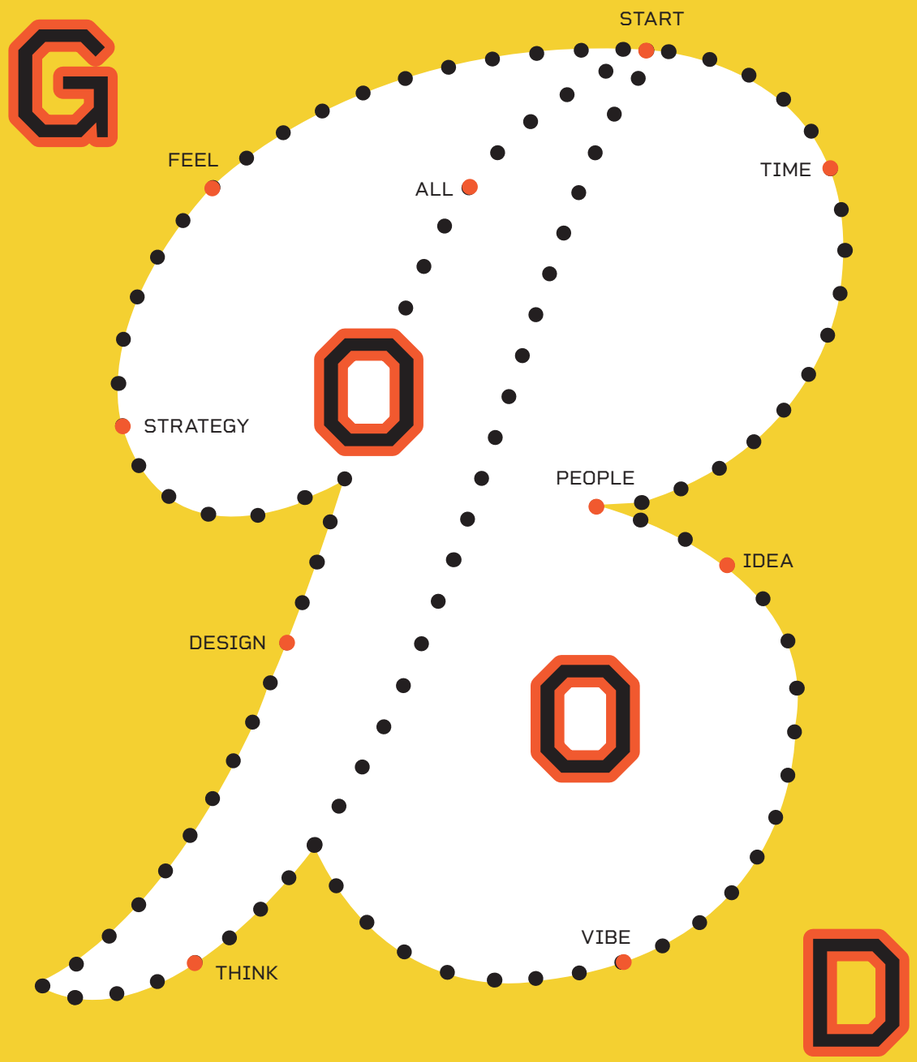


새콤해도 괜찮아

476년 탐라(제주)에는 감귤 진상 기록이 남아 있다. 오랜 세월 귀히 여긴 귤을 쉽게 먹게 된 건 1911년부터다. 프랑스 출신 에밀 타케 신부가 일본인 지인에게 왕벚나무를 보내고 답례로 받은 온주밀감나무를 서귀포에 심으면서 재배가 본격화됐다. 귤을 보면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영어 제목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삶이 네게 귤을 줄 때)'가 떠오른다. "삶이 네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격언에서 따온 말로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인생이 떫은 귤을 건네도 귤청을 담가 따뜻한 차로 즐기면 그만이다. KTX

Good People, Good Connections, Good Beginnings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좋은 시작



bandicom ㈜반디컴 www.bandicom.com 문의 02-2272-1190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안홍범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색을 지운 어둠을 뚫고 숲의 등뼈를 어루만지는 아침.

2025년 11월 강원 강릉

물안개 그 농염한

서늘한 새벽이 뜨거운 대지와 입을 맞춘다. 물안개 그 농염한.

www.korail.com
KORAIL
한국철도공사

하얀 입김을 올리며 그 여름의 태양이 몸을 구른다.

2023년 11월 전북 진안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호수에 휩싸인 채 사라지는 존재에 결박당한 섬.

2024년 11월 전북 임실

EDITOR 김수아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EXHIBITION



이다미, '드랙 뮤지엄'



김민훈, '신부'

〈버티컬즈〉

서울 10.27~12.27

아트선재센터가 네 개의 전시를 동시에 개최한다. 그중 <버티컬즈>는 조각과 건축의 핵심적인 조형 원리인 '수직성'에 주목한 전시다. 역사적으로 남성성을 은유한 수직성을 조각과 건축 분야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다시 쓰기를 제안한다. 구나, 김민훈, 이다미, 이립, 전우진, 최고은, 황수연의 조각 및 설치 작업을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와 야외 정원에서 공개한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 승차 후 충무로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 안국역에 내리면 도보 10분 거리에 아트선재센터가 있다.



장소 서울 아트선재센터
문의 02-733-8949



김도훈, 'Cat'



수 듀드 올 래 오 오 림 오 원 구 스, '낙원의 문 앞에서 조차 내가 이 과 연 이 상 한 일 일까'

〈제8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 09.30~11.29

3년마다 열리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시 곳곳에서 국내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며 시민의 일상과 예술을 연결해 왔다. 올해는 4개국 41명(팀)이 참여해 AI 미디어 아트와 야외 조각·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그중 <아이 파빌리온>은 이번 행사의 주제인 'Arte X: 예술 대전환'을 실현하는 전시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공공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안양역에서 내린 뒤 2번 버스를 타고 안양예술공원 종점·갈메산기도원입구 정류장에 하차하면 전시장 인근이다.



장소 경기 안양예술공원 일대
문의 031-687-5008

SHOW





© 두산아트센터

〈빈자리 없음〉

서울 10.28~11.15

두산아트센터 아티스트 극작가 이경헌은 연극 <서재 결혼 시키기> <감정 연습>을 통해 사건 이후 남겨진 이들의 연대와 애도의 과정을 그렸다. 신작 <빈자리 없음>은 자살 사별자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주변인의 자살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담았다. 고등학생 예지가 자살한 뒤 주은은 자신이 예지를 죽였다 말하고, 담임 교사 이림은 제자를 이해하기 위해 보충수업을 시작하며 극이 전개된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로5가역에서 하차하면 두산아트센터에 닿는다.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문의 02-708-5001





© 세종문화회관

〈에너미〉

서울 10.26~11.14

헨리크 입센이 쓴 희곡 <민중의 적>을 동시대로 옮긴 연극 <에너미>가 무대에 오른다. 원작은 온천 도시의 수질오염을 발견한 의사가 이를 세상에 알리려다 민중의 적으로 몰리는 내용이다. <에너미>는 기존 희곡의 갈등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극 배경을 대규모 워터파크 리조트 '빅 스플래시'로 바꾸고, 인물의 성별과 세대를 변경했다. 주인공 커스틴 역엔 문소리와 이봉련을 더블 캐스팅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 승차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 광화문역에 내려 4분 걸으면 세종문화회관 건물이 나온다.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000









제6회 고흥유자축제

고흥 11.12~15

고흥유자축제는 남도의 햇살과 맑은 해풍을 머금고 자란 고흥 유자를 오감으로 만끽하는 행사다. 향긋한 유자밭을 산책하고 유자청을 담그거나, 유자를 우린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는 유자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대형 유자 조형물이 설치된 유자테마파크, 형형색색의 빛으로 축제장을 밝히는 미디어 아트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나만의 유자 백을 들고 유자밭을 도는 체험형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KCM, 장한별, 채연, 임정희 등 초청 가수 라인업도 탄탄하다. 순천역에서 고흥유자공원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장소 전남광주 고흥유자공원 일원
문의 061-830-5442

제23회 부여국화축제

부여 10.30~11.08

부여 궁남지 일원이 국화로 화려하게 물든다. 올해 부여국화축제는 '국화, 가을의 조각들을 맞추다'를 주제로 국화의 아름다움과 백제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축제장은 역사의 조각, 풍경의 조각, 인연의 조각, 향기의 조각, 치유의 조각 등 다섯 개 테마로 공간이 나뉜다. 국화로 표현한 사비문은 오직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형물이니 놓치지 말 것. 전통 다도 및 압화 체험, 국화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논산역에서 701번 버스를 타고 부여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9분 걸으면 궁남지에 도착한다.



장소 충남 부여 궁남지 일원
문의 041-830-2591



1

작가 60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소장품, 시대의 장면들>전

서울 아르코미술관에서 오는 12월 6일까지 2026 특별 기획전 <소장품, 시대의 장면들>이 열린다. 아르코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70점을 선보이는 전시로, 참여 작가 60명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과 아르코미술관 전시사를 바탕으로 소장품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작가들의 활동과 미술관의 전시사를 선보이는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외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소개해 한국 현대미술의 다층적 서사를 풀어낸다.

이번 전시는 아르코미술관 역대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다룬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작품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전시는 작품 제작 시기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구성하고, 각 섹션에는 작가들의 전시 참여 이력과 동인 활동, 아르코미술관의 주요 전시 기록을 함께 배치해 작품과 시대, 미술관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선정한 리서치 펠로 6명의 연구 결과 공유회를 비롯해 어린이와 시니어 대상 워크숍, 전문가 특별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르코미술관 홈페이지(arko.or.kr/artcenter/)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2

1 <소장품, 시대의 장면들> 중 1970년대 섹션.
2 서울 동숭동에 자리한 아르코미술관. **3** <소장품, 시대의 장면들> 중 2000년대 섹션.



3

제작 지원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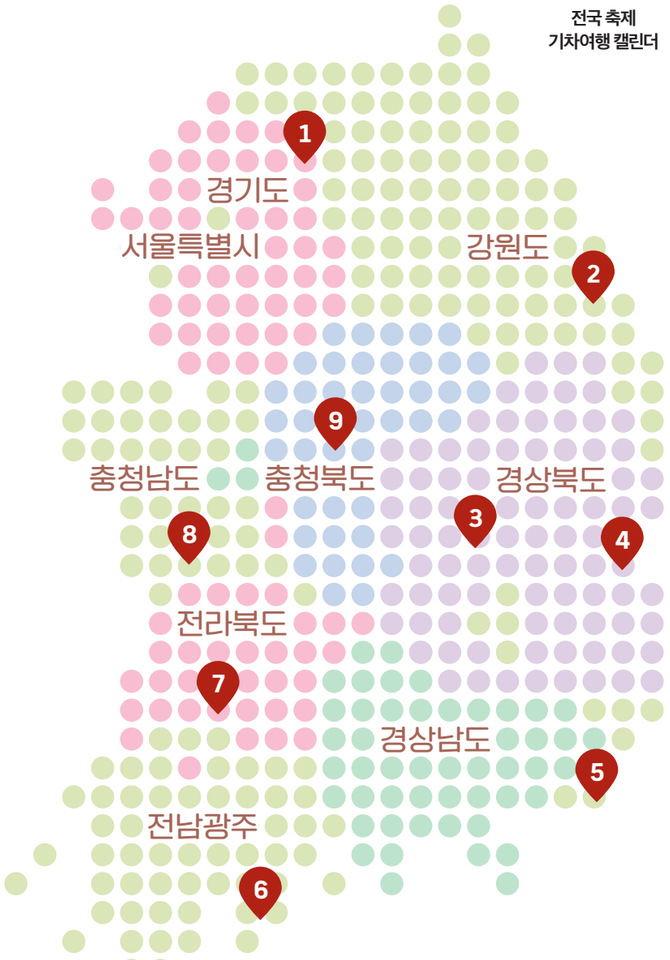
<소장품, 시대의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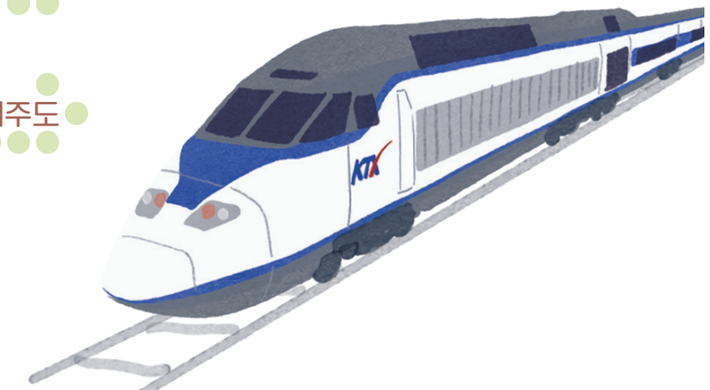
기간 12월 6일까지
장소 서울 아르코미술관(제1·2전시실)

기차 타고 가는 11월 전국 축제

기차와 연계 교통으로 즐기는 11월의 전국 축제를 총정리했다.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 이달의 경품 받자!

응모 방법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11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고흥 유자차 1박스(10명)

당첨자 발표
11월 27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찾아가는 법은 평일 오전 출발 기준

1. 가평



댕댕런 2026
날짜 11월 1일
장소 경기 가평 자라섬
찾아가는 법 경춘선 가평역 하차 후 도보 20분

2. 삼척



2026 너와포차거리
기간 11월 6일~7일
장소 강원 삼척해변 일원
찾아가는 법 삼척역에서 삼척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 110번 버스를 타고 뒷나루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3. 구미



2026 구미라면축제
기간 11월 6일~8일
장소 경북 구미역 일원
찾아가는 법 김천구미역에서 5000번 버스를 타고 구미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4. 포항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11월 19일~21일
장소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찾아가는 법 포항역에서 305번 버스를 타고 선린병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6분

5. 부산



제21회 부산불꽃축제
날짜 11월 7일
장소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찾아가는 법 부산역에서 41번 버스를 타고 광일맨션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6. 고흥



제6회 고흥유자축제
기간 11월 12일~15일
장소 전남광주 고흥유자공원 일원
찾아가는 법 순천역에서 택시 또는 렌터카로 1시간 소요, 또는 여수엑스포역에서 택시 또는 렌터카로 1시간 10분 소요

7. 순창



2026 순창 KOREA 떡볶이 페스타
기간 11월 21일~22일
장소 전북 순창발효테마파크
찾아가는 법 남원역에서 택시 또는 렌터카로 30분 소요

8. 부여



제23회 부여국화축제
기간 10월 30일~11월 8일
장소 충남 부여 궁남지 일원
찾아가는 법 논산역에서 701번 버스를 타고 부여중학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분
*축제장 홍보 부스에 기차 승차권 제시하면 기념품 제공

9. 괴산



2026 괴산김장축제
기간 11월 5일~8일
장소 충북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찾아가는 법 연풍역에서 401번 버스를 타고 괴산시내버스터미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8분



지금, 대한민국은 공연중

11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 예술 등 장르도 다양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이들 공연을 알리고 국민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연 중이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통해 소개하는 공연은 장르와 내용이 다채롭다. 잘 알려진 고전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공연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지역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 눈길을 끈다. 대구에서는 11월 5일 간송 전형필의 삶을 조명한 창작 오페라 〈간송〉을 공연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중에도 전 재산을 출연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킨 전형필의 위대한 정신을 성악과 연기로 풀어낸다. 경북 경주에서는 신라의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한 공연을 만난다. 11월 8일에 선보이는 창무극 〈인생사 원효〉는 원효의 삶과 깨달음을 판소리, 춤, 연기, 국악으로 표현한다. 이어 12일에는 김유신을 주인공으로 신라의 문화와 유물을 소개하는 창작 오페라 갈라 콘서트 〈토우 김유신의 꿈〉이 펼쳐진다. 지역의 일상과 자연을 소재로 한 공연도 있다. 경북 구미에서는 11월 13일 낙동강을 따라 이어진 지역의 역사를 음악, 무용, 내레이션으로 표현한 창작 음악극 〈낙동강 에코 판타지〉를 공연한다. 경북 김천에서는 17일, 전통 예술의 맥을 이어 온 풍악광대놀이예술단의 〈金泉饗宴: 금천향연〉이 관객을 만난다.

클래식부터 전통 예술까지, 취향 따라 즐기는 무대

클래식 공연을 찾는 관객이라면 대전과 충남 공주, 대구에서 열리는 공연을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대전에서는 11월 6일 대전시립교향악단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즈 시리즈를 선보인다. 26일에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대표적인 오페라 음악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마티네 콘서트 〈모차르트 인간을 그리다〉가 열린다. 충남 공주에서는 11월 20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를 공연한다. 공주시와 안동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공주시충남교향악단과 공주시립합창단, 안동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대구에서는 12일 토스티의 대표 가곡과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전통 예술은 익숙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경기 수원에서 11월 14일 공연하는 〈혼 맞으러 왔습니다〉는 진도씻김굿이 지닌 공동체적 치유의 의미를 관객 참여형 의례극으로 선보인다. 선부리부터 종천까지 굿의 10단계 절차를 춤과 노래가 결합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관객은 무구 제작과 의례에 직접 참여하며 공연자와 관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경험을 한다. 28일에는 경기도무용단이 〈태평의 춤〉을 선보인다. 한 해의 묵은 액운을 떨쳐 내고 새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궁중무용부터 민속춤까지 다양한 전통 춤을 선보인다. 경기 광명에서는 26일 국악과 연희에 경쾌한 스카(Ska) 리듬을 결합한 〈니나노 판서트〉가 열린다. 판굿과 콘서트를 결합한 공연으로, 관객이 함께 노래하고 뛰놀며 무대를 만들어 가는 참여형 퍼포먼스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도 풍성하다. 대구에서는 11월 14일 차이콥스키의 클래식 선율에 아름다운 발레 동작을 더한 동화 발레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다. 친숙한 음악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발레가 어우러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즐기기 좋다. 28일에는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연극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선보인다. 11월 28일과 29일에는 스테디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할머니 엄마〉가 관객을 만난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세대를 넘어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낸다. 14일에는 서울에서 동화 속 모험을 발레와 마술로 펼쳐 내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을 공연한다. 고전소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족 참여형 공연 〈퓨전 심청전〉도 같은 날 무대에 오른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연극과 뮤지컬로 보여 주는 무대도 만나 볼 수 있다.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 원주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연극 〈맨 끝줄 소년〉을 공연한다.

공연 예술을 하나로 잇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전국에서 열리는 공연을 소개해 지역 공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공연 관람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의 공연장은 각기 다른 장르와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창작 공연은 해당 지역의 특색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클래식,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은 관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 관람은 지역을 방문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기차를 타고 가서 공연을 보고 주변의 문화 공간도 함께 둘러보는 여행, 문화생활이 중심이 되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볼 만하다. 11월에도 전국에서 공연이 계속된다.





2026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간 10월 1일~11월 30일
장소 대구, 전남광주, 대전, 충남 공주, 경북 경주, 강원 원주 등 전국 곳곳의 주요 공연장

1 멀티미디어 SF 연극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11월 7일과 8일 서울에서 공연한다. **2** 원효의 삶과 깨달음을 판소리, 춤, 연기, 국악으로 표현한 <인생사 원효>. 11월 8일 경북 경주에서 선보인다. **3** 고전소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족 참여형 공연 <퓨전 심청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다. **4** 동화 속 모험을 발레와 마술로 펼쳐 내는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11월 14일 서울에서 공연한다.







1

여권만 들고 가볍게, ‘일본만’과 함께하는 부산-대마도 여행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여행지를 찾는다면 대마도가 첫손에 꼽힌다. 부산에서 배로 1시간 20분이면 닿는 것. 여행사 일본만과 함께라면 승선권과 여행자 보험, 현지 관광버스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약 49.5킬로미터.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20분이면 닿아 1박 2일은 물론 당일치기 일정으로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대마도 여행을 하려면 배편 예약부터 일본 입국 절차, 엔화 환전 등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본만을 이용할 경우 이 모든 과정이 간편해진다. 여기에 더해 승선권 가격도 합리적이다. 평일 기준 왕복 특가가 3만 900원. 정가 1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승선권과 별도로 항만세 및 유류 할증료를 미리 원화로 결제할 수 있어 일본에서 잔돈을 남길 일도 없다. 부두 앞 키오스크에 여권을 스캔하면 즉시 승선권이 발권돼 수속 과정도 간단하다. 부산에서 대마도로 향하는 배편은 쓰시마링크호, 씨플라워호, 노바호 총 세 척. 이 중 쓰시마링크호는 가장 규모가 큰 고속선으로 일반석과 프리미엄석으로 나뉜다. 선내에 환전소와 면세점을 운영해 출항 후 엔화 환전이나 면세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일본만의 대마도 여행 상품에서 ‘미라클 링크패스’ 옵션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라클 링크패스는 쓰시마링크호 운영사인 팬스타크루즈가 만든 관광버스 이용권이다. 미라클 링크패스 하나면 대마도 북부 히타카쓰와 남부 이즈하라를 편하게 오갈 수 있다. 종류는 세 가지. 미우다 해변과 한국 전망대, 밸류마트 등 히타카쓰의 주요 지점을 오가는 ‘히타카쓰 순환권’, 히타카쓰와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직행권’, 순환권과 직행권을 1회씩 조합한 ‘콤보권’이다. 올해 말엔 히타카쓰와 이즈하라로 향하는 그레이스호가 추가 취항해 운항 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만의 대마도 여행 상품은 승선권부터 여행자 보험, 관광버스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데 묶은 황금 패키지다. 짧지만 알차고 실속 있게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일본만과 함께 부산에서 대마도로 가볍게 떠나 보자.

문의 070-8666-3983


2


3


4


5

1 부산과 대마도를 잇는 고속 여객선, 쓰시마링크호. 2 이즈하라에 위치한 가네이시 성터. 3 일본 여행의 묘미는 맛있는 음식. 돈코츠 라멘도 빠질 수 없다. 4 일본의 아름다운 해변 100선에 선정된 미우다 해변. 5 쓰시마링크호의 프리미엄 좌석을 선택한 승객에게는 우선 하선 혜택과 간단한 다과가 주어진다.

제작 지원 일본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쓰시마링크호 승선 스케줄

부산 >>>> 히타카쓰

08:40 출발 >>>> 10:00 도착(화~토 운항)
12:20 출발 >>>> 13:40 도착(토 운항)

히타카쓰 >>>> 부산

10:20 출발 >>>> 13:40 도착(목·토 운항)

부산 >>>> 이즈하라

08:40 출발 >>>> 11:20 도착(수·금 운항)
10:20 출발 >>>> 12:40 도착(월·일 운항)

이즈하라 >>>> 부산

16:00 출발 >>>> 18:20 도착(월·수·금·일 운항)

일본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낭만 초과, 빛으로 물든 강릉의 가을밤

하루가 다르게 밤이 길어지는 계절.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낭만적인 가을밤을 보내고 싶다면 강릉의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와 '경포달빛아트쇼 나의달'을 기억하자.

1



2

빛의 무대로 변신한 솔숲,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

밤이 되면 강릉의 솔숲은 황홀한 빛의 무대로 변신한다.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옆 솔숲에서 야간 체험형 실감 콘텐츠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가 펼쳐진다. 나무 사이로 몽환적인 빛이 스며 나오는 숲에 들어서면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와 솔방울 조형물, 하늘이 그대로 담긴 연못 등이 동화 속 세상을 연상케 한다.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는 야외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상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형식을 넘어, 숲 전체를 하나의 입체적인 야외무대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 내용은 경포의 '다섯 개의 달' 전설을 바탕으로 하늘에 뜬 달, 바다에 비친 달, 호수에 투영된 달, 술잔에 담긴 달,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달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한 것이다. 서늘한 흙 내음이 번지는 솔숲은 미디어 아트의 스크린이 되고, 이야기에 맞춰 사방으로 치솟는 무빙 라이트와 정교한 레이저 빔은 관람객을 무아지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숲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 스모그와 정교하게 조향한 향기는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주소 강원 강릉시 초당동 474-4 **운영 시간** 오후 7시 30분~9시



3

호수에 뜬 보름달, 경포달빛아트쇼 나의달

오죽헌 부근 경포생태저류지에는 밤마다 휘영청 둥근 달이 떠오른다. 지난 9월 지름 10미터 규모의 LED 인공 달을 설치해 20여 종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것.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미지를 선물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체험도 흥미롭다. 16세 미만은 미래의 모습을, 16세 이상은 어린 시절의 모습을 AI 이미지로 만들어 대형 LED 조형물에 송출한다. 보트를 타고 경포달빛아트쇼 나의달을 감상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4월 경포생태저류지에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시설을 설치했다. 6인용 전통 배, 4인용 커피잔 보트, 2인용 커피콩 보트 등을 운영한다. 별이 반짝이는 가을밤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호수 위를 둥둥 떠다니며 휘영청 둥근 달을 바라보는 경험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주소 강원 강릉시 죽헌동 709 **운영 시간** 오후 1시~10시

1, 2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옆 솔숲에서 야간 체험형 실감 콘텐츠인 하슬라강릉 이머시브 아트쇼가 펼쳐진다.
3, 4 지름 10미터 규모의 LED 인공 달을 설치해 20여 종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경포달빛아트쇼 나의달. 보트를 타고 선상에서 보면 더욱 낭만적이다.



4

제작 지원 강릉시청

EDITOR 이미선 · PHOTOGRAPHER 안홍범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파랑의 바다 포항

포항 바다는 조용하지 않다. 파랑이 쉼 없이 호미곶의 단구를
깎고 절벽에 구멍을 내며 현무암 기둥 사이를 지난다.
소란한 파도는 오래전 화산이 식으며 생긴 땅을 다시 빚는 바다의 소리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 배를 띄워 그물을 던지고,
철을 녹여 도시를 일으켰다. 한반도 동쪽 끝, 경북 포항으로 간다.

포항 여행의 지도를 바꾼 '스페이스워크'

2021년 11월,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환호공원 언덕에 '스페이스워크'가 공개됐다. 717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길이 333미터의 철 구조물로, 독일 작가 하이케 무터와 울리히 겐츠가 디자인했다.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 위를 걸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건축적 조각'이라는 말로 체험형 설치미술 작품 '스페이스워크'를 설명했다. 실제로 작품 위를 거닐다 보면 발아래 구름을 두고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스페이스워크'는 영일만과 포항 도심, 포스코 제철소 일대를 조망하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공개 초기부터 포항 여행의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공공 미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이 작품을 2500여 개의 계단이 벌집 모양으로 얽힌 구조물 '베슬'과 함께 언급하곤 했는데, 산이 없는 뉴욕에서 '베슬'은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지만 포항에는 이미 아름다운 전망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스페이스워크'로 향하는 길, 언덕 중턱에서 70대 아일랜드 여성을 만났다. 경주 여행 중 이 작품을 보러 포항에 왔으며, 이곳에서 일몰을 보고 죽도시장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스페이스워크' 관람객 중 12~15퍼센트가 외국인이다. 어쩌면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나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예술이 여행의 경험은 물론 도시의 운명까지 바꿀지도 모른다. 해가 진 후 '스페이스워크'의 우아한 곡선에 조명이 들어오자 파도치는 바다를 그린 추상화처럼 느껴진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문의 054-270-5176



2026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은 면적과 인구 대비 공공 미술 작품이 가장 많은 도시다. 2012년부터 개최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의 성과다. 포항문화재단은 해마다 페스티벌 출품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페스티벌이 끝난 뒤 도시 곳곳에 작품을 전시한다. 올해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의 테마는 '탁마'다. 철을 깎고 다듬으며 삶의 가치를 되돌아본다는 의미다. 포항 역사를 철판에 새긴 '철벽서사 포항', 시민들의 얼굴을 담은 '퍼블릭 포토레이트 포항'을 비롯해 지역 작가나 초청 작가의 협업 전시 등 다채로운 아트워크가 도시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기간 10월 24일~11월 15일 **장소** 경북 포항 동빈문화창고1969, 송도해수욕장 및 포항시 일원 **문의** 054-289-7852





바다 위에서 추는 춤, 서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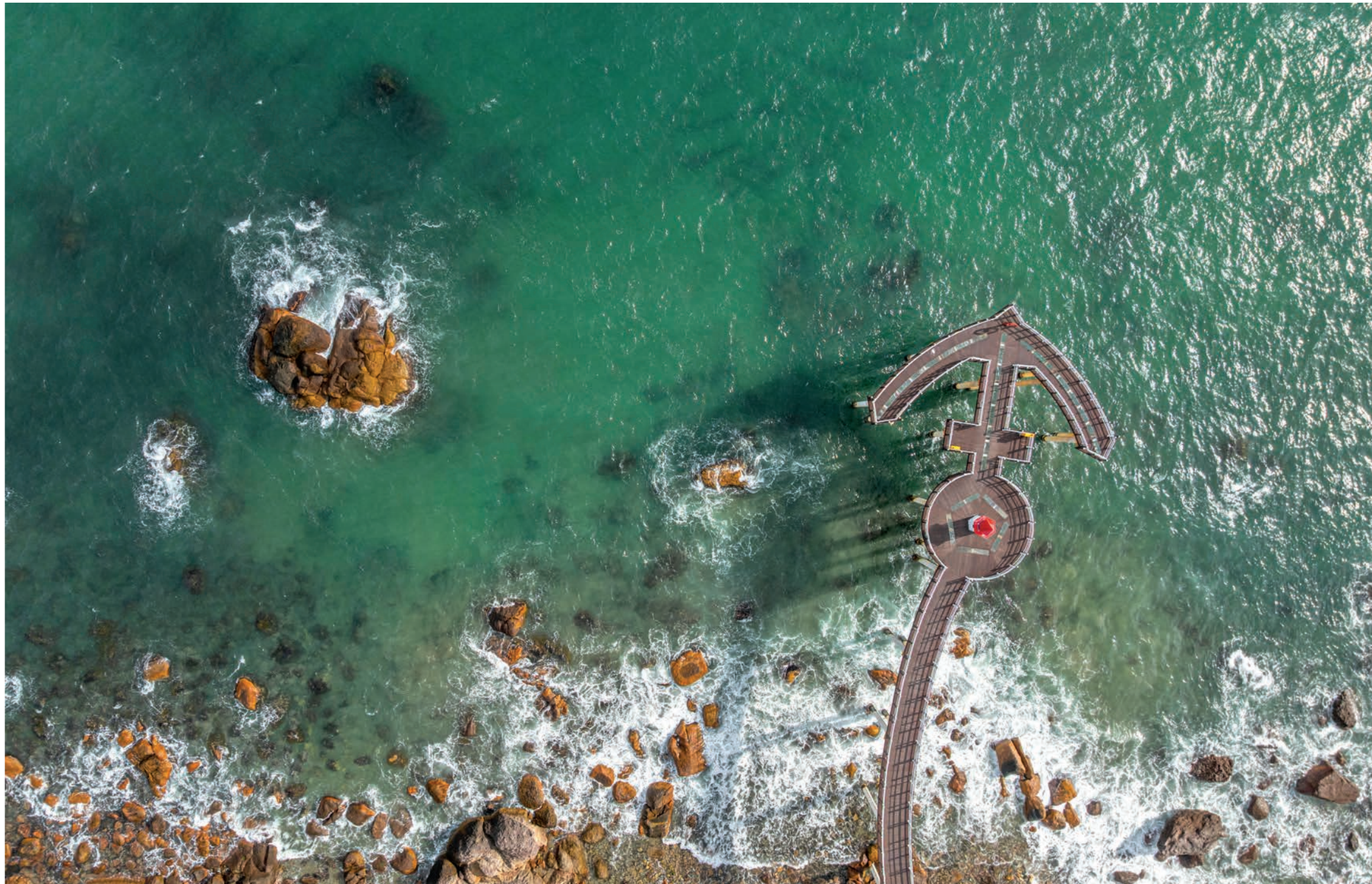
제 키보다 큰 보드를 밀며 물살을 거슬러 저벅저벅 바다로 나간다. 보드 위에 몸을 납작하게 누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관찰한다. 파도의 발자국을 섬세히 읽다가 '내 파도'가 왔을 때 몸을 일으켜 물 위를 미끄러진다. 긴 기다림 끝에 느끼는 짜릿한 쾌감, 포항의 파도가 서퍼를 부른다. 포항 북구 바다에는 부산과 제주를 오가던 서퍼들이 찾아낸 포인트가 여럿이다. 가장 북쪽의 월포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넓고 수심이 얕으며 파도가 높지 않아 초심자가 서핑을 배우기 좋고, 해저에 암석이 많아 상대적으로 파도가 높은 용한리해수욕장 일대는 중상급자가 즐길 만한 구역이다.

용한리해수욕장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로 33

바다 건너에는 독도, 이가리 닻 전망대

바다가 요동친다. 암초 지대를 지난 성난 파도가 해안 절벽에 온몸을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사위를 채운다. 두꺼운 회색 구름을 힘겹게 밀어 올리며 오늘의 해가 떠오른다. 해안 도로를 따라 칠포항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 월포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길가를 서성이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림자를 삼킨 어둠을 헤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파도 소리를 따라가니 길 끝에 독특한 모양의 전망대가 보인다. 닻을 형상화한 이가리 닻 전망대다. 마을이나 해수욕장과는 거리가 있는 외딴곳에 전망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를 가로질러 251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성 덕분인지 이가리 닻 전망대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해안 절벽 상단과 연결된 전망대는 높이 10미터, 길이 102미터에 이르며, 전망대 아래 해변을 따라 도보 여행 길인 해파랑길이 조성돼 있다. 파도 위에 반짝이는 빛을 남기며 해가 머리 위로 천천히 움직인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문의** 054-270-3204





새로운 시선으로 포항을 감상하는 해오름대교전망대

2026년 2월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물길 위에 해오름대교가 개통했다.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교량 하부를 22~28미터 높이의 곡선으로 디자인했다. 7월 말에는 해오름대교 주탑에 전망대가 문을 열었다. 낮에는 푸른 영일만과 도시 전경이, 밤에는 형산강 수면 위로 포스코 야경이 펼쳐진다. 해오름대교전망대는 3층 실내 공간과 4층 옥외 테라스로 나뉜다. 건물을 원형으로 설계한 데다 벽면을 모두 유리로 마감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해오름대교전망대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영일대 방면에서 보행로를 따라 걷거나 송도 방면에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시 입장객을 50명 내외로 제한한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23 **문의** 054-270-3314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

철강 도시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뜨거운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을 테마로 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송도 삼표시멘트 공장의 사일로 외벽을 스크린 삼아 미디어 파사드를 공개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에는 영일대에서 송도 부두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마지막 날은 불빛라디오, 시민합창제 등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사가 종일 열린다. 하이라이트는 오후 8시부터 진행하는 국제 불꽃 쇼와 그랜드 피날레.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 일본이 참여한다. 축제 기간 동안 영일대에 불빛 라운지를 운영하고, 야시장인 불맛미식로드를 비롯해 포항 10미를 선보이는 먹거리 장터를 연다.

기간 11월 19일~21일
장소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문의 054-289-7853

Pohang, Shaped by the Waves

The sea off Pohang is never still. Waves relentlessly carve into the coastal terraces of Homigot, bore holes into cliffs, and surge between basalt columns. People have launched boats into these waters and cast their nets, then built a city by melting iron. The journey leads to Pohang, at the easternmost tip of the Korean Peninsula.

Space Walk, Redefining Travel in Pohang

In November 2021, Space Walk was unveiled on a hill in Hwanho Park overlooking the East Sea. The 333-meter-long steel structure consists of 717 steps. It is an architectural sculpture and interactive installation that is completed only when visitors walk along it. Walking above the ground, visitors feel as though they are floating through space, with clouds beneath their feet. The work was designed by German artists Heike Mutter and Ulrich Genth.

Address 30, Hwanhogongwon-gil,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Igari Anchor Observatory, Looking Toward Dokdo

Igari Anchor Observatory is shaped like an anchor. Why was an observatory built in such an isolated location, far from villages and beaches? The answer lies about 251 kilometers across the sea, where Dokdo is located. Perhaps because of this symbolic connection, the observatory draws a steady stream of visitors. Connected to the top of a coastal cliff, it stands 10 meters high and extends 102 meters in length.

Address San67-3, Iga-ri, Cheongha-myeon,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Haeoreum Bridge Observatory, a New Perspective on Pohang

In February 2026, Haeoreum Bridge opened across the waterway connecting Yeongildae Beach and Songdo Beach. Its underside curves at heights of 22 to 28 meters, allowing ships to pass beneath it on their way to and from Dongbin Inner Harbor. At the end of July, an observatory opened atop one of the bridge's main towers. By day, visitors can take in the blue waters of Yeongil Bay and the cityscape. At night, the lights of POSCO spread across the surface of the Hyeongsangang River.

Address 253-123, Songdo-dong,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파도가 쓴 네 편의 시

**국내 유일의 등대 박물관, 산성 역할을 겸한 장기읍성,
복합 문화 공간이 된 냉동 창고, 생동생동 활기찬 죽도시장까지,
모두 포항의 파도에서 비롯된 진귀한 장면이다.**

호미곶 일출 다음, 국립등대박물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해가 수평선을 완전히 벗어나자 일출을 보기 위해 호미곶에 모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바닷가 카페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 바람을 피해 마을 안길로 걸음을 옮긴다. 키가 작고 담이 높은 집들도 바람을 피해 한껏 웅크리고 있는 듯하다. 일출 후에도 호미곶을 서성이는 이유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세운 호미곶등대가 궁금해서다. 2022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등대유산에 등재된 이 등대는 철근 없이 벽돌만 쌓아 6층으로 지었는데, 각 층의 천장마다 조선 왕실의 상징인 배꽃 문양이 있다고 한다. 황태 해장국으로 든든하게 속을 덥힌 후 호미곶등대가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을 찾았다.

국립등대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등대 전문 박물관으로, 사라져 가는 등대와 항로표지 유물을 보존·전시한다. 국립등대박물관 전시관에는 두 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다. '등대의 시간' 전시실은 2500년 등대의 역사를 보여 준다. 고대 횃불과 나무 표식부터 근대식 등대가 등장하고 현재의 첨단 항로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을 전시한다. 등대원의 삶을 보여 주는 유물은 물론 전국 등대와 항로표지 이야기도 소개한다. '등대와 과학' 전시실은 빛마을, 소리마을, 전파마을, 에너지마을, 항해마을로 나눠 항로표지에 숨은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콘텐츠로 채웠다. 이 외에 등대·등주·등표처럼 빛으로 위치와 위험을 알리는 광파 표지, 안개가 짙어 빛이 닿지 않을 때 쓰는 음파 표지, 전파를 이용한 현대적 항로표지 실물도 전시했다. 전시실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등대가 빛, 소리, 전파를 과학적으로 조합해 선박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아쉽게도 호미곶등대 내부는 볼 수 없었다. 1년에 10회 진행하는 숙박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만 공개한다고 한다. 전시관 2층 무인 등대 카페를 찾았다. 통유리 너머로 호미곶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국립등대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 **문의** 054-284-4857



1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 화합과 화해를 상징하는 조형물 '상생의 손' 외에도 국립등대박물관과 호미곶등대 등 볼거리가 많다. 2 사라져 가는 등대와 항로표지 유물을 보존·전시한 국립등대박물관.



제29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어디서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답이 포항 호미곶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이곳에서 12월 31일 저녁부터 이듬해 1월 1일 아침까지 해맞이축전이 열린다. 12월 31일 밤 전야제 공연으로 시작해 새해 카운트다운과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1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일출이 시작되면 전통 공연의 흥겨운 가락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

기간 2026년 12월 31일~2027년 1월 1일
장소 경북 포항 호미곶해맞이광장
문의 054-289-7855



향교에서 배우는 선비 정신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정상에서 정갈하게 쌓은 돌담을 만난다. 장기읍성 외벽으로 그 위에 서면 누렇게 익은 들판 너머로 바다가 보인다. 하지만 이 돌담은 전망대로 지은 게 아니다. 고려 시대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토성을 조선 시대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석성으로 고쳐 지었다. 조선 시대에는 지방 관아와 민가를 둘러 읍성을 쌓았는데, 평지에 있는 읍성과 달리 구릉 위에 자리 잡은 장기읍성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 기능을 겸했다. 장기읍성에는 장기향교와 동헌 터가 남아 있다. 향교란 조선 시대 한 고을에 하나씩 설치한 국립 교육기관으로,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성현들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으로 나뉜다. 흥미로운 건 외세의 침략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장기향교 유생들이 임진왜란 땐 의병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투사로 활약했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 장기향교는 현재 유교 문화와 장기 지역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장기향교에서 만난 정봉용 전교와 포항문화원 이상준 부원장은 고요한 시골 마을인 장기가 올해 꽤나 시끌벅적했다고 운을 띄운다. 장기발전연구회가 국가유산청 지원 아래 개최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장기향교, 태극마크 달다'에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여행객과 외국인까지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장기의 역사를 기반으로 개발한 '장기향교, 태극마크 달다'는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그중 '유생, 의병이 되다'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글 암호를 풀어 장기향교에 모신 위패를 구출하는 체험이다. 경주성 탈환 시 사용한 화약 무기 비격진천뢰를 모티브로 씨앗 폭탄을 만들기도 했다. '코드명 학 세 마리'는 일제강점기의 학삼서원이 배경이다. 참가자는 서원을 누비며 현판 여섯 개 중 김구의 친필 현판 두 점을 찾는다. 이때 암호를 풀어 군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밀정에게 잡히면 감옥에 갇힌다. '물고기, 용쓰면 용 된다'는 장기향교에서 선비 정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향교에 새겨진 용과 물고기 문양을 찾아 등용문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선비의 상징인 갓을 만든다. 'K-선비, 오늘 나의 이름이오!'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생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책으로만 접한 임진왜란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놀이와 체험으로 풀어낸 '장기향교, 태극마크 달다'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내년부터는 10명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예약자에 한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성길 92 **문의** 054-270-2274



1



2

1 구릉 위에 자리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산성 기능을 겸했던 장기읍성. 2 장기향교 명륜당 기둥 위에는 물고기를 입에 문 용이 조각돼 있다.
3 장기발전연구회는 장기의 역사를 기반으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장기향교, 태극마크 달다'를 개발·운영한다.



3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포항문화원 부원장
이상준

오랫동안 장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기면에서 나고 자란 까닭에 고향에 깃든 역사와 선조들의 삶을 후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배 문화와 선비들의 발자취를 정리해 <장기고을 장기사람 이야기> 등 여러 권의 향토사를 펴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장기발전연구회의 역사 체험 프로그램 '장기향교, 태극마크 달다'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셨다고요.

장기향교는 임진왜란 때 유생들이 의병으로 나서 나라를 지킨 애국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유생, 의병이 되다'와 '코드명 학 세 마리'처럼 참가자가 역사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충효 정신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장기면을 여행할 <KTX매거진> 독자들에게 간단한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기향교와 여섯 개의 서원이 있는 장기는 충효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선비 문화가 살아 있는 고장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등 여러 석학이 독특한 유배 문화를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장기읍성, 장기향교, 학삼서원 등을 천천히 걸으며 그곳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역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 줄 것입니다.

예술적 영감을 저장하는 문화 창고

얼음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저장하던 냉동 창고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동빈내항에 면한 동빈문화창고1969가 주인공으로, 과거 이 건물은 포항수협의 냉동 창고였다. 1969년 건립한 냉동 창고는 2018년 포항수협이 이전하면서 가동을 중단했고 이듬해 포항시가 매입했다. 이후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새로 짓는 대신 포항 사람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이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다. 2023년 9월 리모델링을 마친 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 정식 개관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동빈문화창고1969를 찾았을 때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시 〈아침놀〉을 철거하는 날이었다. 허망한 얼굴로 서 있으니 누군가 다가와 "전시 외에도 볼거리가 많다"며 아카이브 공간으로 이끈다. 건물 1층에서는 냉동 기계실과 냉매제 가동 장치를, 2층에서는 송빙교와 쇄빙탑, 아이스캔을 볼 수 있다. 송빙교란 냉동 창고에서 만든 얼음을 부두 쪽으로 보내는 다리 같은 시설이고, 쇄빙탑은 송빙교를 통해 받은 얼음을 잘게 부숴 어선에 공급하는 설비다. 그제야 1층의 전시실과 다목적 홀, 이벤트 홀에도 냉동 창고의 투박한 문을 남겨 둔 것이 눈에 띈다. 여느 건물보다 층고가 높아 대형 설치 작품은 물론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하기에도 적당해 보인다. 2층에는 이벤트 홀과 야외 라운지, 북 라운지, 카페 등이 자리한다. 공연장처럼 계단식 객석이 무대를 향하도록 지은 야외 라운지에서는 종종 영화 상영회나 공연이 열리고, 북 라운지에는 국내외 예술 서적 전문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과 해양 문화 관련 서적을 비치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동빈문화창고1969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획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지난여름에는 책과 영화, 음악이 있는 리트리트 프로그램 '썸머 컬쳐 리조트'를 개최했고, 미션을 완수하며 1969년의 시간을 해동하는 참여형 XR 방 탈출 프로그램 '얼음…땡! 1969'도 진행했다.

동빈내항과 해오름대교가 한눈에 펼쳐지는 2층 카페에는 포항 로컬 브랜드 몰리커피랩이 입점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들이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미래로 잇는 방식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장소성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예술적 영감의 저장소가 된 동빈문화창고1969. 앞으로 어떤 이벤트를 보여 줄지 기대된다. 인스타그램(@ice_culturecargo) 계정을 팔로우하고 지켜봐야겠다. 화~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쉰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선착로 78 **문의** 054-289-796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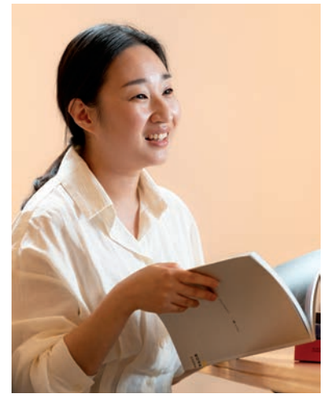


2

1, 2 동빈내항과 해오름대교가 한눈에 펼쳐지는 2층에 입점한 포항 로컬 브랜드 카페, 몰리커피랩 2호점. **3** 포항수협 냉동 창고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동빈문화창고1969. 외벽에 포항항의 산업 시설이 비쳐 보인다.



3



포항문화재단 공간디자인팀
김자영

그동안 장소 특정적 전시가 많이 열렸네요.

동빈문화창고1969는 해양 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실험하는 플랫폼이에요. 바다를 통해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고 지식이 교류하는 큰 사이클에 주목하죠. 움직이는 대형 기계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포항문화재단의 머신아트랩(Machine Art Lab)과 함께 융복합 퍼포먼스와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어요. 예술가와 기술자, 기획자가 협업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예요.

11월과 12월에 열리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11월 15일까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열리고, 12월에는 구룡포 아라예술촌 입주 작가 성과 보고전이 계획돼 있어요. 포항에서의 1년을 마무리하며 선보이는 전시로, 축적된 시간의 결과이자 앞으로의 작업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포항에는 공공 미술 작품이 많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을 추천해 주세요.

2015년 KTX 포항역이 이전하면서 폐철도가 철길 숲으로 바뀌었어요. 효자역과 옛 포항역 사이 4.3킬로미터 구간을 걸으며 다양한 공공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용덕 작가의 '만남 2017'이에요. 한쪽에는 사람 얼굴을, 반대쪽에는 인체 실루엣을 표현한 작품이죠. 영일대에서도 다양한 공공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1


2


3

1 죽도어시장과 죽도시장 사이의 건어물 거리.
2, 6 해산물만큼 인기가 좋은 죽도시장 간식.
3 죽도어시장 해산물 가격은 당일 새벽 경매에서 결정된다. 4, 5 수제비 골목에는 여남은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4


5


6

포항항! 맛있는 죽도시장 안내서

죽도시장의 먹거리 골목은 크게 죽도어시장, 건어물 거리, 간식 거리, 수제비 골목으로 나뉜다.

포항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종합 시장으로,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에 2500개가 넘는 점포가 들어섰다. 과거 이 일대는 섬이었다. 갈대가 많은 늪지대라 '갈대섬'이라 불렀는데, 1930년대부터 갈대밭에 하나둘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한국전쟁으로 불타면서 크게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경북 동해안과 강원 일대의 농수산물이 집결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시장의 생동생동한 활기를 느끼고 싶다면 채소 도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새벽 2시에 농산물 시장을 가거나, 수산물 경매가 열리는 새벽 4시에 포항수협 죽도선어위판장으로 향하자. 먹거리를 찾아 죽도시장 나들이를 계획했다면 오후 5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일찍 열린 시장의 하루는 일찍 끝난다. KTX

죽도어시장

매일 새벽 죽도선어위판장 경매가 끝나면 죽도어시장 상인들은 손님 맞을 채비를 한다. 해산물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회를 뜨거나 삶아 손질해 주는데, 초장집에 들고 가서 1인당 5000원을 내면 근사한 상을 차려 준다. 보다 저렴하게 회를 먹고 싶다면 오전 6~7시 무렵 '할매고래' 앞에서 막회를 파는 좌판을 공략한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죽도어시장은 대게와 문어가 제철이다.

찾아가는 법 개풍약국 쪽 입구에서 아케이드를 지나 가장 안쪽에 동빈내항과 면해 있다.

건어물 거리

죽도어시장에서 동빈내항 반대편으로 나오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짭조름하게 마른 건어물이 줄지어 걸린 건어물 거리와 만난다. 한쪽에는 오징어, 아귀, 과메기, 쥐포, 김 등을 가공한 상품이 걸렸고, 다른 한쪽에는 넓은 소쿠리에 가자미, 장어, 조기, 열기, 도루묵, 대구뽈 등을 널어 놨다. 대형 마트처럼 시식 코너까지 마련해 여행객의 발길을 끄는 집도 여럿이다.

찾아가는 법 죽도시장과 죽도어시장을 가르는 죽도시장13길

간식 거리

시장 구경에 재미를 더하는 간식 거리.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꽈배기, 주문하면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어묵과 육전, 도라지 조청에 6시간 조린 어묵으로 만든 조청 김밥, 갓 구운 카스텔라 등 소셜 미디어에 '죽도시장 먹킷리스트'가 공유될 정도로 다양한 간식을 판매한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는 소포장 과메기 세트와 꼬치 형태 과메기를 판매하는 곳도 늘어난다.

찾아가는 법 개풍약국 입구부터 건어물 거리(죽도시장13길)까지 이어지는 죽도시장길

수제비 골목

간식 거리에서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벽도 담도 없이 분식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블록이 나온다. 수제비, 칼국수, 칼제비까지 메뉴는 세 가지. 음식점이 열 군데가 넘는데, 메뉴와 가격이 똑같다. 멸치 육수에 감자와 애호박을 넣고 걸쭉하게 끓인 후 부추를 길쭉하게 올려 내는데, 기호에 따라 간장 소스를 첨가해도 좋다. 곱빼기 메뉴는 없지만, 주문할 때 넉넉하게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얹어 준다.

찾아가는 법 죽도시장 옛날 카스테라 뒤편 블록

제작 지원 포항시청

Four Poems Written by the Waves

From Korea's only lighthouse museum and Janggi Eupseong Fortress, which also served to defend against foreign invasions, to a former cold-storage warehouse transformed into a cultural complex and the auction floor at Jukdo Market, where seafood auctions take place every day, these remarkable scenes all stem from Pohang's relationship with the waves.

Beyond Homigot’s Sunrise: National Lighthouse Museum

Korea's only museum dedicated to lighthouses preserves and exhibits artifacts related to lighthouses and navigational aids that are gradually disappearing. The exhibition building has two permanent galleries that help visitors understand how lighthouses protect vessels by scientifically combining light, sound, and radio signals. On the second floor, the unmanned Lighthouse Caf? offers panoramic views of the Homigot area through its floor-to-ceiling windows.

Address 20, Haemaji-ro 150beon-gil, Homigot-mye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Learning the Seonbi Spirit at Hyanggyo

Hyanggyo was a state-run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in each county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taught Confucian scholarship to students and held memorial rites for revered scholars. One particularly interesting aspect of Janggi Hyanggyo's history reflects the area's repeated experience of foreign invasions: its students served as volunteer soldiers during the Imjin War and as independence fight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nggi Development Research Association runs history-based experiential programs inspired by these local stories.

Address 92, Eupseong-gil, Janggi-mye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Dongbin Culture Cargo 1969, a Storehouse of Artistic Inspiration

A former cold-storage warehouse operated by the Pohang Fisheries Cooperative, once used to produce ice and store seafood, has been transformed into Dongbin Culture Cargo 1969, a multipurpose cultural space. Rooted in the site's history, it hosts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a variety of events. During the renovation, the original refrigeration machinery room, ice transport bridge, ice-crushing tower, ice cans, and other archival elements were preserved, retaining traces of the joys and hardships experienced by Pohang's residents. The Pohang Steel Art Festival runs through November 15.

Address 78, Seonchak-ro,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김은주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충남의 시간을 걷다

천안, 공주, 논산 등 충남 서부내륙권 여행을 계획한다면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제안하는 네 가지 연계 관광 코스에 주목하자.
자연 속 회복, 친환경 레저 여행, 근대문화유산 탐방, 순례길 투어 등
테마별 여행을 하는 동안 충남이 지나온 시간을 마주한다.

| 1 |

온몸으로 느끼는 자연의 숨결

시나브로치유길

충남 서부내륙권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시나브로치유길은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웰니스 코스다. 공주, 논산, 예산, 금산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데, 특히 금산과 예산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숲길과 묵은 피로를 풀어 주는 온천도 갖춰 진정한 쉼을 위한 최적의 여행지로 꼽힌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금산의 월영산 출렁다리가 제격이다. 월영산과 부엉산을 잇는 높이 45미터, 길이 275미터의 다리로 무주탑 현수교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긴장을 놓지 못하면서 탁 트인 전망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든다. 거친 바람을 뚫고 다리 끝까지 걷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성취감은 커진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고 싶다면 예산의 덕산 메타세쿼이아길과 덕산온천이 제격이다. 덕산면 일대에 약 450미터 길이로 조성한 덕산 메타세쿼이아길은 양옆으로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가 쭉 이어져 가을의 한가운데를 걷는 느낌을 준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기다 찬 바람에 코끝이 시려워지면 덕산온천지구로 향하자. 따뜻한 온천수에 두 발을 담그고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활력이 생긴다. 다친 학이 논물을 발라 상처가 나았고, 그 자리에서 따뜻하고 매끄러운 물이 솟아났다는 덕산온천의 유래를 알고 나면 물빛이 더욱 신비롭게 다가온다. 시나브로치유길은 단순한 산책 코스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는 회복의 장에 가깝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맑은 기운이 가득한 충남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월영산 출렁다리 주소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68-5 **문의** 041-754-3837 **덕산 메타세쿼이아길 주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27-31 **문의** 041-339-8930
덕산온천지구 주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19 **문의** 041-339-8930




1



2

© 충남문화관광재단


3

© 충남문화관광재단

1 월영산과 부엉산을 잇는 금산의 월영산 출렁다리.
2 양옆으로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가 이어지는 덕산 메타세쿼이아길.
3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덕산온천의 온천수.


1

© 충남문화관광재단


2

©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1 대규모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부여의 나래공원은 가을철에 특히 사랑받는다.
2 반쪽짜리 하트 모양을 닮은 독특한 수형의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3, 4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점이 골목을 따라 이어진 부여의 규암마을.


3

© 충남문화관광재단



4

© 충남문화관광재단

2

금강 따라 지구를 위한 한 걸음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

공주, 부여, 논산 등 금강 유역을 아우르는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는 친환경 여행을 지향한다. 그중 이 계절에 꼭 가야 할 곳은 부여의 나래공원과 규암마을, 가림성 느티나무다. 먼저 대규모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나래공원은 가을철에 특히 사랑받는 생태 공원이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백마강 변 유휴 부지에 약 4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다. 미로 같은 산책로를 거닐며 금빛 억새를 감상하는 사람,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에서 바람을 즐기는 라이더가 많다. 나래공원에 왔다면 억새 숲 사이에 자리한 포토존에서 부여 여행을 추억할 기념사진을 꼭 남기길 추천한다. 다음으로 아기자기한 감성을 좋아한다면 규암마을로 향한다. 강과 인접해 예로부터 교통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규암마을은 해방 이후 백제교가 생기고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옮겨 가며 침체됐으나, 젊은 창작자와 공예가가 모이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서동요'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의 이름을 딴 '선화핸즈', 서점이자 소품 숍인 '북토이', 그림책 테라피스트가 운영하는 '보늬책방' 등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점이 골목을 따라 이어져 예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는 해 질 무렵 성흥산에 올라 천연기념물인 가림성 느티나무를 만나자. 반쪽짜리 하트 모양을 닮은 독특한 수형의 이 나무는 생김새 때문에 '성흥산 사랑나무'로 더 많이 불린다. 나무 자체도 아름답지만 나무 뒤로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 준다. 드라마 <서동요>를 비롯해 <환혼> <호텔 델루나> 등 다양한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다. 강변을 거닐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여정. 올가을 지속 가능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여의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를 추천한다.

나래공원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518-12 **문의** 041-830-2880 **규암마을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5-31(123사비 아트큐브)
문의 041-830-6866(123사비 아트큐브) **가림성 느티나무 주소**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 **문의** 041-830-2880





1, 2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장으로 조성한 논산의 선샤인스튜디오. 최근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 촬영을 위해 공간을 확장했다. 3 논산의 강경근대거리에 있는 음악도서관은 근대의 낭만을 만나는 공간이다. 4 100여 년 전 강경의 모습을 재현한 강경근대거리.





3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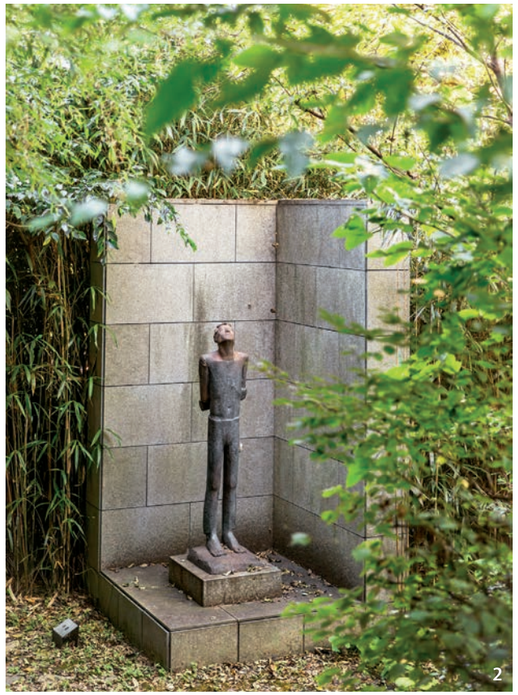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논산과 부여의 옛 모습이 궁금하다면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가 제격이다. 특히 논산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과 드라마 세트장이 있어 근대 역사를 살피며 장소에 깃든 이야기를 만나기 좋다. 그중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장으로 조성한 선샤인스튜디오다.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에 근대건축물 5동, 와가 19동, 초가 4동, 적산 가옥 9동을 조성해 1900년대 초반 한성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했다. 〈파친코〉 〈구미호뎐1938〉 등 시대극 촬영지로 자주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경성을 배경으로 한 첩보 로맨스물 <100일의 거짓말> 촬영을 위한 확장 공사를 마쳐 볼거리가 더욱 많아졌다. 대한제국 시대 덕수궁 정문을 재현한 대안문, 개화기 종로 상점가를 복원한 거리, 개화기 최초의 전차를 본뜬 한성전차 등 당시 모습을 상상케 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가운데 <미스터 션샤인>의 OST가 흘러나와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논산 강경읍에는 강경의 옛 모습을 재해석한 강경근대거리가 있다. 강경역사문화안내소(구 강경노동조합), 강경역사관(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여럿 남아 있어 건축 답사 장소로도 사랑받는 곳이다. 강경역사관 뒤편에는 개화기 상인들의 사교·오락 시설을 재현한 강경구락부가 자리한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유럽풍 근대건축물이 이어지는데, 그중 강경호텔이라는 간판을 내건 '스테이인터뷰 강경'은 실제로 숙박 가능한 시설이다. 드라마 세트장을 연상시키는 레트로한 분위기의 골목은 드라마 <백번의 추억>에서 안내양 영례와 종희가 100번 버스를 타고 매일같이 지나던 길이다. 힘차게 울려 퍼지던 씩씩한 "오라이~"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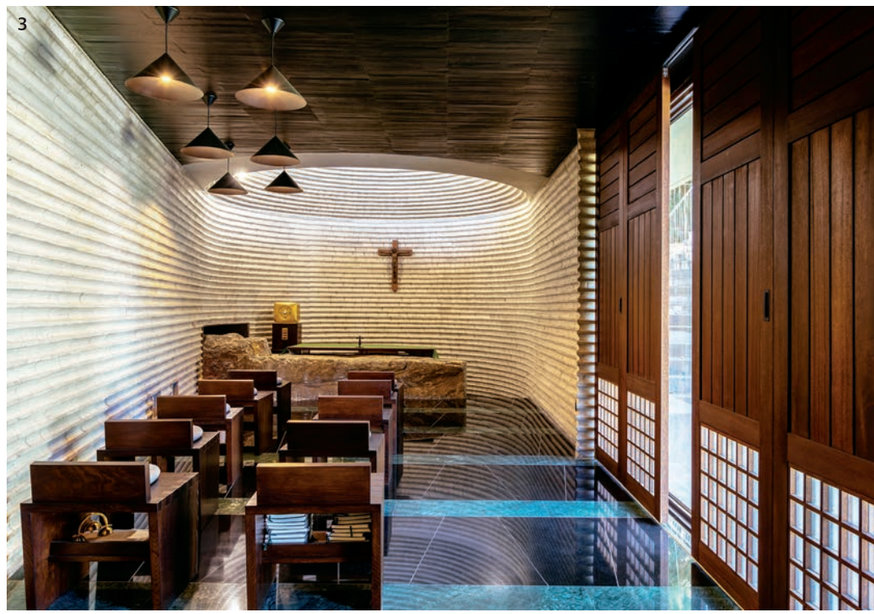
선샤인스튜디오 주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황로 90 **문의** 1811-7057 **강경근대거리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67번길 50(강경역사관)
문의 041-745-3444(강경역사관)



1 청양 장곡사 경내에 스며드는 햇살을 따라 걷는다.
2 청양다락골성지의 줄무덤 성지로 가는 길에 만나는 부활상.
3 새터 성지에는 최양업 신부 탄생기념경당이 있다.



2



3

4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순례의 길

성지혜윰길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쉼을 얻고 싶다면 청양으로 떠나자. 성지혜윰길은 종교 자원을 기반으로 걷기와 명상, 치유 콘텐츠를 접목한 코스다. 공주, 논산, 부여, 예산, 청양을 아우르는데, 이 중 청양은 천년 고찰과 순교자 무덤도 있어 성지 순례 장소로 최적이다. 칠갑산 자락에 안긴 장곡사는 850년(신라 문성왕 12년)에 보조선사 체징이 창건한 사찰이다. 대웅전이 상하 두 채로 나뉜 독특한 구조이며, 두 건물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미륵불 괘불탱'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도 장곡사가 품은 국보로 보호받는다. 이른 아침 장곡사 경내에 스며드는 햇살을 따라 걷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에 평온이 찾아든다. 한편 화성면에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청양다락골성지가 있다. 새터 성지와 줄무덤 성지로 나뉘는데, 새터 성지는 당시 신자들을 위해 조선 팔도를 누벼 '땀의 순교자'로 불린 최양업 신부와 그의 부친 최경환 성인이 탄생한 교우촌이다. 생가 터에 마련한 '최양업 신부 탄생기념경당'은 최양업 신부가 1860년 경신박해를 피해 생쌀을 먹으며 은신하면서 미사를 드린 울산 죽림굴의 모습을 재현했다. 길고 널찍한 바위를 제단으로 삼고, 제단 위 천장에는 그가 밤마다 보았을 별자리를 새겼다. 이곳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자리한 줄무덤 성지에는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이 줄지어 있다. 병인박해와 무진박해 때 순교한 교우들의 시신을 삼엄한 감시를 뚫고 모셔 왔다고 전해진다. 성지혜윰길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되돌아보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KTX

장곡사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241 **문의** 041-942-6769 **청양다락골성지 주소** 충남 청양군 화성면 다락골길 78-6 **문의** 041-943-8123



© 충남문화관광재단

Planning a trip through western inland Chungnam? Take a look at these four themed travel routes recommended by the Chungnam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From nature-based healing and eco-friendly leisure to modern heritage sites and pilgrimage trails, each route offers a chance to discover the layers of history that have shaped the region.

Walking Through Chungnam's History

1 Sinabro Healing Trail

The Sinabro Healing Trail is a wellness route designed for those worn out by the demands of everyday life. It spans several areas of Chungnam, including Gongju, Nonsan, Yesan, and Geumsan, with Geumsan and Yesan standing out as ideal destinations for rest and relaxation. For a dose of thrills alongside natural beauty, head to Woryeongsan Suspension Bridge in Geumsan. To soak up the atmosphere of autumn, visit Deoksan Metasequoia Road and Deoksan Hot Springs in Yesan. Metasequoia trees with leaves turning red line both sides of the road, creating the feeling of walking through the heart of autumn. At Deoksan Hot Springs, simply soaking your feet in the hot spring water is enough to warm you up.

Woryeongsan Suspension Bridge Address 168-5, Cheonnae-ri, Jewon-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4-3837 **Deoksan Metasequoia Road Address** 27-31, Siryang-ri, Deoksan-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339-8930 **Deoksan Hot Springs Address** 19, Oncheondanji 2-ro, Deoksan-myeon, Ye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339-8930

2 Bidangaramon-gil Leisure Course

The Bidangaramon-gil Leisure Course focuses on eco-friendly travel. Three must-visit destinations this season are Narae Park, Gyuam Village, and the Garimseong Zelkova Tree in Buyeo. Narae Park is known for its vast colonies of silver grass. Wander along its maze-like paths and admire the golden plumes swaying in the breeze. For a more charming, artsy atmosphere, stop by Gyuam Village. Once a center of transportation and commerce, the village fell into decline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It has since regained its vitality as young artists and craftspeople have moved in. As the sun begins to set, head up Seongheungsan Mountain to see the Garimseong Zelkova Tree, whose shape resembles half of a heart, and take in the romantic scenery.

Narae Park Address 518-12, Gunsu-ri, Buyeo-eup, Buyeo-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830-2880 **Gyuam Village Address** 155-31, Gyuam-ri, Gyuam-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123 Sabi Art Cube) **Contact** 041-830-6866 (123 Sabi Art Cube) **Garimseong Zelkova Tree Address** 167, Seongheung-ro 97beon-gil, Imcheon-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830-2880



© 충남문화관광재단





3 Modern Heritage Discovery Course

For a glimpse into the past of Nonsan and Buyeo, the Modern Heritage Discovery Course is an ideal choice. Nonsan, in particular, has numerous sites where visitors can explore traces of modern Korean history. First on the itinerary should be Sunshine Studio, a film set built for the television drama *Mr. Sunshine*. Covering approximately 20,000 square meters, it recreates early 20th-century Hanseong with five modern-style buildings, 19 traditional tiled-roof houses, four thatched-roof houses, and nine Japanese-style houses buil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Ganggyeong-eup, Nonsan, Ganggyeong Modern Street offers a reinterpretation of the town's former appearance. With several modern heritage buildings still standing, it is also a popular destination for architectural explorations.

Sunshine Studio Address 90, Bonghwang-ro, Yeonmu-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Contact** 1811-7057 **Ganggyeong Modern Street Address** 50, Gyebaek-ro 167beon-gil, Ganggyeong-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Ganggyeong History Museum) **Contact** 041-745-3444 (Ganggyeong History Museum)

4 Seongji Hyeyum-gil Pilgrimage Trail

Focused on spiritual healing, the Seongji Hyeyum-gil Pilgrimage Trail spans Gongju, Nonsan, Buyeo, Yesan, and Cheongyang. Cheongyang, in particular, is an excellent destination for pilgrimage. Nestled in the foothills of Chilgapsan Mountain, Janggoksa Temple has a distinctive layout, with two Daeungjeon halls at different levels. In the quiet mountain temple, listening to the wind chimes swaying in the breeze can bring a sense of peace. In Hwaseong-myeon, Cheongyang Daracgol Holy Site holds special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Catholicism. It comprises Saeteo Holy Site and Julmudeom Holy Site. Saeteo is the Catholic village where Fr. Choi Yang-eop and his father, St. Choi Gyeong-hwan, were born. At Julmudeom Holy Site, the graves of unnamed martyrs lie in rows.

Janggoksa Temple Address 241, Janggok-gil, Daechi-myeon, Cheongyang-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942-6769
Cheongyang Daracgol Holy Site Address 78-6, Darakgol-gil, Hwaseong-myeon, Cheongyang-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943-8123







충남을 색다르게 즐기는 법

오감을 자극하는 여행은 눈앞의 풍경을 새롭게 만든다. 러닝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계룡산 런트립, 공주의 전설이 담긴 비누 만들기 등 충남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가을빛 물든 계룡산을 달리다

웰니스 런트립 '충남로드8'

전국적으로 런트립 열풍이 부는 요즘,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새로운 체험형 관광 상품을 선보였다. 러닝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충남로드8로, 충남의 여덟 도시를 새롭게 여행하는 법을 제안한다.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등 서부내륙권 여덟 지역을 걷고 달리며 현지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대미를 장식할 장소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계룡산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 승가 대학인 동학사에서 시작해 은선폭포의 시원한 물소리를 듣고, 가파른 산세를 따라 관람봉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는 짜릿한 성취감을 선사한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숲길을 달리는 런트립은 온몸으로 계절을 체감하는 최고의 액티비티다. 계룡 런트립은 11월 7일과 8일에 진행하며, 서울 사당역에서 단체 버스가 출발한다.

인스타그램 @sbw_mountain

공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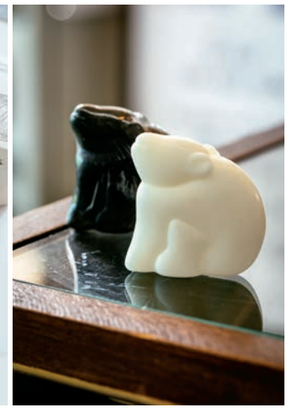
고마 비누 & 퍼퓸 바 만들기

공주 여행을 추억할 색다른 기념품을 찾는다면 누치공방을 추천한다. 천연 비누 공방으로, 알밤을 주재료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밤꿀·알밤 비누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비누 베이스를 작게 썰어 녹이고, 필요한 재료를 섞고 굳히는 등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실제 밤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결과물에 만족도가 높다. 최근에는 산책과 결합한 체험 콘텐츠도 생겼다. 곰사당의 돌곰상을 형상화한 '율피밤꿀세안비누'와 각자 취향에 맞는 퍼퓸 바를 만든 뒤 실제 돌곰상을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다. 맨발 걷기용 황톳길이 조성된 고마나루 솔숲과 곰사당 일대를 거니는 동안 권오진 누치공방 대표가 고마나루의 슬픈 전설을 들려준다. 지역의 오랜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는 여정. 공주 특산물을 활용한 이 체험 클래스는 상시 운영하며,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41-852-5239







제작 지원 충남문화관광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

지금 바로 충남으로

충남 트래블 페스타 2026

올가을 충남의 여행길이 하나로 연결된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작된 충남 트래블 페스타 2026은 충남의 15개 시군을 하나로 잇는 대규모 가을 여행 캠페인이다. 각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와 주요 관광 명소를 엮어 충남 전역을 하나의 여행지로 확장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미식 기행, 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순례 상품, 2030세대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체험형 액티비티 등 20여 종의 맞춤형 테마 관광 상품을 운영한다. 주요 OTA 플랫폼(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 크리에이트립, 트립닷컴 등)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도 이어진다. 전국이 가을빛으로 물드는 지금, 계절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천안 태조산에 안긴 각원사가 좋은 선택지다. 천안역에서 차로 20분이면 닿는 각원사는 1970년대 초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창건한 사찰이다. 단청과 단풍이 한데 어우러져 사찰이 더욱 화려해지는 이때, 사사로운 고민은 내려놓고 눈앞의 풍경에만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충남의 숨은 매력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여행길에 오르자.

문의 041-630-2975(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KTX매거진〉 도시재생 프로젝트 ❷

도시재생의 놀라운 나비효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래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KTX매거진>과 함께 3개월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으로 달라진 지역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충북 청주 원도심과 부산 수영구다.



1

이병권 여행 작가

청주 원도심 감성 유람

충북 청주 도심에는 세월의 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한때 담배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던 공장은 미술관으로 변모했고, 담뱃잎을 쌓아 두던 창고는 시민의 놀이터가 됐다. 예술과 사람의 숨결이 어우러져 문화의 숲으로 피어난 것이다. 여기에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 변의 화사한 꽃밭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물씬한 전통 시장이 더해져 원도심을 다정한 온기로 채운다. 공장이나 창고 등 과거의 산업 유산 위에 지역의 오랜 이야기와 평화로운 휴식이 포개진 청주의 옛 거리로 감성 유람을 떠난다.

담배 공장에 피어난 문화의 향기, 문화제조창

청주 원도심 유람의 첫 문을 열어 주는 장소는 문화제조창이다. 이곳은 1946년부터 연초를 생산하며 1980년대 국내 제1의 담배 공장으로 지역 경제를 이끈 청주연초제조창 자리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2004년 문을 닫은 뒤 오랜 시간 방치되다가, 건물을 허무는 대신 보존하자는 결정에 따라 2019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예술이 피어나는 문화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켜를 고스란히 품은 기둥과 노출된 골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옛 공장 건물의 골격을 그대로 살려 거친 질감과 시간의 결이 멋스럽게 드러나는 점이 인상적이다. 총 5층 규모의 본관에는 청주 한국공예관 전시관과 아트 숍, 공예 스튜디오,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과 원더아리아 쇼핑몰이 들어섰다. 본관 바로 옆에는 국내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자리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을 이룬다. 옛 공장에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마주하고, 도서관


2


3

에서 차분히 책장을 넘기는 여유는 색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 담배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 문화의 그윽한 향기가 채워진 것이다. 세월의 깊이를 품은 산업 유산 문화제조창은 이제 날마다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피워 올리는 청주의 문화 거점으로 빛나고 있다.

오래된 창고가 건네는 쉼표, 동부창고

문화제조창 뒤편 계단을 통해 언덕을 오르면 나지막한 지붕이 늘어선 건물 7동이 나타난다. 청주연초제조창의 원료 창고로, 과거 잎담배를 쌓아 두던 동부창고다. 1960년대에 지은 이곳은 청주연초제조창이 문을 닫은 뒤 오랫동안 버려진 채 적막 속에 갇혀 있었다. 청주시가 이를 매입해 8년에 걸쳐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굵은 나무 부재가 삼각형으로 정교하게 맞물려 지붕을 떠받친 목조 트러스 구조가 눈에 띈다. 잎담배를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 기둥 하나 없이 공간을 설계한 점도 인상적이다. 근대문화유산의 건축미가 드러나는 창고들은 '청주시민의 예술 놀이터'라는 모토 아래 청주생활문화센터와 공연연습센터, 창의예술교육공간과 커뮤니티 플랫폼, 아늑한 카페까지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담뱃잎을 말리던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와 온기가 공간을 채워 나간다. 버려진 나무 창고가 시민들의 품 안에서 다시금 살아 숨 쉬는 것이다.

도심을 흐르는 다정한 계절의 물결, 무심천 꽃 정원

문화제조창과 동부창고에서 예술의 향기를 느낀 후에는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이자 생태 수변 공원인 무심천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무심천은 오랜 세월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쉼터 역할을 해 온 도심 하천이다. 최근 무심천 수변 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흥덕대교 아래 하천 변이 한층 다채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넓게 펼쳐진 둔치가 계절마다 오색 빛깔로 옷을 갈아입는 도심 속 꽃 정원으로 단장한 것이다. 봄이면 흐드러진 벚꽃 지붕 아래 비올라와 튤립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주황빛과 노란빛으로 물든 황화코스모스가 물결을 이룬다. 잔잔하게 흐르는 무심천 물빛과 다양한 꽃이 어우러진 꽃밭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풍경화가 된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물길 따라 조성한 꽃길을 걷다 보면 딱딱한 도심에서 자연이 건네는 뜻밖의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 산업 유산이 건네는 문화적 자극 뒤에 마주하는 생기 넘치는 꽃밭은 여행의 호흡을 한결 다정하게 가다듬어 준다.

정겨운 사람 냄새와 미식이 더해진 거리,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

청주 원도심 여행의 마침표를 찍어 줄 곳은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다. 1964년 문을 연 이 시장은 당시 맞은편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자리한 교통의 요지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세월이 흘러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시장 역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적막해진 골목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삼겹살이었다. 청주 돼지고기는 조선 시대 조정에서 주관하는 춘추제례에 제수용으로 배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명성이 높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아이디어를 더해 전국 최초의 삼겹살 특화 거리가 탄생했다. 이 거리에 15곳 남짓한 식당이 모여 있다. 서문시장 삼겹살은 특제 간장 소스에 고기를 푹 적셔 구워 먹는다. 돼지 잡내를 없애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비법이다. 노릇한 삼겹살에 파절이를 푸짐하게 곁들여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여행이 훨씬 즐거워진다. 쇠락한 전통 시장이 왁자한 활기로 되살아난 풍경은 원도심 재생의 소중한 결실이다.


4

1 아기자기하게 꾸민 동부창고. 2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열린도서관. 3 기존 골격을 살린 문화제조창 내부. 4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무심천 꽃 정원. 5 서문시장 입구.



5







1 수영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로 조성한 복합 문화 시설, 비콘그라운드. 2 무인화랑의 방명록과 무료 스티커.
3 민락수변공원에서 바라본 광안대교. 4 망미역 비콘그라운드에서 맛볼 수 있는 굴뚝빵.

길지혜 여행 작가

포근한 둥지 같은 부산 수영구

'부산'이라는 글자만 봐도 어디선가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다.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를 품은 동네다. '수영'이라는 지명은 조선 시대 동남 해안을 관할하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데서 유래했다. 수영구에는 광안리와 수영강을 잇는 갈맷길을 비롯해 수영사적공원, 망미단길 등 일상 속 여유를 느끼며 걷기 좋은 공간이 새 둥지처럼 자리한다. KTX 부산역에 내려 망미역으로 향했다. 망미역 1번 출구는 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와 커뮤니티그라운드로, 2번 출구는 비콘그라운드와 플레이그라운드로 이어진다.

컨테이너형 복합 문화 시설, 비콘그라운드

부산 망미역은 한동안 도시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1980년대 부산항에서 수도권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망미동 일대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고가도로 아래는 낙후된 채 방치됐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도시재생의 새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수영고가도로 아래 자리 잡은 비콘그라운드는 오랫동안 정체됐던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출발점이 됐다. '비콘'은 부산(Busan)의 'B'와 담는다는 뜻의 '컨테인(contain)'을 합한 말로, 비콘그라운드(B-con ground)는 사람과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집이라는 의미다. 어찌 보면 네모난 고철 덩어리 컨테이너일 뿐인데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피어났다. 비콘그라운드는 인근 와이어 공장에서 문화 공장으로 변신한 F1963과 망미단길 골목, 수영사적공원과 자연스레 동선이 이어지며 1년 내내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린다.

비콘그라운드를 비롯한 망미동 일대는 누구에게나 포근한 둥지가 되어준다. 이곳에서는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 온 노포 주인장부터 골목 깊숙한 곳에서 자기만의 영감을 펼치는 청년 예술가, 일과를 마치고 단골집에 앉아 술잔을 부딪치는 마을 주민, 낭만을 찾아온 여행객이 한데 어우러진다. '망미'라는 표지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 '마음'으로 읽히기도 한다. 쇼핑그라운드에서는 카페와 소매점이 손님을 반긴다. 빵 굽는 시간이 되자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향을 따라간 곳에서 동유럽 전통 베이커리인 쿠르토스, 일명 '굴뚝빵'을 발견했다. 바삭하게 구운 빵을 집게로 잡아당기면 두루마리 휴지가 풀리듯 결이 술술 풀린다. 고민했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수영팔도시장

비콘그라운드를 나와 망미단길을 지나서 골목 탐방에 나섰다. 사거리의 흰색 갤러리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름은 무인화랑. 관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를 받아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화랑은 관람객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다. 맞은편에는 수영성마을박물관이 있다. 1층은 마을다방, 2층은 마을전시관, 3층은 문화사랑방으로 수영성 문화마을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한다. 박물관 뒤편으로는 랑랑키즈카페와 오디오도서관, 수영성극장, 실버피트니스센터 등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시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빨래가 널린 모습에서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엿본다.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보랏빛 블라우스가 이 도시의 잔잔한 표정 같다.

무인화랑을 끼고 은행나무 벽화를 지나자 수영팔도시장이 나온다. 숫자 8이 옆으로 누운 듯한 시장의 모습이 끝없이 사람을 잇는 모양새다. 수영팔도시장은 조선 시대 좌수영장에 뿌리를 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물품이 유통되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수영팔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832년 간행한 <동래부 읍지>에도 이곳의 장시가 기록돼 있다. 매달 끝자리가 0과 5인 날에 오일장이 열렸으며, 청사포와 광안리, 기장의 어부와 농민들이 물품을 가져와 거대한 장이 섰다고 한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농수산물은 물론 의류와 잡화, 귀금속 매장과 약국, 맛집까지 갖출 건 다 갖췄다. 고개를 들어 아케이드 지붕을 바라보니 "반갑데이!" "잘했어!"라고 격려하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여행객에게 건네는 동네 주민의 구수한 인사가 정겹다.

한국 최초 수변 공원, 민락수변공원

수영강 변을 따라 바다로 향한다. 약 2.5킬로미터의 거리를 40분 남짓 걷다 보니 어느새 국내 최초의 수변 공원인 민락수변공원이 나온다. 이곳은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 광안대교와 마린시티가 한눈에 보이는 해안 산책 명소다. 해마다 11월이면 민락수변공원 일대에서 다채로운 빛 조형물과 경관 조명을 선보이는 빛 축제 '밀락루체페스타'가 열린다. 올해는 동박새의 상생 정신과 동백나무의 온기를 담은 '동백개화전'을 바탕으로 공원 곳곳에서 미디어 아트와 프로젝션 매핑 작품을 선보인다. 바다와 빛 그리고 낭만이 어우러진 부산의 밤을 만끽해 보자.

망미동의 도시재생은 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에서 시작해 골목의 작은 화랑과 마을 박물관, 전통 시장을 지나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문화, 일상이 촘촘하게 이어진다. 공간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고, 동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다. 덕분에 여행자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퇴적층의 단면처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해안과 골목, 도심이 한데 어우러진 부산 수영. 걷고 머물고 바라보는 사이, 이 동네가 둥지처럼 포근하게 느껴진다.





more information

2026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곳 중 매력도와 권역별 균형, 관광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 13개 도시의 52개 장소를 선정했다. 스마트폰에서 '스탬프 투어' 앱을 다운로드한 후 각각의 장소에서 위치 인증을 하면 스탬프가 적립된다. 미션 달성 후 리워드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기간 8월 18일~11월 15일

제작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WRITER 김진(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봉재석



오감 만족 가을 여행, 정선아리랑열차

정선아리랑열차를 타고 오일장의 맛과 정선아리랑 가락, 가리왕산의 기세를 차례로 만났다.
여행을 마치고도 아리랑 한 자락이 귓가를 맴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원 정선의 험준한 지형을 두고 "무릇 나흘 동안 길을 걸었는데도 하늘과 해를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했다. 높은 산이 겹겹이 둘러싼 이곳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갔을까. 1950년대 무연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한 정선선은 1967년 증산역(현 민둥산역)과 정선역을 잇는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나전·여량·구절리 방향으로 철길이 연장됐고, 1974년 정선선 전 구간이 완성됐다. 1980년대 후반 석탄 산업이 쇠퇴할 때까지 지역 경제를 뒷받침했던 철도는 이제 색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관광 자원이 됐다. 정선의 자연과 아리랑을 테마로 한 관광 열차, 정선아리랑열차다. 2024년 철로 변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열차가 지난 5월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기차에서 듣는 아리랑

정선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오전 9시 제천역에서 정선아리랑열차에 올랐다. '바람숨결' '은빛울림' '산들



2

1 커다란 창 너머로 정선의 산과 들이 펼쳐진다.
2 정선아리랑열차 4호차 '깊은사색'엔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전망석이 있다.



1

정선아리랑열차

정선아리랑열차는 제천, 영월, 예미, 민둥산, 별어곡, 선평, 정선, 나전, 아우라지를 잇는 관광 열차다. 주말(토·일)과 정선 오일장이 열리는 날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한다. 제천역에서 오전 9시 2분에 출발해 11시 정선역에 도착하며, 돌아오는 열차는 정선역에서 오후 5시 52분에 출발해 7시 49분 제천역에 닿는다. 열차는 기관차와 발전차, 객차 4량으로 구성되며 전체 좌석은 200석이다. 1호차 '바람숨결'과 4호차 '깊은사색'에는 지정 좌석 외에 차창 밖 풍경을 감상하는 전망석(자유석)이 있다. 2호차 '은빛울림'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4인 테이블석, 3호차 '산들산들'에는 장애인석을 마련했다. 승차권 정가는 8700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korail.com/tour/main) 또는 코레일+ 앱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1 객실이 순식간에 무대로 변하는 순간. 정선아리랑 가락과 구수한 입담이 기차 여행에 흥을 더한다. 2 박수 치고 노래하며 하나가 된 객실. 정선아리랑열차에서는 승객도 공연의 일부가 된다. 3 정선 오일장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무대. 4 장날이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정선아리랑시장. 먹거리와 사람 냄새가 가득하다. 5 뜨거운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 가는 배추전. 6 감자를 갈아 빚은 옹심이. 산골의 소박한 재료는 든든한 한 끼가 된다.

산들' '깊은사색' 등 저마다 다른 분위기와 테마로 꾸민 객차에 테이블석, 지정석, 전망석 등 여러 유형의 좌석이 마련돼 있다. 그중 창밖 풍경을 마주 보는 전망석을 택했다. 정선의 산세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자리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신나게 바람을 맞는 강아지가 되고 싶었건만, 안전상 이유로 창문은 굳게 닫혀 있다. 대신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큼직한 창이 아쉬움을 달랜다. 차창 밖으로 산과 계곡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정선아리랑열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기보다 덜컹덜컹 꽤나 솔직하게 달린다. 철로의 이음매를 지날 때마다 객실이 가볍게 흔들린다. 고속 열차에 익숙한 도시인에게는 낯선 감각이지만, 이마저 기차 여행의 리듬으로 받아들이니 나쁘지 않다. 민둥산역을 지나자 풍경이 한층 깊어진다. 산악 지대를 가로지르는 철길 아래로 조양강이 까마득히 내려다보인다. 산과 산 사이를 저공비행하는 듯 아찔하다.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와 깊게 파인 골짜기가 이 지역의 기세를 실감케 한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던 중 흥겨운 가락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기차 안에서 공연이 열린 것이다. 정선아리랑열차의 또 다른 묘미인 '추억을 싣고, 아라리를 잇다'로 영월역부터 정선역 구간에서 약 1시간 20분간 이어진다. 지역 예술가들이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로 만담을 들려주고, 정선아리랑과 가곡을 불러 객실은 어느새 달리는 무대가 된다. 창밖으로 수려한 산세가 영화 장면처럼 이어지는 동안 귓가에 정겨운 노랫가락이 스며든다. 오전 11시, 마침내 정선역에 도착했다. 서울보다 계절이 한발 앞서 온 듯 가을빛이 짙다. 역 앞에는 2층짜리 '와와정선 투어버스'가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정선을 본격적으로 만날 차례다.







산이 내준 든든한 한 끼

투어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정선아리랑시장이다. 과거 떼꾼들은 아우라지에서 뗏목에 소나무를 싣고 한양으로 가서 팔았다. 그렇게 한몫 챙겨 돌아온 떼꾼들이 정선에 모이면서 주막이 들어서고 장이 섰다. 1966년 2월 17일 시작된 정선 오일장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매달 끝자리가 2일과 7일인 날 어김없이 열린다. 장터에 들어서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발길을 붙잡는다. 배추전이 지글지글 익고 메밀 전병이 노릇하게 부쳐지는 사이,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장날의 활기를 더한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이곳 사람들에게 밭농사와 산나물 채취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곤드레와 황기, 감자와 옥수수가 밥상을 채웠고, 자연이 내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이 발달했다. 장터의 소박한 먹거리에는 척박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삶의 지혜와 넉넉한 인심이 담겨 있다.

그중 옥수숫가루로 만든 올챙이국수는 이름부터 재미있다. 올챙이를 닮은 면은 마카로니만 한 크기로, 질감이 미끈미끈해 숟가락으로 후루룩 떠먹어야 한다. 감자를 갈아 빚은 옹심이는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다. 강원도 산골에서 감자는 엄연히 한 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총떡'이라 불리는 메밀 전병도 놓칠 수 없는 별미다. 메밀 반죽을 얇게 부쳐 빨갛게 양념한 무채







1 정선아리랑에 담긴 희로애락을 무대 위에 펼쳐 낸 뮤지컬 <아리아라리>. 흥겨운 가락과 역동적인 몸짓이 객석까지 전해진다. **2**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랑 전문 공연장과 아리랑 박물관을 갖춘 정선아리랑센터. **3** 정선아리랑열차를 타고 도착한 정선역. 도보 15분 거리에 정선아리랑시장이 있다. **4**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전망대까지 고도차가 무려 1킬로미터에 달한다.



를 넣고 돌돌 말아 만드는데, 구수한 메밀과 매콤한 속 재료가 어우러져 막걸리를 절로 부른다.

정선의 희로애락이 담긴 노래

배를 든든히 채운 후 정선아리랑센터로 향했다. 뮤지컬 〈아리아라리〉를 보기 위해서다. 관람료가 5000원인데 표를 끊자마자 같은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사실상 무료인 셈이다. 공연을 앞두고 투어 버스 가이드가 "생각보다 고퀄리티라 누구나 만족할 것"이라 귀띔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이니 익숙한 가락을 듣는 정도겠지. 하지만 막이 오르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리아라리〉는 정선아리랑을 바탕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탄생한 작품이다. 2023년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연극 및 뮤지컬 부문 주간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해외 여러 무대에서 호평을 얻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선의 떼꾼 신기목과 그의 딸 아리가 있다. 정선의 소나무를 뗏목에 싣고 한양으로 떠난 아버지가 재산을 잃고, 아리는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나선다. 결말은 현장에서 확인



해 보시길. 다만 정선의 산자락처럼 겹겹이 쌓인 희로애락이 1시간 15분 동안 밀도 있게 펼쳐진다는 점만은 밝혀 둔다. 아리랑에 이토록 다채로운 감정이 깃들어 있는지 부끄럽게도 처음 알았다. 공연을 보다 슬며시 눈물을 훔칠 정도였다.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선 공연장에서 듣게 된 낯선 노래 한 자락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났다. 정선을 찾는다면 이 공연만큼은 꼭 일정에 넣어 보길 권한다.

산 너머 산, 열세 겹의 풍경

정선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다. 정선과 평창에 걸쳐 솟은 가리왕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설원을 질주했던 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만난다. 케이블카는 탑승장인 숙암역에서 하차장인 가리왕산역까지 약 3.51킬로미터를 오간다. 편도 운행 시간은 20분이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고도를 높일수록 정선의 마을은 점점 작아진다. 산자락을 물들인 붉은 단풍은 수묵화의 먹물이 번지듯 능선을 따라 퍼져 간다. 캐빈 안에 비치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휴대전화와 연결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전망대는 해발 1381미터에 자리한다. 밖으로 나서자 뺨을 스치는 공기가 서늘하다. 덱을 따라 걸으며 사방으로 시선을 던진다. 눈앞에는 산 너머 산, 그 뒤로 또 다른 산이 이어진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능선을 짚어 가며 헤아리다 보니 무려 열세 겹의 산이 어깨를 포갠 듯 펼쳐져 있다. 능선은 파도처럼 굽이치며 아득한 곳까지 뻗어 간다. KTX



4



와와정선 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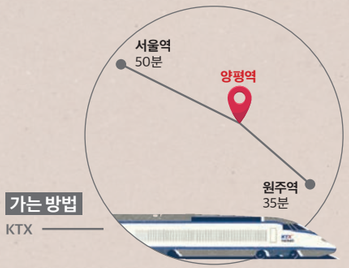
정선 여행을 더 알차고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와와정선 투어버스를 이용해 보자. 정선아리랑열차와 연계해 운행하는 시티 투어 버스로, 열차 관광객을 태우고 주요 관광지를 순환한 뒤 정선역으로 돌아온다. 주요 관광지는 정선아리랑시장, 정선아리랑센터, 아라리촌, 화암동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1만 원. 코스 확인과 사전 예약은 정선시티투어 공식 홈페이지(정선시티투어.com)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WRITER 이지혜(<헤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봉재석 • ILLUSTRATOR 조성흠

강변과 골목에서 만난 양평

경기 양평의 골목과 강변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공간들이 숨어 있다. 한우 육개장을 끓이는 식당부터 시장 안 공방, 강이 보이는 카페, 동네 서점과 미술관, 가족의 손맛이 담긴 파스타 식당까지 여섯 곳을 찾았다.





양평역에서 15분 걸어 양평군립미술관부터 여행을 시작한다.



신진 작가들의 무대

양평군립미술관

2011년 문을 연 양평군립미술관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어린이 예술 교육과 성인 강좌, 학술 세미나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기획전 <e.想세계_낯선 정원>으로 한국박물관협회가 주는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기획 전시 부문을 수상했다. 11월에 양평군립미술관을 찾으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024년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은 <뉴 앙데팡당>은 '힛 더 스팟'이라는 부제 아래 개최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 중 1981년생 이후 출생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작가에게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작가 여덟 명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릴레이 전시를 진행한다. 11월 6일 시작하는 3부에서는 로렌리와 최주연의 작품을 소개한다. 김재희 학예연구사는 "미술관이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함께 연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문의** 031-775-8515









시장에서 만나는 금속공예

르디어

르디어는 양평물맑은시장 1층에 자리한 공방 겸 액세서리 숍이다. 금속공예를 전공한 최유경 대표가 웨딩 액세서리를 제작하다 2025년 작업실 겸 상점을 열었다. 매장 앞쪽은 숍, 뒤쪽은 작업 공간으로 꾸몄다. 르디어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 아트를 가르치는 원데이 클래스도 연다. 유리 대신 아크릴에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이라 유리를 자르는 과정이 없고, 도안을 붙여 두세 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다. 은반지에 망치로 이니셜을 찍어 넣는 스탬핑 반지 클래스도 젊은 커플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공중에 매단 에어플랜트와 미니 걱정 인형 같은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양평군 관광 캐릭터의 사용 승인을 받아 제작한 소품도 있다. 11월에는 생화와 프리저브드 플라워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 13 **문의** 0507-1378-4331

책 읽는 풍경

양평애서점

양평애서점은 책을 빼곡히 꽂는 대신 서가 사이사이에 의자를 넉넉히 놓았다. 유영열 대표가 이 공간에서 보고 싶었던 풍경은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의자에 편안히 앉아 독서하는 모습이었다. 지금도 아내와 함께 건물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그는 개업 약 10년 만인 2021년에 같은 건물 4층에 서점을 열었다. 서점 이름의 '애'는 아버지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는 딸 유애신 공동대표의 이름에서 따왔다. "예전부터 제 이름을 딴 서점을 여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유애신 대표의 말이다. 인문서를 중심으로 신간을 꾸준히 들여오고 매주 책을 교체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어린이 책도 갖춰 가족 단위 여행객이 들르기에도 좋다. 창가에 앉으면 시원하게 펼쳐진 백운봉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근사한 전망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에서 찾아오는 이도 적지 않다.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90 **문의** 031-775-3500







감도 높은 취향 카페

브라운테일커피

2024년 봄 양지선 대표가 문을 연 브라운테일커피는 남한강 변에 자리한 카페다. 독일 베를린의 커피 브랜드 보난자, 호주 멜버른의 둑스 커피 등을 소개한다. 과테말라의 산하신토처럼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원두도 만날 수 있다. 대표 메뉴는 오렌지 비앙코와 마자그란이다. 오렌지 비앙코는 오렌지 과육에 우유와 에스프레소를 부어 층을 낸 음료로, 새콤한 오렌지와 고소한 우유가 잘 어우러진다. 마자그란에는 레몬즙이 들어가 산뜻한 산미와 진한 커피 향이 느껴진다. 초콜릿을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에는 185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초콜릿 브랜드 기라델리 제품만 사용한다. 대형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며, 개를 무서워하는 손님을 위해 매장 안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11월부터는 양 대표가 직접 기획한 디자인 소품과 양평을 소재로 한 문구류도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06 **문의** 0507-1420-3017



육개장과 솥밥에 담은 정성

소반뜰

갓 지은 솥밥에 뜨끈한 한우 육개장 한 그릇. 소반뜰은 쌀쌀한 계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한 끼를 선사한다. 최경만 대표는 소반뜰을 열기 위해 강원도에서 30년간 육개장을 끓여 온 지인에게 조리법을 배우고, 4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제육볶음과 밑반찬 만드는 법을 전수받았다. 제육볶음에는 한돈을 쓰고, 밑반찬과 만두도 모두 직접 만든다. 감자전은 주문 즉시 감자를 갈아 부친다. 한우로 끓인 육개장은 맛이 깔끔해 끝까지 물리지 않는다. 깊은 맛의 한우 육개장에 갓 지은 솥밥을 곁들이면 든든한 식사로 더할 나위 없다.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73 **문의** 031-774-9993







다정한 파스타 맛집

비스트로쿡

파스타를 기다리는 손님 앞에 찰옥수수로 만든 반찬이 먼저 오른다. 2014년부터 양평에서 영업하는 비스트로쿡의 이색적인 풍경이다. 이연석 대표가 요리하는 동안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가 밑반찬을 내준 것이다. 이 대표는 원주에 사는 친척이 직접 농사지은 애호박과 토마토, 들깨 등을 요리에 활용한다. 들깨를 넣어 만든 '들깨 크림 파스타'와 국산 고춧가루로 칼칼한 맛을 낸 국물 파스타 '해신뽕'이 인기 메뉴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개업 초기에 손님을 기다리며 이 대표가 그린 작품이다. 가족의 손맛과 이 대표의 취미가 어우러져 비스트로쿡만의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KTX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1길 27 **문의** 031-772-2275

도보 여행자를 위한 교통 안내

경기 양평에 위치한 양평역은 1939년 개통한 철도역이다. 양근군과 지평군의 통합 지명인 양평군의 이름을 따서 역명을 지었다. 2009년엔 경의중앙선 광역 전철 개통과 함께 신역사로 새 단장을 마쳤다. 현재 양평역은 서울과 강릉을 잇는 강릉선, 청량리와 부전을 잇는 중앙선에 모두 속한다. 양평은 수도권과 인접해 가족여행이나 대학생 MT 장소로도 사랑받는다. 양평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양평역사 2층에 있는 관광 안내소(031-770-1001)에 방문하길 추천한다.

15분 양평역(KTX) → 10분 양평군립미술관 → 6분 브라운테일커피 → 2분 소반뜰 → 3분 비스트로쿡 → 15분 르디어 → 양평애서점



www.koreal.com (KOR) 한국철도공사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봉재석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조선 뒷골목 여행

서울 종로 한복판, 잠들어 있던 조선의 뒷골목이 깨어났다. 옛 집터와 공동 우물부터 금속활자와 자격루 주전까지, 인사도시유적전시관을 거닐며 옛 도시의 얼굴을 만났다.

서울 인사동의 한 오피스 빌딩 지하 1층. 계단을 내려서자 도심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울퉁불퉁한 흙바닥 위에 크고 작은 석재들이 놓여 있어 마치 유적 발굴 현장에 들어선 듯하다. 이곳의 정체는 인사도시유적전시관. 2020~2021년 도시정비사업 중 발굴된 조선 시대 유적을 복원 및 전시해 500년 전 사람들의 삶터를 살펴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유리 바닥 아래쪽에 자리한 공동 우물이 눈길을 끈다. 동선이 골목길처럼 이어지며 16세기 집터와 배수로, 옛길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명문 자기와 청화백자 같은 생활 유물부터 금속활자, 천문시계 일성정시의 등 532점의 출토 유물도 한자리에서 만난다. 땅속에 묻힌 흔적을 살피며 걷다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500년 전 인사동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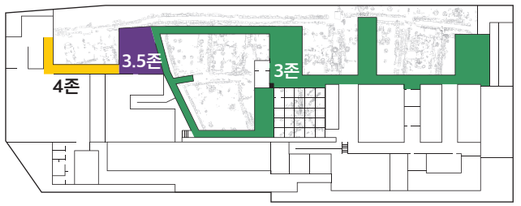


인사도시유적전시관, 이런 곳이에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선 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7개 문화층에서 건물지와 공동 우물, 배수로, 금속 유물 등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유적이 비교적 본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16세기 문화층을 중심으로 발굴 현장을 보존했다. 그리고 유적이 발견된 자리에 인사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했다. 관람 덱은 틈이 있는 철제 구조물로 마감해 마치 유적 위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나만의 금속활자 만들기 같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관람료는 무료. 전시 해설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 · 4시 하루 세 차례 진행한다.



인사동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 바닥에 '의금부' '평시서' 같은 관사명과 '어여분' '즘생이' '말금이' 등 이름이 적혀 있다. 궁궐이나 관청에서 수많은 그릇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릇의 소유자를 새겨 넣은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후 1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백성도 한글을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



3·3.5·4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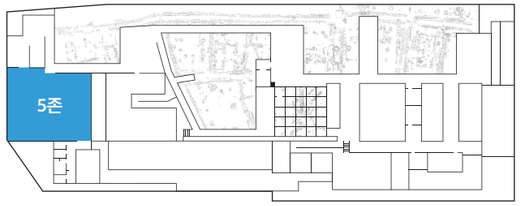
종로 뒷골목과 옛길에서 보는 인사동 유적

전시관에는 총 여섯 개의 집터가 자리한다. '모퉁이 작은 집' '피맛길로 출입하는 집' '마당 넓은 초가집' '금속활자가 발견된 집' 등 각 집의 특징을 이름에 담았다. 건물지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발굴 당시 모습과 3D 복원 영상을 비교해 보며 당시 골목 풍경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명문 자기와 동제 촛대, 청화백자 등 주거지에서 출토된 생활 유물도 함께 전시해 당시 생활사를 짐작한다.

'피맛길로 출입하는 집'. 본체와 배수로 옆 부속 건물과 마당, 동쪽 담장 경계 등이 남아 있으며, 아궁이와 탄화한 마루, 고막이 석렬도 확인된다. 피맛길은 말을 타고 지나는 고관대작을 피하기 위해 만든 길로, 작은 가게들이 운집한 상업 도로였다. 집 출입구가 배수로와 인접해 있는데, 그 위에 나무판을 놓아 피맛길로 건너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 뒷골목 주거 지역 앞에 길이 약 110미터에 이르는 배수로가 놓여 있다. 1421년(세종 3년) 지대가 낮은 종로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뒤 수차례 개보수를 거치며 20세기 초까지 사용했다. 배수로의 물길은 종로1가 그랑서울 부근부터 안국동천을 거쳐 청계천으로 이어졌다.



5존
조선 전기의 과학 문화

인사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와 조선 전기의 주요 과학 유물을 만나는 공간이다. 세종 대에 제작한 초추갑인자와 세조 대의 을해자·을유자, 15세기에만 사용한 동국정운식 한글 활자를 비롯해 출토된 금속활자 1700여 점 가운데 441점을 전시했다. '미디어 월'에서 금속활자를 확대해 활자의 형태와 서체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 1437년 세종의 명으로 단 4대만 제작한 일성정시의와 <세종실록>에서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자동 물시계 자격루의 부품 '주전'도 실물과 함께 실제 크기로 복원해 놓았다. 두 유물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도 상영한다.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1700여 점의 금속활자 중 일부는 불에 녹아 서로 엉겨 붙은 상태였다. 형태를 살펴보면 활자를 만들 때 붙은 것이 아니라, 완성된 뒤 화재로 일부가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이 귀하던 조선 시대에는 화재로 못 쓰게 된 금속품을 모아 땅에 묻어 둔 뒤 다시 녹여 무기로 재활용하기도 했다.



금속활자 스탬프 체험 존에서는 활자를 직접 찍어 볼 수 있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투입구 끝까지 기다란 종이를 밀어 넣고 큐브 모양 도장을 꾹 누르면 7종의 금속활자가 순서대로 찍힌다. 이영보래(ㅭ)와 반치음(ㅿ)은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따른 한글 금속활자다. 획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따라 그려 보고, '뿷' '홇' 같은 글자를 보이는 대로 소리 내어 읽어 본다. 익숙한 한글이 낯설게 느껴진다.

자격루의 핵심 장치인 주전의 동판과 구슬방출기. 도기 항아리에서 토막 난 상태로 출토됐다. 각 부품은 본체나 주전 동판에 작은 못으로 고정돼 정교하게 맞물리며 움직인다. 이러한 구조는 구슬이 한 번에 하나씩 정해진 간격으로 떨어지며 시간을 알리도록 고안됐다. 부품 하나하나의 정밀한 구조를 들여다보면 당시 기술이 얼마나 우수했는지 알 수 있다.

WRITER 이지혜(<헤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봉재석

서울에서 찾은 차이코어 레스토랑

맛있는 식사는 물론 마작 클래스, 시네마틱한 공간 연출 등 풍성한 문화적 경험까지 선사하는 서울의 차이코어 레스토랑 다섯 곳을 소개한다.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1

청킹마마

종로구 관철동에 자리한 청킹마마는 왕가위 감독의 명작 <중경삼림>을 현실로 옮겨 놓은 듯한 레스토랑이다. 어릴 적부터 영화감독을 꿈꿨던 김도형 대표가 요식업에 뛰어들며 가장 사랑하는 영화를 모티브로 삼았다. <중경상림>의 영어 제목 '청킹 익스프레스(Chungking Express)'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 지은 곳으로, 매장에 들어서면 "만년 동안 사랑해"라는 명대사 원문이 적힌 붉은색 네온사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극 중 배우 왕페이가 누워 있던 소파, 유통기한이 쓰여진 파인애플 통조림 소품, 입구에 자리한 영화 속 수족관 등이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청킹마마는 차와 식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홍콩식 '차찬텡' 문화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중식 요리를 선보인다. 특히 홍콩식 포장마차 문화인 '다이파이동'의 정취를 살려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매장의 종이 메뉴판 역시 일부러 구겨진 형태로 제작해 빈티지 감성을 더한다. 음식도 독특하다. 대표 메뉴인 '구름 꿔바로우'는 바삭한 탕수육 위에 몽실몽실한 솜사탕을 풍성하게 올리고 소스를 뿌리는데, 새콤달콤한 청매실 향이 입맛을 돋운다. 8시간 이상 우려낸 진한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한 '청킹 우육면'과 홍콩 현지 맛을 재현한 '침사추이 토마토 탕면'도 별미다. 튀긴 에그 누들과 가지, 닭고기를 어향 소스에 버무린 '청킹 공중부양면'은 젓가락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독특한 비주얼의 시그너처 요리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2길 29 **문의** 0507-1392-0663











2

웍셔너리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웍셔너리는 홍콩식 무드에서 대중적인 아시안 차이니스 요리를 선보인다. 기존의 아메리칸 차이니스 콘셉트에서 한 단계 나아가, 2024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며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스타일로 거듭났다. 인테리어에서는 옛 패밀리 레스토랑의 정취가 느껴진다. 대표 메뉴는 달콤하고 바삭한 '오렌지 치킨'과 짭조름한 풍미가 일품인 '몽골리안 비프', 강한 불 맛의 중국식 볶음면 '차오미엔'이다. 시원한 국물과 풍성한 해산물이 입맛을 당기는 '갑오징어 짬뽕'도 인기 메뉴다. 면 요리를 먹은 뒤 더부룩함을 느끼는 고객을 배려해 짬뽕 주문 시 밀가루 면 대신 쌀국수 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채로운 고객 친화적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평일 한정으로 70세 이상 고령층 손님에게 라구 짜장면을 무료로 대접하거나, 단체 회식을 예약하는 직장인 고객에게 연태고량주를 증정한다. 또 주말 예약 가족 손님을 대상으로 특별한 짜장면 서비스와 더불어 소중한 날을 기념할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3길 12 **문의** 070-8888-9878



3

꺼거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레스토랑 꺼거는 홍콩 뒷골목의 노포 감성을 고스란히 재현해 냈다. 꺼거(哥哥)는 '형님'을 뜻하는 광둥어로, 친근한 분위기의 매장 곳곳에 남준영 대표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어 독특한 정취를 자아낸다. 남 대표는 호주 유학 시절 광둥 식당에서 일한 경험과 홍콩 여행 중 맛본 음식에 매료되어 꺼거를 오픈했다. 현지 맛을 따르기보다는 광둥식을 기반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춘 중식 브랜드를 연구해 스무 가지 메뉴를 선보인다. 시그너처 메뉴인 '원앙볶음밥'은 새우를 더한 화이트소스와 돼지고기를 넣은 토마토소스를 반반씩 올려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홍콩의 국민 음식이다. 소스를 따로 맛보다가 완전히 섞어 먹으면 부드러운 로제 소스 같은 이색적인 맛이 난다. 또 다른 인기 메뉴인 '깨장 치킨 미엔'은 향신료를 넣어 삶은 닭고기를 한 번 더 튀겨 고명으로 올린 비빔면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고추기름 베이스의 양파 소스를 얹어 새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는 중국식 오이무침을 곁들이면 한층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8길 10 **문의** 0507-1420-5433











4

바오서울 성수

성동구 성수동 골목에 위치한 바오서울 성수는 대만의 현지 노포 감성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대만식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다. 이곳을 이끄는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출신의 김무빈 대표는 군 전역 후 여러 레스토랑에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성수동에 '작은 대만'을 선보였다. 매장 안은 초록색과 빨간색을 활용한 인테리어와 한쪽 벽면을 채운 대만 달력으로 현지 야시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바오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시그너처 메뉴는 대만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바오'. 대만식 햄버거로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 수제로 반죽하는 이곳의 바오번은 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해 은은한 단맛과 푹신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클래식 바오'는 부드러운 돼지고기 오겹살에 땅콩 가루, 갓 절임, 고수 등을 풍성하게 곁들여 대만 현지 음식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클래식 바오에 곁들이기 좋은 '동파육 덮밥'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오겹살의 맛을 아삭한 오이 피클과 신선한 고수가 완벽하게 잡아 줘 맛의 밸런스가 훌륭하다. 취향에 맞게 고른 요리에 대만 망고 맥주나 타이완 라거 등을 곁들이면 서울 도심에서 완벽한 대만 미식 여행이 완성된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110
문의 0507-1393-2642



5

웨이 티하우스 앤 레스토랑

중국 여행을 하고 싶거나 격식 있는 중국식 점심 식사를 원할 때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웨이 티하우스 앤 레스토랑이 좋은 선택지가 된다. 중국 살롱을 모티브 삼아 건강한 중식과 동서양의 만남, 그리고 중식의 재발견을 지향하는 곳이다. 중국의 다채로운 지역 음식을 깊이 있는 스토리와 함께 소개한다. 일반 중식당과 달리 기름진 튀김 메뉴를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찌거나 훈제하는 조리법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낸다. 대표적으로 연잎에 닭을 싸서 내는 항저우 전통 요리 '거지닭'과 항저우 스타일로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조린 '동파육'은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매콤한 사천식 닭고기 요리인 '구수계'와 바삭하게 튀긴 새우 위에 마늘 칩을 듬뿍 올린 홍콩식 '피풍당' 요리까지 맛볼 수 있다. 지리산, 양평, 강릉 등에서 빙채, 워순, 두메부추, 코끼리마늘 같은 특수 채소를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 것도 이곳만의 요리 비법이다. 차(茶) 라인업도 훌륭하다. 흑차를 후발효한 보이차, 숙취 해소에 탁월한 후난의 화권차, 몸의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육보차 등을 두루 갖췄다. 1920년대에 유행했던 마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마작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인문학 강사와 함께하는 플레이 세션도 운영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 **문의** 0507-1365-2125



made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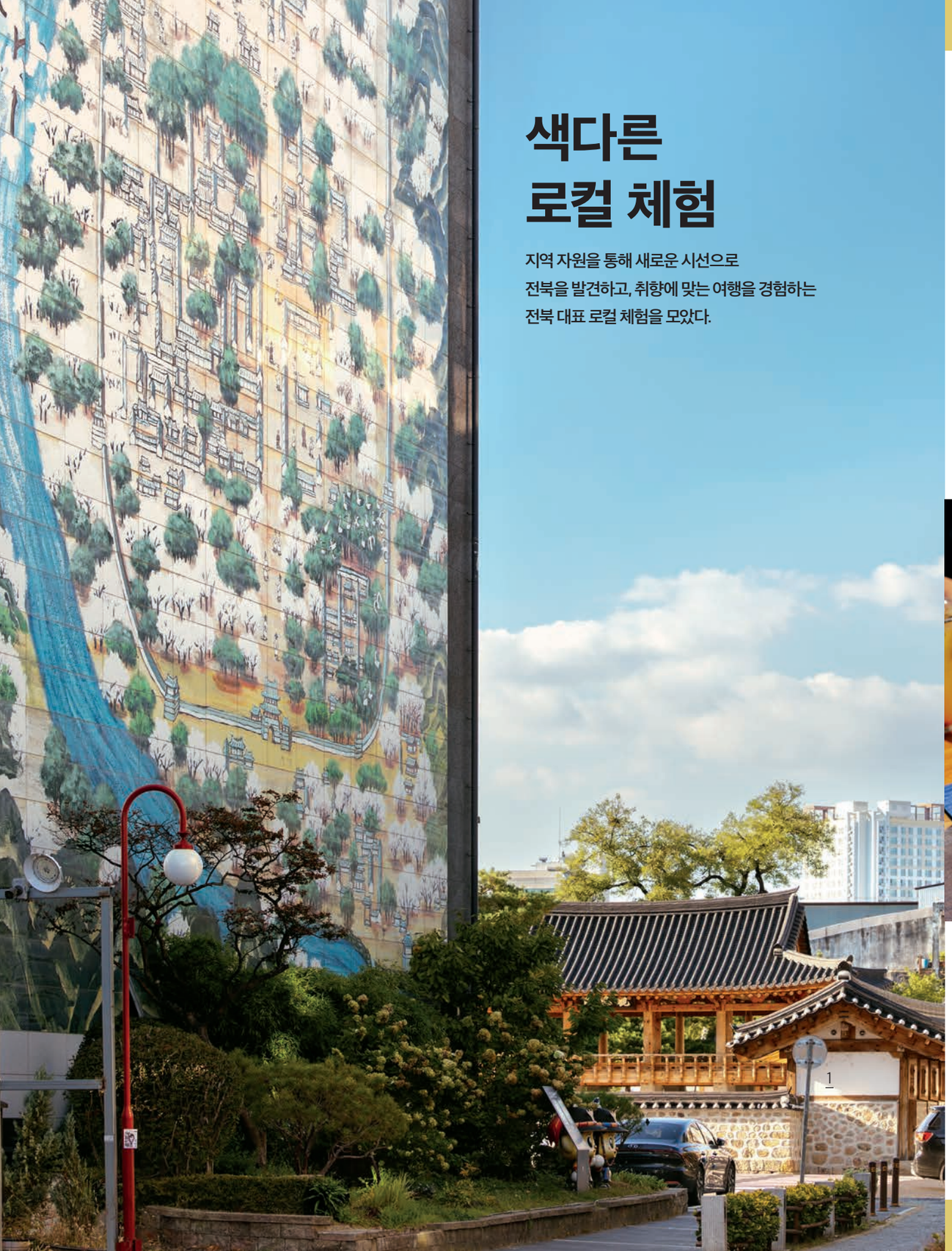
전북의 로컬 체험과 미식, 열 가지 이야기

JEONBUK

no.23

색다른 로컬 체험

지역 자원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전북을 발견하고, 취향에 맞는 여행을 경험하는 전북 대표 로컬 체험을 모았다.



1

1 풍남문에서 전라감영 가는 길에 마주한 18세기 전주를 그린 벽화.
2 '전주 플로우' 참가자들이 디스트릭트7 루프톱에서 나병석 대표와 함께 풍남문을 바라보고 있다.
3 전주의 맛을 재해석한 비비는 빵.
4 '전주 플로우'는 외국인 여행자가 전주 구도심을 탐색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2



3

디스트릭트 7

전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옛 전주성의 사대문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문, 풍남문 광장 로터리에 자리한 디스트릭트7에선 외국인 여행자 대상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주 플로우(Jeonju Flow)'를 운영한다. 디스트릭트7의 나병석 대표가 고안한 것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이 전주 구도심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 플로우는 풍남문이 한눈에 보이는 창가에서 나 대표가 들려주는 전주 스토리텔링으로 시작된다. 19세기 후반 전주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완산부지도' 속 전주와 현재의 전주를 비교하고, 풍남문에서 전라감영까지 조선 시대 전주부성 안에서 가장 번화했던 감영로 등을 소개한다. 조선 후기 보두네 신부가 전주성과 성벽의 돌을 사들여 전동성당을 지은 이야기도 들려준다. '전주 플로우'의 하이라이트는 전주의 맛을 재해석한 '비비는 빵' 만들기다. 식빵 위에 콘버터 소스와 떡갈비, 달걀프라이, 각종 채소 고명을 얹고 고추장 마요 소스나 간장 마요 소스를 더해 젓가락으로 비벼 먹는 체험으로, 비빈 빵 위에 복숭아 가루를 뿌려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에는 전주 곳곳이 복숭아밭이었다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복숭아 가루가 독특한 풍미를 더한다. 비비는 빵을 맛본 참가자들은 루프톱에 올라 풍남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전주 지도를 들고 도시 산책에 나서기도 한다. 저마다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37-4
문의 070-8865-9128

4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1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2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3

1 용기놀이와 농악, 보리대춤, 농요 등이 한데 어우러진 전주기접놀이.
2, 3 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전주기접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백중에 벌인 굿판이 전주기접놀이의 기원이다.

전주기접놀이보존회

농악과 용기놀이가 어우러진 전주 민속놀이

과거 전주부 우전면 계룡리(현재 전주시 삼천동 일대)에서는 농사가 마무리되는 백중에 맞춰 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굿판을 벌였다. 마을을 상징하는 깃발을 휘두르는 용기놀이와 신명 나는 농악, 보리대춤과 농요 등이 한데 어우러진 민속놀이로 '계룡리합굿'이라 불렀다. 이 중 용기놀이가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는 '전주기접놀이'로 명칭이 바뀌었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농사짓고 서로 돕던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이어져 온 전주 대표 민속 문화다. 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누구나 전주기접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히 민속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관객이 직접 동작을 익혀 공연에 참가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관객은 먼저 전주기접놀이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공연을 관람한다. 이어 관객들끼리 배역을 정해 몸으로 전통문화를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장구, 소고, 용기놀이를 익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가 참여해 합굿을 벌인다. 신명 나는 농악 장단에 맞춰 각자 맡은 역할을 소화하는 사이 관객들은 공동체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는다. 정규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전주기접놀이의 핵심인 용기놀이를 30~40분 동안 배운다. 전주의 옛 마을 문화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전주기접놀이 체험을 추천한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9 **문의** 063-225-0505


© 전주기접놀이보존회

4



1

한국술도가

막걸리 빚기 체험 내장산 쌀누룩 마실

내장산 서래봉이 올려다보이는 정읍 산기슭에 한국술도가가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술작가'는 강문찬 대표.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그는 정읍 쌀 '단풍미인'을 씻고, 찌고, 균을 접종해 쌀누룩을 만들고 찹쌀로 전통주를 빚는다. 그렇게 만든 술이 '월탁' '빨간 월탁' '서래연' '달하'다. 이 중 월탁(13.1도)은 정읍산 찹쌀과 직접 빚은 쌀누룩을 60일간 자연 발효한 생막걸리로, 산미가 산뜻하게 다가온다. 붉은 쌀누룩 흥국으로 빚어 곡 향이 은은하고 맛이 달콤한 빨간 월탁은 2026년 전북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됐다. 한국술도가에선 고두밥에 쌀누룩을 섞어 막걸리를 빚는 체험 프로그램 '내장산 쌀누룩 마실'도 운영한다. 막걸리 빚기와 전통주 4종을 시음하는 '베이식 체험'과 베이식 체험에 발효 주전부리를 더한 '시그너처 체험', 베이식 체험에 발효 밥상을 더한 '프리미엄 체험'까지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 발효 밥상이란 쌀누룩으로 숙성한 발효 음식으로 차린 상이다. 프리미엄 체험에 참여하면 쌀누룩으로 이틀간 숙성한 돼지 수육이나 항아리구이를 막걸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돼지고기 대신 쌀누룩에 숙성한 장어구이를 맛봐도 좋고, 발효 밥상만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을 쌀누룩으로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해 예약은 필수다.

주소 전북 정읍시 답곡길 70-12
문의 0507-1489-1990



4

1 프리미엄 체험에 참여하면 쌀누룩으로 숙성한 돼지 수육이나 항아리구이를 막걸리와 함께 즐긴다.
2 정읍 쌀 '단풍미인'으로 쌀누룩을 만든다.
3 붉은 쌀누룩 흥국으로 빨간 월탁을 빚는다.
4 한국술도가 강문찬 대표.
5 쌀누룩으로 빚은 한국술도가의 전통주.



2



3



5

정원산책

정원사의 해설을 듣는 정원 카페



© 정원산책

1

덕유산 자락 해발 560미터에 자리한 정원산책은 개인이 조성한 정원이자 전망 좋은 카페다. 봄부터 가을까지 각기 다른 꽃이 피고 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자기만의 정원을 꿈꿔 온 홍성학 씨는 은퇴 후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 발품을 팔았고, 2016년 전북 무주에 터를 잡았다. 땅을 일궈 꽃과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으며, 오랫동안 쓰이지 않던 축사와 주변 밭을 정원으로 가꿨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자 딸 홍슬기 대표가 방문객이 편안히 머물며 정원을 즐기도록 2018년 카페 정원산책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소규모로 정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홍성학 정원사의 정원 조성 이야기를 듣고, 꽃과 식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정원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다. 해설이 끝난 후 참여자는 음료를 마시며 자유롭게 정원을 거닐거나 마음에 드는 풍경 앞에 머물기도 한다. 프로그램에는 음료 한 잔이 포함된다. 달콤하고 은은한 아몬드 향이 나는 '넛티스트롤'과 무주 오미자에 유자와 레몬을 더한 '하이서머'가 대표 메뉴. 여기에 '무주 사과 크루아상'을 곁들여도 좋다. 정원 해설 프로그램은 내년 4월부터 정규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산책은 <블루리본 서베이>에 2년 연속 수록됐다.

주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468-37 **문의** 0507-1312-2707

1 정원산책의 정원 해설 프로그램에는 계절을 담은 음료가 포함된다.
2 '무주의 계절 박물관'이라 불리는 정원산책의 가을 풍경.


© 정원산책

2


© 원연장마을회

1

원연장새마을회

진안고원 올인클루시브 농촌 체험

원연장마을은 봄에는 꽃잔디,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목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연중 수많은 여행자를 불러 모은다. 보기만 해도 좋은 이 마을에 묵으며 천천히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제철 식재료로 차린 음식을 맛보는 체험이 있다. 바로 1박 2일 농촌 체험 프로그램 '목화솜 꽃다발과 하룻밤 사랑 이야기'다. 체험과 숙박, 식사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로, 체험 첫날은 유기농 목화솜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마을에서 채취한 무농약 제철 채소와 진안 특산물인 흑돼지로 바비큐 파티를 연다. 저녁 식사 후에는 연꽃등으로 수놓은 길을 산책하며 자연과 만난다. 이튿날 아침에는 할머니가 차려 준 듯 소박하고 정겨운 아침 식사가 기다린다. 원연장마을에서 기른 식재료로 차린 건강한 밥상이다. 식사 후에는 친환경 전기 카트를 타고 인근 관광지인 꽃잔디동산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 시 야간 산책과 꽃잔디동산 탐방은 각각 전통 민속놀이와 연피자 만들기 체험으로 대체된다. 참가자 2인 이상일 경우 진행하며, 체험 일주일 전까지 원연장새마을회로 전화 문의해야 한다.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원연장1길 21-1
문의 063-433-2022

1 원연장마을의 유기농 목화솜으로 꽃다발을 만든다.
2 진안 특산물인 흑돼지로 바비큐 파티를 즐긴 뒤 마을을 산책하는 아이들.
3 할머니가 차려 준 듯 소박하고 정겨운 아침상.


© 원연장마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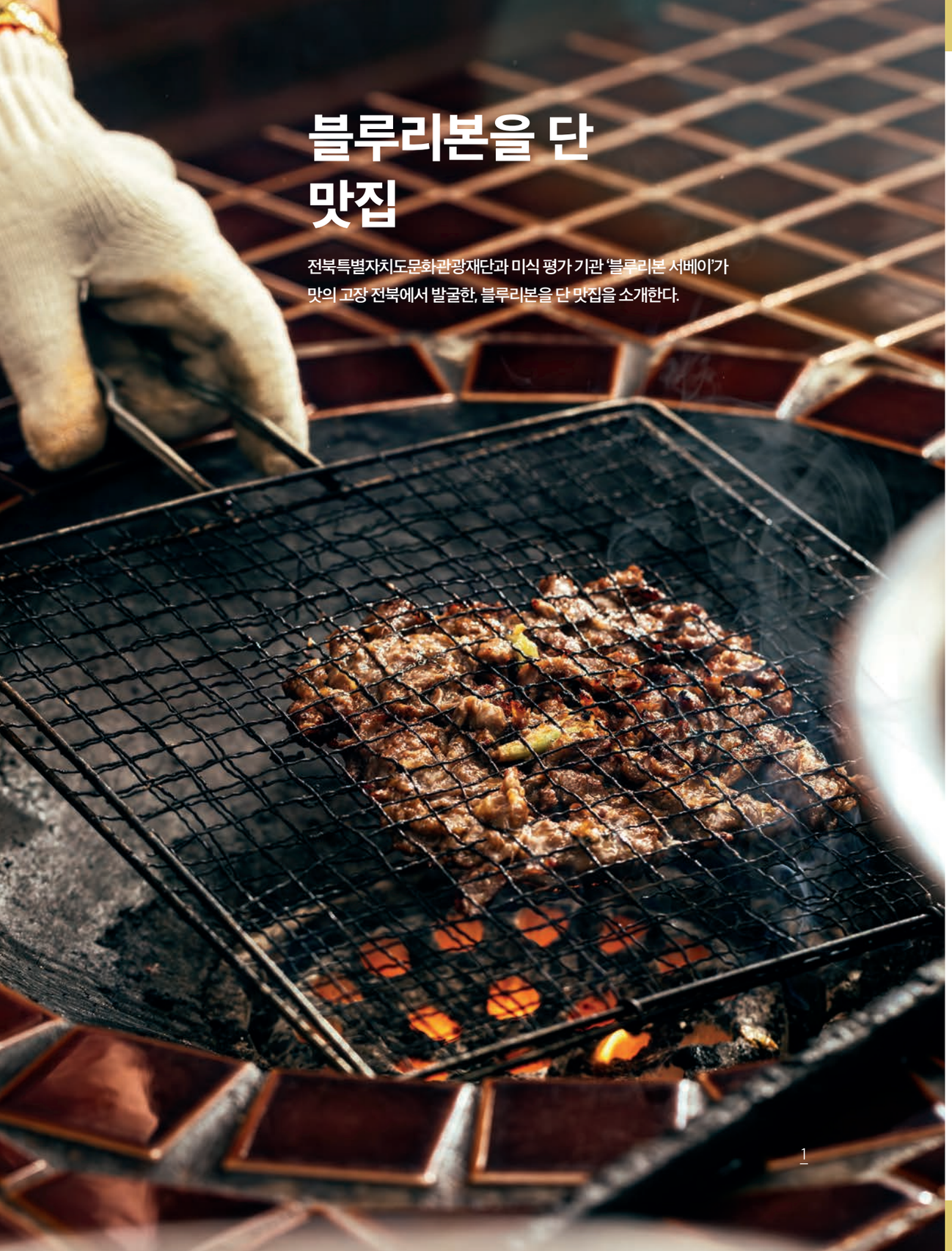
2


© 원연장마을회

3

블루리본을 단 맛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미식 평가 기관 '블루리본 서베이'가 맛의 고장 전북에서 발굴한, 블루리본을 단 맛집을 소개한다.



1

1 새집의 소불고기는 화력이 좋은 연탄불로 석쇠에 구워 낸다.
2 순창 한정식 전문점 새집의 신관.
3 제철 찬을 한 상 가득 차려 내는 새집의 한정식.



2

새집

교자상을 빈틈없이 채운 남도의 밥상

장류의 고장 순창에는 전통 발효식품을 정성껏 담아내는 한정식 전문점이 여럿이다. 1957년에 문을 연 새집도 그중 한 곳. 한정식을 주문하면 밥과 된장찌개,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조기구이에 더해 스무 가지가 넘는 제철 찬이 한 상 가득 차려 나온다. 방에 앉아 있으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교자상을 번쩍 들고 오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각종 나물과 장아찌, 젓갈 등도 하나같이 밥도둑이 따로 없다. 그중 제일은 연탄불에 구운 양념 불고기. 소불고기도 불 향이 끝내주는데, 돼지불고기는 쫄깃한 육질 사이로 순창 고추장의 매콤달콤함이 터져 나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 연탄불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조기구이는 고소하고 짭조름해 밥반찬으로 그만이다. 대식가 유튜버 쯔양이 이곳에서 왜 밥만 네 그릇 비웠는지 이해가 된다.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 한옥 옆에 신관을 지어 함께 운영한다. 신관에서는 트롤리를 이용해 한정식 상을 입식 테이블 위로 옮겨 준다. 오래된 한옥에 앉아 예스러운 교자상을 받고 싶다면 전화 예약이 필수다.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6길 5-1 **문의** 063-653-2271

3



1 베르자르당에선 국내산 쌀로 만든 건강한 빵을 맛볼 수 있다.
2 밖은 정원, 안은 초록 식물이 가득한 온실 카페 베르자르당.



1

베르자르당

온실 카페에서 즐기는 건강한 빵



2

너른 잔디밭과 야자수,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는 분수 너머로 온실 카페 베르자르당이 자리한다. 베르자르당은 프랑스어 '유리(verre)'와 '정원(jardin)'의 합성어. 베이커리 카페인 이곳에서는 라탄 의자에 앉아 유리 온실 사이로 스미는 풀내음을 맡으며 빵과 음료를 즐기기 좋다. 지역 농산물로 만드는 쌀 반죽에 무화과를 넣은 쌀 무화과 치아바타, 담백한 쌀 소금빵, 네 가지 풍미에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는 쌀 사색식빵, 순창 블루베리를 듬뿍 넣은 순창 블루베리 크림치즈 쌀빵 등이 인기 메뉴다. 모든 빵은 국내산 쌀과 국내산 밀을 천연 발효종으로 24시간 저온 숙성해 만든다. 베이킹 레시피에는 위암 수술을 받은 남편도 먹기 편한 빵을 만들겠다는 박혜숙 대표의 진심이 담겨 있다. 유리 온실 옆 건물에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웨딩홀이었던 건물이 화재로 불타 버리자 온 가족이 1년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온 마음을 다해 구운 빵과 정성을 다해 꾸민 공간에서 따스함이 느껴진다.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잠로8 **문의** 070-7768-8862

더찹샵

지리산 자락에서 맛보는 K-샤퀴테리

흑돼지 하면 제주를 떠올리는 이가 많지만,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도 흑돼지를 기른다. 남원 흑돼지는 마블링이 섬세하게 퍼져 있고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 육가공을 하면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지리산 자락 해발 500미터 고원의 동편제 마을에서 버크셔K 돼지로 수제 샤퀴테리(햄·소시지·하몽 등 육가공품을 뜻하는 프랑스어)를 만드는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 더찹샵의 제품이 탁월한 이유다. 페퍼드 살라미, 초리조, 쿨라텔로, 하몽, 베이컨, 프리미엄 햄 등 더찹샵의 모든 제품은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자란 순종 흑돼지 버크셔K로 만든다. 더찹샵의 역사는 육종 전문가 박화춘 농학박사가 남원으로 귀향해 흑돼지 버크셔K를 개량하고 육성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아들 박자연·박정원 형제가 이어받아 흑돼지 농장 운영부터 발효 가공까지 직접 한다. 육가공을 맡고 있는 박자연 대표는 유럽을 여행하며 샤퀴테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육가공 단기 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더찹샵에서는 흑돼지 샤퀴테리 구입은 물론 K샤퀴테리 제조 체험도 가능하다.

주소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71-15 **문의** 070-4150-4179

1 흑돼지 버크셔K로 만든 수제 샤퀴테리.
2 지리산 자락 해발 500미터에 자리한 더찹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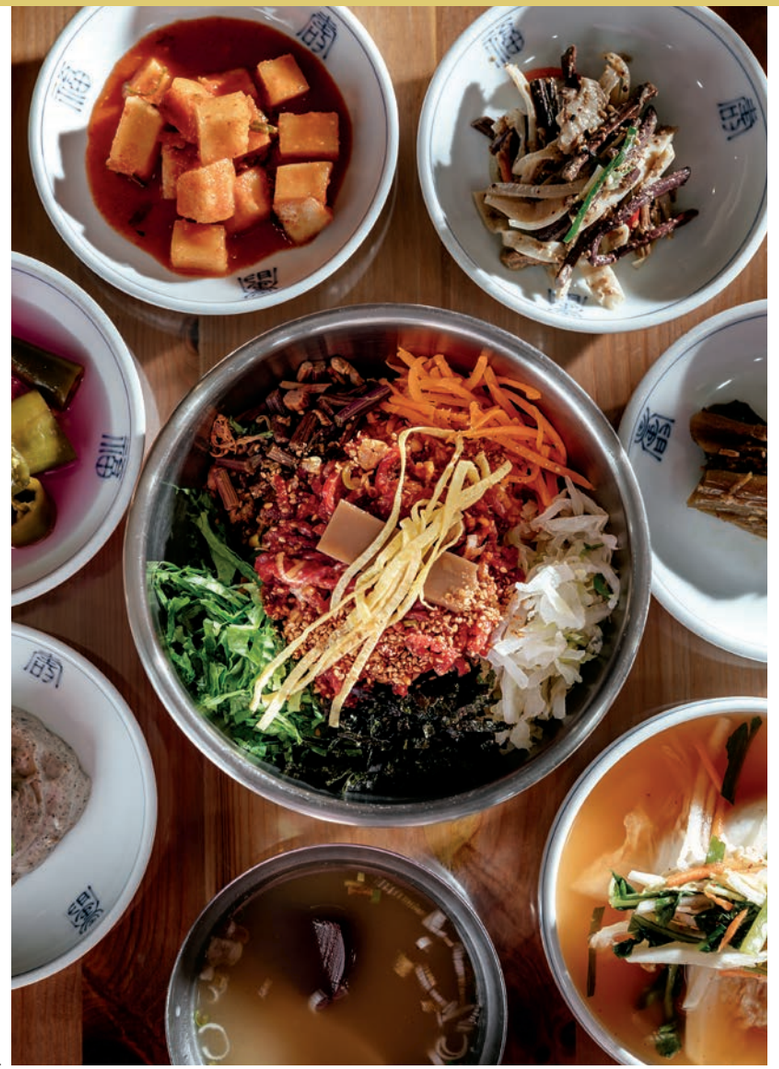
© 더찹샵

1



© 더찹샵

2



1

진미식당

온기를 머금은 황등 육회 비빈밥

1 사골 국물에 토렴한 밥을 고추장 양념으로 비벼 육회와 채소를 올려 내는 토렴 육회 비빈밥.

1931년 황등 장터에서 문을 연 진미식당은 3대째 '토렴 육회 비빈밥'의 손맛을 대물림하고 있다. 현재 진미식당을 운영하는 이는 3대 이종식 대표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고수해 온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메뉴명이 비빈밥인 것이 특이한데, 뜨끈한 사골 국물에 토렴한 밥을 고추장 양념에 비벼줘서 붙은 이름이다. 이 과정에서 밥알에 육수의 풍미가 스며들고, 양념이 고루 밴다. 비빈 밥 위엔 고사리, 채 썬 당근·상추·양배추, 김 가루를 빙 두른 뒤 가운데에 육회를 소복이 담고 그 위에 도토리묵, 달걀지단을 고명으로 얹은 후 불에 뜨끈하게 데워 내준다. 온기를 가득 머금은 토렴 육회 비빈밥은 육회와 따끈한 밥알,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씹을수록 밥알에서 감칠맛이 터져 나오고, 입안에서는 다채로운 식감의 향연이 펼쳐진다. 연근 샐러드, 백김치, 아삭이고추 된장무침 등 곁들여 내는 반찬과 구수한 선짓국도 입맛을 돋운다. 또 다른 맛을 즐기고 싶다면 토렴 육회 비빈밥에 고구마 순대를 함께 주문해 보자.

주소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58 **문의** 063-856-4422



1

1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생크림 찹쌀떡은 종류도 다양하다.
2 익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인 생크림 찹쌀떡.

익산농협 떡방앗간

반전 식감에 반하는 생크림 찹쌀떡

익산의 명물로 자리 잡은 '생크림 찹쌀떡'은 떡케팅(떡+티케팅) 대란의 주인공이다. 2022년 익산농협 조합원이 생산한 찹쌀로 만든 생크림 찹쌀떡을 출시하면서 떡케팅이 시작됐다. 쫄깃한 찹쌀떡 안에 팥앙금 대신 생크림을 넣자 오픈 런 행렬이 이어졌다. 하나로마트가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 떡케팅을 일으킨 생크림 찹쌀떡의 매력은 녹으면서 식감이 달라지는 데 있다. 냉동고에서 꺼내 바로 맛보면 찹쌀피는 쫀득하고 속은 단단한 아이스크림 맛이다. 좀 더 해동한 후에 먹으면 크림이 사르르 녹아 조각 케이크를 먹는 듯하다. 커피 향을 더한 달콤커피, 코코아로 속을 채운 초코, 꿀고구마를 안에 넣은 고구마 등 색다른 맛의 신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익산을 여행한다면 익산농협 하나로마트 인화동 본점, 모현점 등에서 현장 구매의 기쁨을 누려 보자. 화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물량이 풀리며, 오전에 갈수록 다양한 맛을 구입할 확률이 높다.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6길 58 **문의** 063-840-1845



2

no.23

JEONBUK

×

KTX MAGAZINE

전주 **디스트릭트7·전주기접놀이보존회**

정읍 **한국술도가**

무주 **정원산책**

진안 **원연장새마을회**

순창 **새집·베르자르당**

남원 **더찹샵**

익산 **진미식당·익산농협 떡방앗간**

WRITER 이미선, 우지경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8회

진안고원

혼자 긴장 말고 다함께 김장하자

2026 김치보쌈축제

11.14(토)-15(일)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앞 일대

도로명 주소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우리집 김치 담그기 사전예약(선착순)

10:30 | 13:00 | 15:00

문의 · 신청 063·433·6613



주최 진안군 주관 YMCA 진안YMCA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황필주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고사테,
한국 고벽지의 봉인을 풀다

골목 한편 쓰러져 가는 한옥의 벽을 뜯어내자 겹겹이 쌓인 벽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사테의 강동수 대표와 플랑드르 줄리아는 사라져 가는
한국의 고벽지를 발굴·복원해 21세기적 미감으로 재탄생시킨다.

'한옥은 원래 알록달록했다.' 한 강연의 제목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동안 봐 온 한옥 카페와 한옥 스테이는 온통 하얀 한지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말이다. 궁금증을 품고 찾아간 강연장에서 고사테의 강동수 대표를 처음 만났다. 귀 뒤로 넘긴 머리와 가지런한 콧수염, 독특한 무늬의 물나염 셔츠에 결연해 보이는 눈빛까지, 강 대표는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술가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날 강연 주제는 한국의 고벽지였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강 대표는 자신이 한옥에서 발굴한 고벽지를 자유롭게 둘러보라고 했다. 마름모 격자무늬 사이로 푸른 꽃송이가 피어난 19세기 벽지부터 전투기 프로펠러와 오각 별을 그려 넣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벽지, 촘촘한 체크무늬가 특징인 1960년대 굽도리지까지. 가장자리가 찢기고 문양마저 희미해진 벽지는 마치 고대 유물 같았다. 그는 어떻게 고벽지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까.

되살아난 한국의 고벽지

강동수 대표는 본래 철거 위기에 놓인 한옥을 리모델링해 왔다. 한옥의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던 그가 벽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4년 전, 19세기 고택의 사랑방을 철거하던 때였다. 현장 작업을 돕던 텍스타일 디자이너인 아내 플랑드르 줄리아가 벽에 붙은 신문지를 걷어 내자 푸른빛이 도는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뒷면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황을 다룬 〈아사히 신문〉이 초배지로 붙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별생각 없이 버렸을 테지만, 유독 선명한 파란색과 처음 보는 독특한 무늬가 시선을 끌었다. 강렬한 호기심을 느낀 두 사람은 벽지를 살리기로 했다. 이후 현장을 다니며 벽지를 수집했고, 기록과 연구를 거쳐 복원을 이어 갔다. 이러한 활동이 한국 근대 벽지 복원 브랜드 고사테를 탄생시켰다.

고사테(Gosaté)는 골목을 뜻하는 순우리말 '고샅'에서 따왔다. 강동수 대표가 처음 재개발로 쓰러져 가는 한옥을 만난 장소이자 지금도 한옥을 보수하기 위해 자주 찾는 일터가 바로 골목이기 때문이다. 고사테의 모든 작업은 골목에서 시작된다. 강 대표가 현장 발굴과 아카이빙을 맡고, 플랑드르가 패턴 복원과 디자인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고사테가 복원한 패턴은 총 53개. 색깔을 달리한 버전까지 합치면 95개에 이른다. 연구를 거듭하며 패턴의 제작 시기와 시대별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수집한 벽지를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곱 개 시대로 나눠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디지털 스캔한 원본 이미지와 패턴의 기원, 질감, 인쇄 기술 등을 분석한 글은 고사테 공식 홈페이지(gosat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생활 유산을 오늘의 공간으로

고사테가 복원한 벽지에는 사람의 이름이 붙는다. 작은 원 안에 '기쁠 희(喜)'와 '복 복(福)' 자가 번갈아 반복되는 1930년대 벽지는 '병수', 은분(은가루)을 입힌 메달리온 안에 작은 꽃다발이 담긴 1940년대 벽지는 '은분', 눈송이를 확대해 놓은 듯한 문양의 1960년대 벽지는 '금옥', 대나무 숲이 떠오르는 1970년대 벽지는 '기철'이다. 옛 벽지의 패턴은 시대와 국가를 넘나들며 변형을 거듭해 왔기에 무엇이 원본이고 누가 처음 디자인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고사테는 이름 모를 디자이너의 노고를 소중히 여겨 각 시대별로 널리 쓰인 이름을 복원한 패턴에 붙여 주었다. 병수, 은분, 금옥, 기철로 부르니 벽지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고사테는 복원한 벽지를 고택과 카페, 레스토랑 등에 시공한다. 옛 벽지의 패턴은 유지하되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에 맞춰 색상과 크기를 조정한다. 아무리 큰 의미를 지녔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복원한 패턴을 타일과 패브릭 등 인테리어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수십 년 전 누군가의 방을 채웠던 무늬가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생활 곳곳에 다시 쓰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

© 고사테


4


5

© 고사테

수십 년 전 누군가의 방을 채웠던 무늬가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생활 곳곳에 다시 쓰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2

© 고사테


3

© 고사테


6

1 1943년에 지은 강진 병영성 근방의 근대 가옥. 1970년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엠보싱 벽지가 발견됐다. **2** 복원 벽지 '숙희'를 현대 공간에 시공한 모습. **3** 디지털 스캔본의 패턴을 따는 과정. 원본에서 느껴지는 선의 작은 흔들림까지 그대로 담는다. **4** '숙자' '영환' '옥순' '영택' 등 각 시대별로 많이 붙린 이름 중 벽지와 어울리는 것을 고른다. **5** 플랑드르가 도배용 공구인 헤라로 벽지를 한 겹씩 벗기고 있다. **6** 강동수 대표가 수집하는 골동품에서도 패턴 벽지가 발견된다. 함 내부는 자외선과 습도 차단이 잘되어 색과 패턴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다.



강동수 대표는 열여덟 살 때부터 한옥 보수와 리모델링 일을 시작했다고요. **강동수** 해외 자원봉사를 할 때 처음 유럽의 오래된 집을 수리했어요. 어린 시절 광주(현 전남광주) 동림동의 신축 아파트에서 살았던 저는 주변에서 오래된 건물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유럽에서는 수백 년 된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때 문화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광주로 돌아와 무작정 휴대폰을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건물을 찾아 사진을 찍었죠. 그때 수천 채의 한옥이 재개발로 부서지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눈앞의 상황을 외면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았죠.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현재 제가 운영하는 한옥 리모델링 업체 이름도 그때 생각했어요. '배를 짓는다'는 뜻의 순우리말 '배무이'가 번뜩 떠올랐죠. 한옥의 지붕 곡선이 승천하는 배 모양을 한 상여처럼 느껴졌거든요. 한옥을 일종의 생명체로 여기는 저는 만나는 모든 집을 되살릴 수는 없더라도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어떤 역사를 지닌 집인지 기억하고 싶었어요.

취미로 고벽지를 수집하다가 사업으로 발전시켰죠. **강동수** 두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 건축주의 제안이었어요. 충남 강경에서 골조 보수공사를 하던 중 벽지가 많이 나왔는데, 건축주에게 벽지에 담긴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더니 집에서 나온 벽지를 복원해 시공해 달라고 했어요. 제작 업체를 알아보면서 사업으로 발전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는 1945년에 지은 강화도 마니산방을 보수할 때였어요. 집에서 나온 벽지를 복원해 시공해 보자고 건축주에게 제안했더니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 집에서 나온 벽지 다섯 종의 패턴을 복원해 시공했죠. 고사테가 처음으로 개발한 상품이자 실제 시공까지 이어진 첫 사례예요.

고사테가 광주를 거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강동수** 일제강점기 광주는 신도시로 부유층이 자녀를 유학 보내던 곳이었어요. 게다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오가는 만남의 장소였죠. 그 영향으로 광주에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이 혼합된 가옥이 흔해요. 서양식 적벽돌과 일식 시멘트기와, 과거 청나라 기술자와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 개량형 벽돌 굴뚝까지, 이 모든 건축 요소가 한 집에 뒤섞여 있죠. 벽지도 다양한 문화권의 상징이 혼합된 패턴이 많아요.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건축 문화를 형성한 광주를 베이스캠프로 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러 겹의 벽지가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나요? **강동수** 방 전체를 종이로 도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여기엔 한옥의 건축 방식과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온돌방 문화가 연관돼 있어요. 한옥은 나무로 골조를 세운 뒤 흙으로 미장해 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흐르면 목재와 흙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요. 이때 종이가 비틀림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요. 종이의 섬유질이 벽을 짱짱하게 만들거든요. 한번 바른 종이를 떼어 내면 흙벽까지 함께 뜯겨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벽지를 제거하는 대신 그 위에 새 벽지를 덧바른 거예요. 벽지를 여러 겹 바르면 흙벽의 내구성뿐 아니라 단열 성능도 좋아져 굳이 벽지를 뜯어 낼 필요도 없었고요.

고벽지의 패턴을 복원하거나 상품으로 만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플랑드르** 원본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인상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먼저 무늬가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어떤 단위로 반복되는지 살펴봐요. 패턴의 구조를 파악한 뒤 크기와 색을 조정하고 무늬를 다시 그리죠. 이때 손으로 그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원본에서 느껴지는 작은 흔들림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죠. 저희가 발견하는 벽지는 인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무늬가 조금 어긋나거나 선과 색에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런 불규칙함도 벽지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모든 선과 색을 반듯하게 정리하면 원본에서 느낀 깊이와 표정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작은 차이가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옛 벽지가 오늘날에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변주를 주기도 해요. 색이 너무 강하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무늬의 매력이 잘 드러나도록 색을 살리기도 하죠. 제작 공정에 맞춰 패턴 크기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10월에 출시한 신제품은 조금 특별하다고요. **플랑드르** 벽지 원본을 최대한 충실히 재현한 '복원본' 라인을 출시했어요. 종이의 질감과 두께, 규격과 인쇄 방식까지 옛 벽지의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했죠. 평량은 60그램/제곱미터 정도로 A4용지보다 더 얇고, 한지처럼 장섬유가 섞인 질긴 미색 종이를 사용했어요. 당시 사용한 잉크 컬러를 조색해 평판인쇄로 찍었고요. 인쇄 과정에서 생기는 마진도 잘라 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 뒀어요.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종이의 규격인 장(sheet) 단위로 판매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도배하고 남은 벽지로 지함을 만들거나 가구 표면에 바르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번 신제품 역시 선물 포장지나 아트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추후에는 옛 벽지의 감성은 유지하면서 평량을 160그램/제곱미터 정도로 높여 벽지 시공이 가능하도록 코팅한 제품도 제작하려고 해요.

고벽지를 발굴·복원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강동수** 벽지를 발굴하다 보면 건물의 무의식을 탐색하게 돼요. 도배를 하려면 초배지를 발라야 하는데, 물자가 귀했던 시절엔 일기장이나 찢긴 교과서, 붓글씨를 연습하던 한지 등을 대신 쓰기도 했어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된 거죠.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건 아니기에 무의식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건축물로 여기던 한옥이 벽지를 탐구하게 된 후로 여러 사람의 삶과 기억이 쌓인 복합적인 존재로 다가왔어요. **플랑드르**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싶어 하는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베이지나 회색을 활용해 차분하게 꾸민 공간이 많았다면, 요즘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려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보면 앞으로 벽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 작업이 누군가의 공간을 장식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낀다면 더 기쁘고요.

오늘날 고벽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동수** 고벽지는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생활 유산이에요. 역동적인 한국 문화가 벽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흥미로워요.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독립,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을 거치며 사회가 크게 변했잖아요.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유행이 벽지에도 녹아들어 있어요. 벽지가 질리면 취향에 맞는 새 벽지로 바꾸는 일도 자연스러웠고요. 빠르게 소비하고 버린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패스트 문화와 닮은 면도 있죠. 고벽지를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의 취향과 미적 감각은 물론 경제 상황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고벽지는 과거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게 해 주는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KTX

WRITER 오유리(문화 예술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서송이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다시 만난 정선

고미술의 문턱은 높다. 접하기도 어렵거니와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공부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인 것은 보는 순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충격을 주기도 한다. 겸재 정선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

국보 「금강전도」와 「풍악내산총람」. © 간송미술문화재단



지하1층, 외부와 연결된 수공간. 작은 정자를 배치해 미술관 내부와 야외 공연을 유연하게 연결했다. 맑은 계곡의 소나무라는 '간송(澗松)'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고고한 소나무가 그림처럼 서 있다.

미술 애호가들에게 '간송'은 존경과 동경의 이름이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은 일제강점기부터 8·15광복과 한국전쟁에 이르는 격동기에 우리 얼의 정수를 지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유산을 모았다. 단순히 아름답고 귀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과 뚜렷이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미감을 지닌 문화유산을 수집했기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았다. 고미술 관리의 특성상 1년에 단 몇 주만 열리던 서울간송미술관의 전시를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성북동 골목에 끝없이 줄을 서곤 했다. 2024년 대구간송미술관이 문을 연 뒤 대구가 단숨에 아트 투어의 목적지로 떠오른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오롯이 이 미술관에 가기 위해 처음 대구를 방문했다는 사람도 있고, 남쪽으로 여행 가던 중 대구에 들렀다는 외국인도 있었다. 최고의 국보 <훈민정음해례본>과 고려청자의 정수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을 직접 보기 위해 기꺼이 KTX에 몸을 실은 것이다. 개관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가 열린 석 달 동안 무려 22만 4000여 명이 대구간송미술관을 다녀갔으니 대단한 관심이었다.

그리고 올가을, 다시 기차에 오를 이유가 생겼다. 지금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전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선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선 연구의 중심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겸재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별전이다. 서울간송미술관이 1971년 개최한 첫 전시의 주인공 역시 겸재 정선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뿐 아니라 삼성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소장가들이 힘을 모아 총 216점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단언컨대 겸재 정선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하고 완결하는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허용 학예총괄의 말 그대로, 어쩌면 평생 단 한 번 보게 될지도 모를 '국보와 보물의 향연'이다.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대구간송미술관은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하 1층 부터 지상 3층까지 4개 층으로 구성한 계단형 건축물이다. 비탈에 기대어 앉은 안동 도산서원에서 착안해 설계했다.

거장 겸재를 넘어, 인간 정선으로

정선은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생활했지만 당대의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가문과의 인연으로 양반 교육을 받으며 체면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그림을 잡기로 여기던 시절이었지만 소년 가장 정선은 과거 대신 그림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다. 좋은 그림을 꺼내 놓고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감상하던 조선 선비들의 풍류, 그 중심에 정선의 그림이 있었다. "그림 주문이 삼대밭처럼 많았고, 겸재가 쓴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니,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해야 할까. 사정은 국경 너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나라로 가던 사신들도 정선의 그림 한 점을 얻기 위해 줄을 섰다 하니, 18세기에 이미 '원조 한류'를 일으킨 셈이다.

전시장으로 들어선 관람객을 맞이하는 건 보물 <경교명승첩>이다. 18세기 한양 일대의 모습과 자주 그리지 않았던 자화상, 평생의 벗 사천 이병연과의 우정 등이 담긴 화첩으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먼저 만나는 '독서여가-글 읽다 남은 겨를'에는 툇마루에 앉아 유유자적하는 정선의 모습이 담



<경교명승첩-상권의 첫 그림 '독서여가-글 읽다 남은 겨를', 50대 초반, 북악산 아래 유란동에 살던 정선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다. 정선의 인간적인 면모와 소박한 일상이 담긴 이 그림으로 이번 전시의 포스터로 활용됐다. © 간송미술문화재단



<경교명승첩-에 실린 '송재제시-송재에서 시를 짓다'. 오랜 벗 이병연과 시화를 주고받던 여름날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 간송미술문화재단



정선이 노년에 그린 <화훼영모화첩> 속 '추일한묘(가을날 한가로운 고양이)'. 상단을 실제보다 큰 화폭로 채워 화조화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뛰어난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로 특유의 생동감을 더했다. © 간송미술문화재단

겨 있다. 뒤편에는 온갖 서책이 가득하지만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신발 한 켤레에서 정선 특유의 자유로움과 유머가 묻어난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세 살 위의 벗, 사천 이병연과의 끈끈한 인연이 담긴 그림들도 정겹다. 정선이 양천 현령으로 부임하며 멀리 떨어지게 되자, 두 사람은 시와 그림을 서로 바꾸어 보기로 한다. 정선이 그림을 그려 보내면 이병연이 시를 지어 화답하는 식이었다. '촉재제시 - 촉재에서 시를 짓다'에는 제철 생선인 웅어를 시종 편에 들려 보내며 '얼른 시를 지어 보내라'고 재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녹음이 짙게 우거진 여름날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사뭇 현대적인 구도 속에 여느 소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녹여낸 솜씨에 웃음이 터진다.

다음은 서울 구경이다. 카메라로 찍었다 해도 이렇게 생생할 수 있을까. 아차산과 송파, 압구정과 수성동계곡 등 비단 위에 그린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18세기 한양의 일상이 되살아난다. 얼어붙은 강가와 비 내린 산, 빽빽한 소나무 숲 사이에 내려앉은 백로, 안개 낀 강 위로 번지는 달빛까지. 정선의 원숙한 필선은 선의 굵기와 속도, 강약, 리듬만으로 깊이와 거리를 만들며 흑백 화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어지는 작은 방에 들어서면 진경산수화의 진수를 보여 주는 '청풍계'를 만난다. 청풍계는 인왕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경승지이자 안동 김씨 가문의 거처가 있던 곳이다. 깊은 계곡을 따라 오르고 올라야 닿는 그 길을 어찌나 세밀하게 묘사했는지, 정선의 손을 잡고 청풍계로 걸어 들어가는 듯 생생한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인왕산 동쪽 기슭의 명승지 청풍계로 가는 길을 담은 '청풍계'. 정선이 64세인 1739년에 그린 작품으로, 그의 수많은 그림 가운데 크기와 충후함, 완성도에서 단연 압도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도전과 탐구, 끝나지 않을

정선이 하양(지금의 경산)과 청하(지금의 포항) 지방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그린 지역 명승도와 중국의 고사와 시를 소재로 한 고사 인물화를 지나면, 70대부터 그리기 시작한 화조영모도의 세계가 펼쳐진다. 정선은 84세까지 장수를 누리며 많은 그림을 남겼다. 노년의 그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돋보기안경을 쓰고 밤마다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엄청난 수련과 범접할 수 없는 기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은 동물과 식물 묘사에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 먹의 농담만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매미 날개의 맥, 오이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고슴도치의 가시 하나하나, 국화 아래 웅크린 고양이의 능청스러운 움직임까지! 단순히 세밀해서가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정선이 나고 자라 스승을 만나고 벗과 어울리던 한양, 그리고 한강을 담은 작품들을 만난다. 최초로 전면 공개하는 <경교명승첩> 을 비롯해 <장동팔경첩>, '청풍계' 등을 감상한다. © 간송미술문화재단



정선의 그림으로만 꾸민 8폭 병풍 '겸재백납병'. 백납병은 크기와 형식이 제각각인 작은 그림 여러 점을 한눈에 감상하도록 만든 병풍이다. 진경산수화부터 고사인물도, 화조영모도까지 정선 화업의 폭넓은 갈래가 담겨 있다.

실경을 옮기는 것보다 감상과
철학을 독창적으로 담아낸 정선이
30대부터 80대까지 그린 금강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니라 저마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깃든 영모화를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사생에서 비롯한 정밀한 묘사와 상서로운 상징을 한 폭에 담아내는 솜씨에 그저 감탄할 뿐.

마지막 전시실에 이르면 드디어 금강산을 만난다. 정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대표작이 바로 이 금강산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의 이미지는 정선으로부터 온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금강산은 가고 싶다고 해서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고려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기를 원한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마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 보고 싶어 한 명산이었다. 흙산과 바위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사계절 모습을 달리하는 1만 2000봉의 절경을 마주한 정선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어떻게 그려 내고 싶었을까. 실경을 옮기는 것보다 감상과 철학을 독창적으로 담아낸 정선이 30대부터 80대까지 그린 금강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인 방에 들어가면 나란히 걸린



큰지팡이를 짚고 서서 바위에 내금강의 전경이 펼쳐진 '금강내산'. 허리에는 흙으로 꿈 인부드러운 토산을, 산 너머는 뾰족한 바위 봉우리를 가득 채워 음양의 조화와 대비를 함께 담아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여산에 작은 초당을 짓고 은거했다는 고사를 그린 '여산초당'. 백거이를 전형적인 조선 사대부로 묘사하고 대나무와 소나무를 둘러 조선의 멋을 입힌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 간송미술문화재단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금강산 그림을 따라, 30대부터 80대까지 정선의 진경산수가 변화해 온 과정을 가늠할 수 있다. 대표작인 국보 '금강전도'와 보물 '풍악내산총람'을 나란히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공개하는 <해악전신첩>까지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두 개의 금강산 그림, 국보 '금강전도'와 보물 '풍악내산총람'을 만난다. '금강전도'는 웅장하고 변화무쌍한 금강산을 한 화면에 담았다. 부드러운 흙산과 날카로운 바위산을 태극 형상으로 배치해 음양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고, 세밀하면서도 웅장한 필치로 완성한 화업의 절정이다. '풍악내산총람'은 금강산의 가을 풍경을 담았다. 드물게 녹색과 황색을 써서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낸 이 작품은 탄탄한 구성과 세밀한 묘사에 40개의 봉우리와 명소 이름을 일일이 적어 넣은 집요함까지 더해져 혀를 내두르게 한다. 생의 마지막까지 새로움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 거장의 집념에 감탄하다가도, 닿을 수 없는 땅이라는 애잔함에 이르러 이내 숙연해진다.

몇 시간을 둘러봤지만 모든 작품을 섭렵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쉬움을 토로하자 허용 학예총괄은 웃으며 말했다. "그저 마음에 들어오는 작품을 오래 들여다보면 됩니다. 유명하거나 미술사적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득 내 마음을 가져가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림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면 멀게 느꼈던 고미술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미술관 곳곳에 멈춰 선 관람객들이 이를 증명한다. 누군가는 달빛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 풍경에, 누군가는 툇마루에 걸터앉은 정선의 자유로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가 본 적 없는 금강산이 그리워질 수도 있고, 검은 고양이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한 점을 만났다면, 바로 그게 겸재 정선의 세계다. KTX

한 사람을 위한 방

대구간송미술관 1층에는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만을 위한 상설 공간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미인도실'이 자리한다. '미인도'는 조선 시대 인물화를 대표하는 걸작이자 여성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공개될 때마다 긴 줄을 서야 겨우 볼 수 있었던 이 그림을 이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배경 없는 화면에 홀로 선 여인의 단아한 자태와 자연스러운 몸짓, 은은한 채색과 정교한 붓질이 어우러져 겉모습 너머 인물의 내면까지 섬세하게 전달한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과 은은한 낯빛까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렸는지 감탄을 자아낸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한 빛의 통로를 지나면, 한지로만 마감한 작은 방에서 그림 속 여인과 눈을 맞추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WRITER 손신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달라진 지역 축제의 문법

축제가 달라졌다. 뻔한 지역의 고유 자원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험으로 바뀌었다. 전시하는 방식이 변한 거다.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축제를 보러 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 본 적 있는가. 기차를 타고 낯선 역에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축제장에 도착해 그 지역만의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공유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축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에서 열린 지역 축제는 1266개, 축제장 방문은 1억 3000만 회에 이른다. 숫자만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축제의 나라'다. 그러나 숫자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 있다.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모두가 '손님'은 아니었다. 우연히 행사장 앞을 지나간 사람과 시간과 돈을 써서 축제를 보러 온 사람은 같은 '1'로 집계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지역의 자원을 경험으로 바꾸다

대한민국 축제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유명 가수를 초대하고 특산물을 늘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그 지역이어야 하는 축제가 등장하고 있다. 경북 김천김밥축제가 대표적이다. '김천'이라는 지명이 '김밥천국'을 떠올린다는 엉뚱한 발상에서 출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실제 방문 경험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사전 예약과 회차 운영, 대기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축제장과 도시를 잇는 동선을 계획하는 등 방문객의 하루를 완벽하게 설계했다. 김천의 성공은 아이디어 자체보다 지역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경험으로 바꾼 힘에 있다. 충남 홍성은 지역 축산물인 한우와 한돈을 '바비큐 파티'라는 경험으로 바꿨고, 전북 임실은 수십 년간 이어 온 치즈 산업을 축제로 확장했다. 경기 시흥갯골축제는 옛 염전 터와 습지 등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축제의 정체성으로 만들었다. 강원 화천의 산천어와 강릉의 커피, 경기 가평 자라섬의 재즈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제도 다르지 않다.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는 바이에른주의 전통에 지역 맥주를 더했고, 세계 최대의 민간 주도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축제에 초청받지 못한 단체들이 축제장 언저리(프린지)에서 벌인 공연에서 출발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문화와 장소, 사람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방식이다. 이 축제들의 성공 요인이 단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특산물, 산과 강, 역사와 이야기가 있다. 차이는 방문객이 콘텐츠를 직접 취하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경험으로 지역 자원을 번역했느냐에 있다. 좋은 축제는 자원을 전시하지 않는다. 경험으로 바꾼다. 그래야 축제가 며칠 열리고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닌, 지명과 결합한 IP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기 축제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하루아침에 지역이 창의적으로 변한 건 아니다.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달라졌다. 목적지를 정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찾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하고 싶은 경험이 목적지를 결정한다. 소셜 미디어도 축제의 성격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쇼트폼을 타고 퍼지면 다음 날 대기 줄이 생긴다. 반대로 주차난, 긴 대기 줄, 바가지요금, 지저분한 화장실 등 부정적 측면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축제의 주도권이 '여는 사람'에서 '오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힙'은 주최자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발견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베끼기와 번역은 다르다

축제가 성공하면 아류가 등장한다. 축제 기획자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작정 베끼는 행위다. 김천김밥축제에서 배워야 할 것은 김밥이 아니라 김천이 지역을 바라본 방식이다. 베끼기와 번역은 다르다. 축제 콘텐츠 밖의 경험도 잘 설계해야 한다. 기차역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길,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음식값, 화장실 위생 상태, 숙소 비용과 질,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축제 경험이다. 아무리 즐거운 축제라도 주차장에 두 시간 넘게 갇혀 있으면 공연이 아닌 주차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다.

축제를 성장시킬 주체도 중요하다. 부스를 빌려 며칠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상인과 청년, 기업, 기획자가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축제는 해마다 열리지만 브랜드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구축된다. 재원도 마찬가지다. 모든 축제를 유료화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쓰고 싶은 체험과 상품은 있어야 한다. 지금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특산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경험하고 싶은 체험이 많을수록 축제가 지역 경제성장과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지역을 살리려면 축제가 '행사'에서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정부는 1996년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했다. 이제는 단순히 관람객 수를 세기보다 왜 축제에 왔고, 얼마나 머물렀으며, 무엇을 먹고 사고 경험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00만 명이 잠시 스쳐 간 축제보다 10만 명이 하루 더 머문 축제가 지역에 더 큰 가치를 남길 수 있다. 물론 외지인 숫자만 늘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 지역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이웃과 어우러지는 자리에 가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축제 관광의 힘이다.

힙이 식은 뒤 무엇이 남을까

'로컬 힙'이라는 말은 지금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영원히 힙한 것은 없다. 처음에는 신기한 것이 분위기를 고조시키지만, 반복해 노출되면 금세 익숙해진다. '어떻게 힙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힙이 식은 뒤 무엇이 남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축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축적된 브랜드,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조직,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의 기억이다. 지역 축제의 다음 경쟁은 더 큰 무대를 만들거나 더 유명한 가수를 초대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라면 전국의 1266개 축제 가운데 어떤 축제를 보러 가기 위해 기꺼이 KTX 티켓을 예매하겠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것이 '로컬 힙' 이후 한국 축제가 가야 할 길이다. KTX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NEWS



홈 마리나 속초
설악비스트로 푸드 스테이션 리뉴얼

반얀그룹의 홈 마리나 속초가 트립어드바이저의 '2026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즈' 선정을 기념해 레스토랑 '설악비스트로'의 푸드 스테이션을 리뉴얼하고 메뉴를 업그레이드한다. 가장 기대되는 메뉴는 일본식 해산물 덮밥인 가이센동. 동해의 싱싱한 해산물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토핑해 맛볼 수 있다. 구수한 강원도식 된장국과 동해의 해산물을 듬뿍 넣은 해물 순두부는 물론 자연 방사 달걀과 사워도 빵, 후무스 등으로 외국인 투숙객의 입맛도 세심하게 배려했다.

홈페이지 hommmarinasokcho.co.kr



홍콩의 바 레오네
2년 연속 '월드 베스트 바 50' 세계 1위 선정

홍콩의 바 레오네가 '2026 월드 베스트 바 50'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됐다. 바 레오네는 2023년 홍콩 센트럴에 이탈리아 출신 바텐더 로렌초 안티노리가 문을 열었다. 모두를 위한 칵테일을 뜻하는 '칵테일 포폴라리'를 철학으로, 로마의 동네 바가 연상되는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칵테일을 선보인다. 지난해 아시아 바 최초로 세계 1위에 오른 바 레오네는 올해도 정상을 지키며 글로벌 미식 도시 홍콩의 위상을 빛냈다.

홈페이지 discoverhongkong.com/kr



필리핀 관광부
8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 선정

필리핀이 '2026 월드 트래블 어워즈'에서 8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로 선정됐다. 그뿐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섬 여행지 부문도 3년 연속 수상하면서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과 세계적인 휴양지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팜팡가주 산페르난도시는 필리핀 최초로 아시아 최고의 문화 도시 여행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산페르난도시가 보유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채로운 문화 관광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홈페이지 philippinetourism.co.kr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새벽, 신문을 읽는다〉

신문을 배달하던 소년 시절부터 중년의 공직자가 되기까지 30년 넘게 활자와 함께해 온 저자가 신문에서 건져 올린 통찰과 사유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이슈, 민주주의의 가치, 올바른 말과 글의 중요성 등 텍스트 너머의 세상과 삶의 지혜를 다각도로 짚어 낸다. 쇼트폼과 자극적인 영상 매체의 홍수 속에서 아날로그적 사유의 힘을 기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강희택 지음 **매직하우스** 펴냄

〈봉쥬르, 레위니옹! 샬롬, 이스라엘!〉

프랑스에서 40년 가까이 예술가로 살아온 저자가 남편과 함께 낯선 땅을 여행하며 기록한 여행 인문 에세이다. 인도양의 화산섬 레위니옹에서 출발해 파리와 유럽, 아일랜드, 튀니지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역사가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유명 관광지보다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읽어 볼 만하다.

하이디 김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VIDEO

〈푸른길〉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 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와 도쿄 경시청 수사과 형사가 만났다. 성향과 수사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은 사사건건 날카롭게 대립하며 공조에 나선다. 넷플릭스 시리즈 <D.P.>와 영화 <차이나타운>을 연출한 한준희 감독의 신작으로,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11월 20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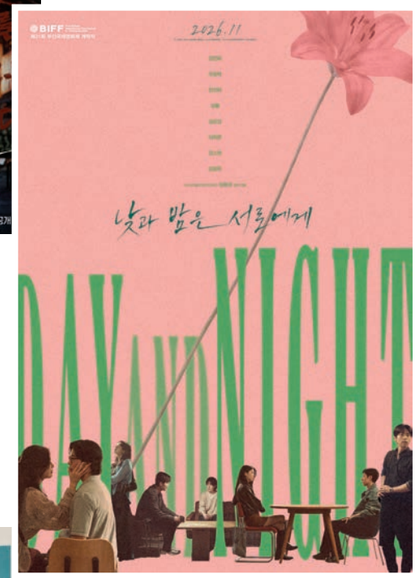
출연 손석구, 나가야마 에이타 **감독** 한준희 **제공** 넷플릭스



〈낮과 밤은 서로에게〉

같은 꿈을 꾼 유진과 현오의 짧은 마주침, 중학교 시절 친구 상미와 영민의 재회, 웹소설 작가 혜진과 영화감독 동남의 첫 만남, 어린 연인 나경과 종수의 애틋한 순간까지. <더 테이블>에 이어 김종관 감독이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네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작고 사소한 이야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11월 4일 개봉.

출연 김민하, 주종혁 **감독** 김종관



〈와일드 호스 나인〉

1973년 칠레 쿠데타 직전, CIA 요원 크리스와 리는 이스터섬에 파견된다. 오랜 동료인 두 사람은 임무 수행 중 정체불명의 음모에 휘말린다. 미스터리 첩보 스릴러에 블랙코미디가 더해진 <와일드 호스 나인>은 마틴 맥도나 감독의 다섯 번째 장편영화로, 존 말코비치에게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 볼피컵 남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이다. 11월 4일 개봉.

출연 존 말코비치, 샘 록웰 **감독** 마틴 맥도나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럴〉

조니 뎁이 괴팍한 구두쇠 스크루지가 되어 돌아온다. 영화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럴>은 에비니저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유령을 만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찾아 나서는 판타지다. 찰스 디킨스의 고전 <크리스마스 캐럴>을 원작으로 하는, 누구나 아는 뻔한 스토리가 조니 뎁과 루퍼트 그린트를 만나 어떻게 변주될지 기대를 모은다. 11월 개봉.

출연 조니 뎁, 루퍼트 그린트 **감독** 티 웨스트



〈폴2: 데드포인트〉

멈추는 순간 추락한다! 수십 년간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산, 숨 쉬기조차 힘든 해발 3300미터 절벽에 고립됐다. 낡은 발판과 로프에만 의지한 채 이동해야 하는 상황. 실수는 곧 죽음이다. 2022년 작품 <폴: 600미터>의 후속작 <폴2: 데드포인트>가 찾아온다. 전작의 주인공 샤일로 헌터의 동생 잭스 헌터의 스릴 넘치는 생존기를 보여 준다. 11월 개봉.

출연 해리엇 슬레이터, 아세마 토마스 **감독** 마이클 스피어리그, 피터 스피어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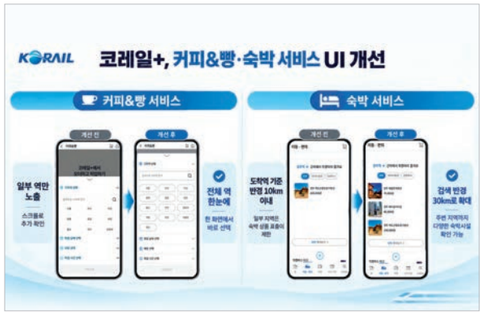
·Information·



제17회 철도사진공모전 은상 **황금빛 선로, 시간을 달리다** / © 지대현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코레일 MaaS’ UI 개선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 MaaS’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레일+ 앱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했다. 코레일 MaaS는 열차 승차권 예매를 중심으로 렌터카, 카셰어링, 관광 택시,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 철도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 최근 ‘이동·편의’ 탭의 ‘커피 & 빵’ 이용 역 시인성을 높이고, 숙박 시설의 검색 범위를 확장해 선택지를 넓혔다.

추석 암표 35건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했다. 그중 25건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 앱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로 발견했고, 나머지 10건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가려냈다. 적발된 판매자 여덟 명은 ‘철도 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철도로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을 잇다



지난 10월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대전 동구청, 우송대학교와 ‘코레일 이음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음학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 사업으로, 초등학생에게 철도를 소재로 한 체험형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고속철도 통합 첫 달 936만 명 이용



9월 한 달간 고속 열차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12퍼센트 늘어난 936만 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고속 열차 이용객은 31만 2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3000명 증가했다. 특히 수서축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6만 8000명에서 8만 7000명으로 28퍼센트, 서울·용산축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21만 명에서 22만 5000명으로 각각 7퍼센트 늘었다.

KORAIL
올해도 잘했다 코레일!
2026 한국철도
BEST 서비스
2026년 한국철도공사
최고의 서비스에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11.23. ~ 12.14.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앱, 홈페이지 참조
(문의) service@korail.com
· 참여해주신 고객님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증정(100명)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신문
Newspaper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 앱 〉 하단 전체 메뉴 탭 〉 전체 서비스 중 혜택·정기권 〉 N카드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Accessibility Facilities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 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2호차**(4량: 1-2호차 사이, 6량: 2-3호차 사이),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2호차** 또는 **2·3호차**, **KTX-청룡 1·2·4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호차** 또는 **2·3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내 휴대품 기준 (2026년 7월 1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기준)

위험물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의 위해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위해 물품: 무기, 화약류,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동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경우 동반 가능**

이동 수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분해 후 전용 가방에 넣은 자전거

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 불가**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제외)

기타 물품



기타 불결하거나
안 좋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반입 금지**

리튬 배터리 제한
Lithium Battery Restrictions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 열차 내 휴대 제한
Restrictions on carrying high-capacity lithium batteries (over 160 Wh) on trains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는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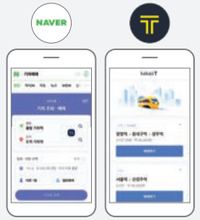
'코레일+'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60분 경과 후~ 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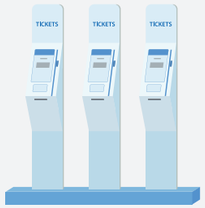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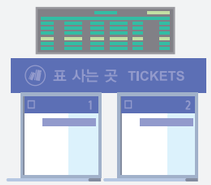
KORAIL Website(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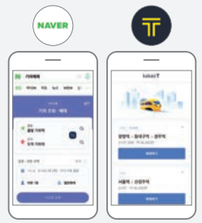
KORAIL +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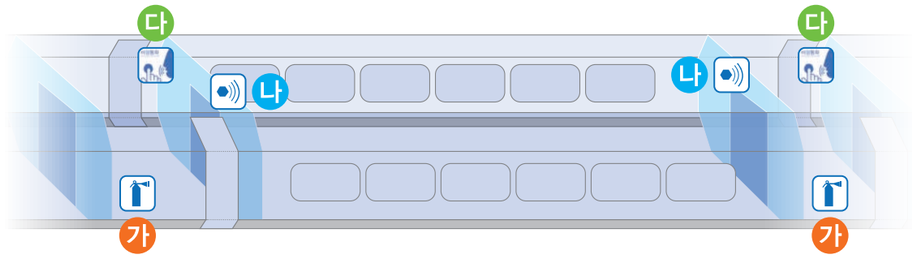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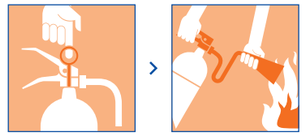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 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Request a refund at the station ticket offic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 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40%	70%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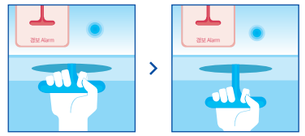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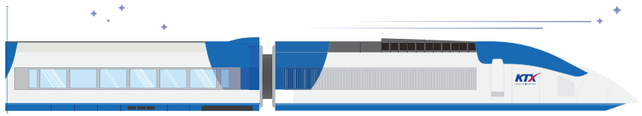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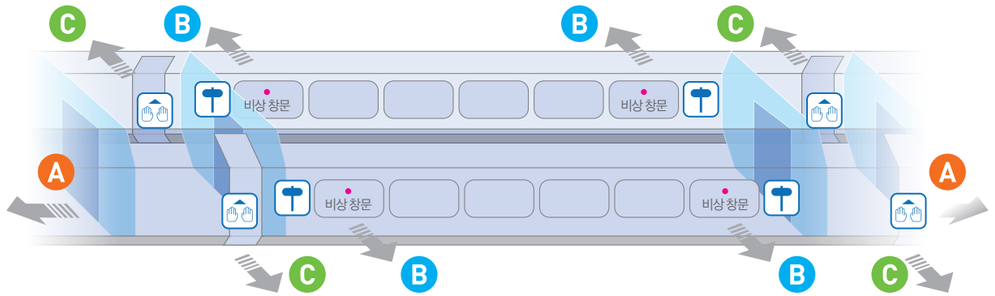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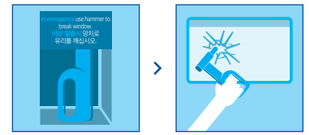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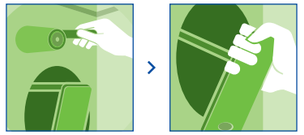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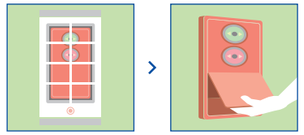
KTX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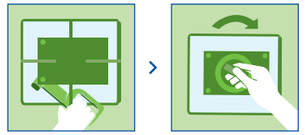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DITOR 김수아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서도밴드와 떠나는 음악 여행

음악 듣기

‘조선팝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밴드의
9년 여정이 첫 정규 앨범 <원>에 응축됐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구성진 가락이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삶의 희로애락이 깃든 플레이리스트

▶ 서도 Harvest Moon 닐 영



‘가을과 기차’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곡이에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나른해지는 가을이 오면 천천히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보러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 기차를 타면 창가 자리에 앉는 편이에요. 차창이 커서 자연의 품에 안겨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 김성현 씻고 나면 사라질 것들 수코지

달리는 기차 안에선 회상, 내려놓음, 정리, 깨달음 같은 단어가 떠올라요. 이 곡에는 자꾸만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담겼어요. 기차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치열한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피어날 거예요.

▶ 연태희 Stop This Train 존 메이어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경은 계속 바뀌고,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이 곡은 기차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같은 기차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 주는 곡이에요.

▶ 김태주 Bike Riding 베란다 프로젝트

베란다 프로젝트의 ‘Bike Riding’은 자전거 벨 소리로 시작해 어딘가로 가는 기분이 들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나 좋아하는 곳을 향해서요. 각자의 사연을 품고 오른 기차 안에서 이 곡을 들으면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더 설렐 거예요.

▶ 정현빈 Les Fleurs 미니 리퍼튼

몽환적이고 웅장한 분위기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이에요. 가사에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꽃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차창에 비친 제 모습과 들판에 핀 꽃을 마주할 때,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 서도밴드 아리랑 서도밴드

시시각각 변하는 창밖 풍경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질문은 기차 안에 작은 사유의 정원을 만들어요. 서도밴드의 ‘아리랑’은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합니다. 삶도 기차처럼 앞을 향해 쭉 나아갈 거예요.



서도밴드

서도(보컬), 김성현(건반), 연태희(기타), 김태주(베이스), 정현빈(드럼)으로 구성된 밴드. 전통음악을 팝 음악 형식으로 풀어낸 ‘조선팝’ 장르를 개척한 팀이다. 2021년 첫 번째 EP 앨범 <Moon: Disentangle>을 발매했고, 같은 해 JTBC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싱어게인4>를 통해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독창적인 편곡 역량과 보컬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지난 8월 발매한 첫 정규 앨범 <원>은 <춘향가>를 모티브로 판소리의 주요 대목을 알앤비, 록 발라드, 펑크 등 세련된 팝 사운드로 재해석했다. 대표곡으로 ‘사랑가’ ‘뱃노래’ ‘City Lights’ 등이 있다.

© 서도밴드 박시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새로운 통합 관광 캠페인

충남 트래블 페스타 2026

다가올 여름과 가을에 어디가지 고민할 때,
우리 함께 ‘충남’으로 떠나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의 시간을 걷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천장에 새긴 충남 청양의 최양업 신부 탄생기념경당.

광고문의 02-2276-1190